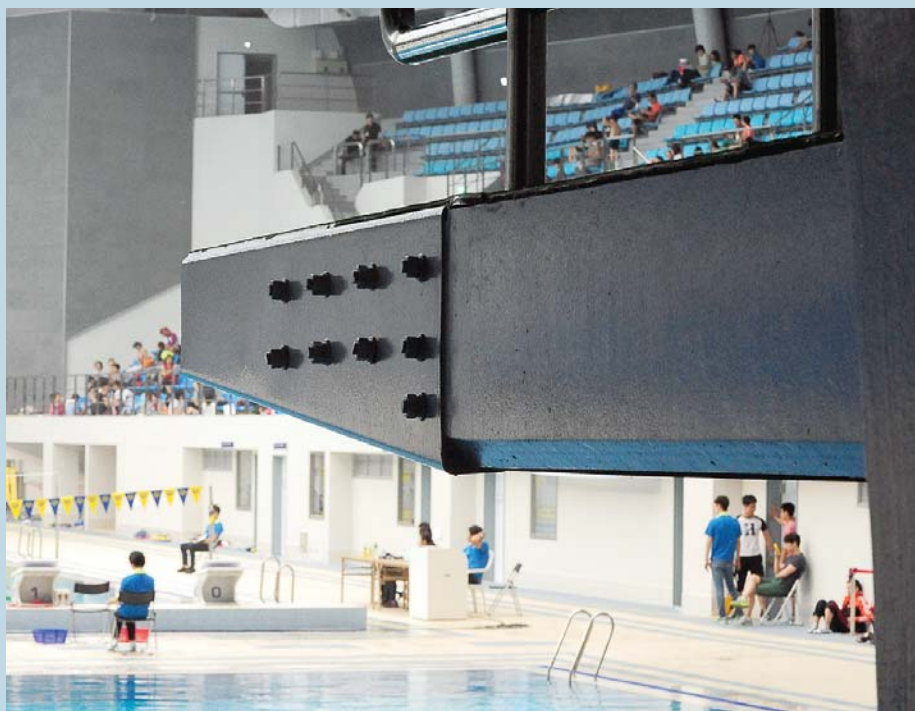




부실공사의 흔적들 ‘국제적 망신’ 우려

개막이 3개월도 채 남지 않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 대회가 치러질 경기장 곳곳이 부실투성이인 것으로 드러났다. 육상경기가 치러질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육상트랙 물시트는 틈이 벌어져 재시공이 요구되고 있고, 3만석의 가변좌석은 불안하게 설치돼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수영과 다이빙경기가 펼쳐질 문학박태환수영장은 콘크리트 재질의 2개 다이빙대의 길이가 짧아 스테인리스 재재를 이어 붙였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벌어지고, 덧붙이고 ‘위험한 게임’

‘총체적 위기’ 인천 아시안게임 × 경기장도 부실투성이

인천아시안게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장도 곳곳이 부실투성이이다. 관련기사 3면

지난 21일 오후 1시께 인천시 서구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이곳에 깔린 푸른색 육상트랙은 경기를 한 번도 치르지 않았는데 얼룩덜룩했다. 육상 트랙은 구간 별로 색깔이 바르고, 감게 변한 곳도 있었다.

육상트랙은 ‘롤시트’로 시공됐는데 각 롤시트가 접하는 부분에는 검은색 본드 자국이 덕지덕지 붙어 있었다. 본드라도 바닥에 제대로 부착이 안 돼 롤시트 곳곳이 들떠 있었다. 롤시트 접합부분을 손가락으로 누르면 물기가 빠져나왔다.

롤시트 사이에 틈이 벌어진 곳도 있었다. ‘스파이크’를 신고 달리는 육상 선수들이 이곳에 발이 걸려 넘어질 수도 있다. 주경기장 육상트랙 사

진을 본 한 육상인은 “이런 곳에서 달리는 건 어렵다”며 “트랙이 평평해야 하는데 곳곳이 튀어나와 있고, 틈이 벌어져 선수가 제대로 뛰지 못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구 주경기장 육상 트랙은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해 보였다.

지난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는 대구시 관계자는 “대회가 석 달도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공사중이라니 믿을 수 없다. 대구는 대회 4개월 전에 국제공인까지 모두 마쳤었다”며 “국제공인도 받지 못했다고 들었는데 이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곳곳에 얼룩이 있는 부분에 대해 감리단에 확인을 지시했다”며 “본드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다. 지금도 주사기를 이용해 본드를 주입하는

연결틈새 달리기 힘들어 육상트랙 재시공 불가피

짧은 다이빙대 이어붙여 2개 겹치기도 ‘사고 위험’

작업을 하고 있어 들뜸 현상도 완화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주경기장 전광판 뒤에 설치된 성화대 기단은 창고로 써야 하는 처지다. 아시안게임조직위원회에서 인천시가 이미 설치한 기단을 쓸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단을 만들었는데 조직위에서 기단이 자신들이 올릴 부분보다 작다고 해 다시 만들기 위해 설계요역을 줬다”며 “기존에 만든 기단은 창고로라도 쓸 것이다”고 말했다. 조직위는 아직까지 성화대 설치에 필요한 예산도 책정해 놓지 않아 제 기간 내 성화대가 설치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는 다이빙대가 큰 문제다. 인천시는 콘크리트 재질 2개 다이빙대의 길이가 짧다는 지적이 나오자 스테인리스 재재를 이어 붙였다. 한 다이빙대에 전혀 다른 재재가 사용되면서 선수들이 제 기량을 펼치기 어려울 수도 있다.

다이빙대 중에는 서로 겹쳐 있는 곳도 있어 연습 중 사고 위험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다이빙대 옆에 ‘스핀보드’가 추가로 설치되면서 기존 다이빙대 위치가 옮겨졌고, 2개 다이빙대가 겹치는 지금의 기이한 모습이 나오게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TD(아시안게임 기술대표)의 요구에 따라 이뤄진 일이다. 이쪽과 재질 등에 대해 모두 협의를 했다”며 “당초 설계자인 건축업체도 구조상 이상이 없다고 했다. 국제수영연맹(FINA) 규정을 모두 지켰고, TD가 다 검토했다”고 해명했다.

/홍현기기자 hkh@kyeongin.com

월드컵 경기일정

한국시간 기준

<K1=KBS1, K2=KBS2, S=SBS, M=MBC>

26일 목요일

 나이지리아	F조 VS 오전 1시 (S, M) VS 아르헨티나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F조 VS 오전 1시 (K2) VS 이란
 온두라스	E조 VS 오전 5시 (S) VS 스위스
 에콰도르	E조 VS 오전 5시 (K2, M) VS 프랑스

유정복 친형 건설사 인천 떠나 7

매립지 연장갈등 권익위 변수 23

“北, AG응원단 파견 준비마쳐”

북측 체육계 관계자 전언 입장표명 시기 조율중인 듯 市 공동응원단 계획도 ‘탄력’

오는 9월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하는 북한이 이미 응원단 파견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의 응원단 파견이 성사될 경우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공동응원단 계획(경인일보 6월 24일자 1면 보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회 흥행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 체육 교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24일 “이미 5개월 전에 북한이 아시안게임 출전에 대비, 응원단 파견 준비를 마쳤다는 소식을 북측 체육계 인사로부터 직접 들었다”며 “북한이 정치적 사안들을 고려해 공식적인 입장 표명 시기를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입장 표명 시기와 관련해서는 북한 양궁 대표팀이 인천으로 전지훈련을 오는 다음달께가 될 것이라 전망도 나오고 있다. 8월 15일이

아시안게임 출전 선수 명단을 통보하는 최종 마감일인 만큼 이전에 우리 측에 응원단 파견 의사를 타진할 수 있다는 게 대북 체육 자원단체 관계자들의 얘기다. 최근 북한 소식통들은 북한 내부 주민들의 말을 인용해 김일성 종합대학 학생들로 구성된 응원단 100여명이 아시안게임 대회에 대비, 응원연습과 사상 교육 등을 받고 있다는 말을 전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과 2003년 대구 유니버시아드, 2005년 인천 아시아육상대회에 응원단을 파견했다. 북측이 이번 아시안게임에 응원단을 파견할 경우 인천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북측 응원단을 2번이나 맞이하는 도시가 된다. 특히 2005년 아시아육상대회 기간에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부인인 리설주가 응원단 일원으로 인천에 왔었다.

통일부도 북한의 응원단 파견과 관련해 나쁘지 않다는 입장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예전 사례를 볼 때 북한의 응원단 파견은 개연성 있는 일이고, 북측에서 요청이 오면 협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文, 청문회 문도 못열고 사퇴

총리 지명 14일만에 물러나 김문수 등 정치인 기용 거론

‘친일’ 등의 논란에 휩싸였던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24일 자신의 소회를 담은 기자회견을 갖고 끝내 자진 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 정부는 출범 이후 안대희 전 대법관, 김용준 전 현재소장 등 3명의 총리 후보자가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문 후보자는 이날 오전 정부 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총리 지명 14일만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청와대는 새 총리 지명자 인선에 본격 착수했다. 관련기사 4면

문 후보자는 회견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 드리고 싶었다”며 “그러나 제가 총리 후보로 지명받은 후 이 나라는 더욱 극심한 대립과 분열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며 사퇴 결심 배경을 설명했다.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가 새 총리 지명자 인선에 착수한 가운데 김문수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정치인 기용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어 인선 결과가 주목된다.

/정의희기자 jej@kyeongin.com



Global Leading Company of Digital Signage

Green Technolodge! Green Innovation!

디지털 LED의 대중화를 이끌어하겠습니다!



한국킹유포의 디지털 LED Signage는?

차세대 친환경 소재인 LED광원으로 적용함은 물론,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비디오영상제어기술'과 'Motion Software'를 적용하여 "세계최초 동영상 광고효과를 구현"한 신개념의 디지털 사이지니 광고기술입니다.

KING YOO
ELECTRONICS CO., LTD.

Digital LED Signage / LG LED Lighting & PLS / MV / 전자칠판 / DID

TEL. 031-544-3485~7 FAX. 031-544-3489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733-25

도민체전 사실상 무산

세월호 참사로 무기 연기... 월드컵·휴가철·AG ‘줄줄이’

시·군·가맹단체 일정 ‘난색’ 60년만에 내년으로 미뤄질듯

세월호 참사로 무기한 연기됐던 ‘제 60회 경기도체육대회’(이하 도민체전·경인일보 5월8일자 15면)가 사실상 연내 개최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도민체전은 지난 1989년 전국체전이 수원에서 열려 개최를 하지 않은 적은 있었으나, 이번처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해를 넘긴 것은 60년만에 처음이다.

24일 경기도와 안성시 등에 따르면 안성시는 최근 도에 도민체전 개최를 내년으로 연기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안성시가 도민체전 하반기 개최시기를 조율하려고 노력했지만 안성을 제외한 도내 30개 시·군과 24개 종목 가맹단체들이 대거 참석을 하지 못한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일선 시·군들과 가맹단체들은 6월에는 브라질 월드컵축구대회가 한 달 동안 열리고, 7~8월에는 여름 휴가기간, 그리고 9월에는 인천 아시안게임, 10월에는 제주 전국체육대회 등 굵적굵직한 대회가 차례로 열려 가맹단체 선수들의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민체전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 2일까지 안성시 일원에서 역대 최다

인 1만2천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세월호 참사로 인해 무기한 연기됐다. 도는 이에 따라 조만간 마지막으로 31개 시·군과 가맹단체의 의견을 청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재로

‘도의회 소관 상임위 이원화’ 경기도시공사 커지는 반발

노조 “시간낭비·혼란뻔해” 항의면담·인사위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9대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시공사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둘로 쪼개질 처지(경인일보 6월 18일자 2면 보도)에 놓이자, 도시공사 내부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24일 도의회 강득구 운영위원장을 향한차 면담한 도시공사 노동조합은 25일부터 제288회 정례회 2차 본회의가 열리는 26일까지 도의회 앞에서 상임위 이원화를 반대하는 1인시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소관 상임위를 둘로 쪼개는 것은

선 도와 시·군들이 합의한다고 해도 물리적인 준비 기간과 가맹단체 선수들의 일정 등을 감안하면 연내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로써 도민체전은 60년만에 처음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안성시 관계자는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한 결과, 연내 개최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 경기도와 시군들과 의견을 조율해 개최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성·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시화호 일대가 ‘한눈에’

안산시 단원구 시화조력발전소 조력문화관이 문을 연 24일 오후 75m 높이의 전망대에서 시민들이 시화호 일대를 살펴보고 있다.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는 앞선 기술력과 시화지구 개발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문화관은 ‘달이 만드는 무한에너지’를 상징하는 디자인을 바탕으로 75m 규모의 달 전망대와 전시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영수기자 pplys@kyeongin.com

한강수계관리기금 ‘एं터리 집행’

전출자에 주민지원비 지급등
도 운영실태 감사 14건 적발

한강수계관리기금(수계기금)에서 경기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에게 지급하는 주민지원사업비가 시군별로 엉터리로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4일부터 열흘간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남양주·여주·양평 등 3곳에서 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수계기금은 상수원관리지역으로 지정돼 환경규제와 행위제한을 받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증대

를 위해 지원되는 사업비를 말한다. 광주·양평·여주·남양주·이천·용인·가평·하남 등 도내 8개 시·군이 매년 평균 560여원을 배분받아 지역별로 평균 70여원을 지원받는다.

이번 도 감사에서는 수계기금 가운데 주민직접지원사업비 집행에서 문

남양주시는 2011년부터 2년간 지급 대상이 아닌 다른 지역 전출자 6명에게 1천100만원의 주민직접지원사업비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2011년 7월 6천900만원을 들여 A면 마을회관 옥상 방수공사를 한 뒤 누수가 발생했는데도 하자보수를 요청

하지 않고 이듬해 추가로 보수공사를 해 예산을 낭비했다.

이와 함께 B읍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면서 계약금도 받지 않고 4개 마을별로 분할발주 후 수익계약을 체결, 약 8천1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여주시도 주민지원사업으로 ‘구글기’ 등 농기계를 구매하면서 조달원가보다 비싸게 주고 사 수계기금 손실을 가져왔다.

도는 수계기금을 잘못 운영한 담당 공무원들에게 시정조치하도록 지시하고 잘못 지급된 사업비 3천250만원을 회수했다.

/이경진기자 lkj@kyeongin.com

항공화물 누적 운송량
인천공항 3천만 t 돌파
개항 13년만에 달성

인천공항 개항 이후 국제항공화물 누적 운송량이 24일로 3천만 t을 넘어섰다.

개항 이후 연평균 약 6.2%의 성장세를 보여온 인천공항 화물물동량은 2006년 6월15일 누적 1천만 t, 2010년 7월 2일 2천만 t을 돌파했으며, 올해 개항 13년만에 3천만 t을 넘어선 것이다.

인천공항 화물량은 세계 경기 침체와 화물 경량화 추세 등으로 2011년부터 정체기를 겪기도 했으나, 신규 화물 수요 발굴과 마케팅 활동을 비롯한 다각적인 노력끝에 2013년 전년 대비 0.3% 증가한 246만 t을 기록하며 증가세로 돌아섰다.

올해에는 5월까지 화물운송량이 전년 동기대비 4.5% 증가하면서 재도약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인천공항공사 최홍열 사장직무대행은 “인천공항은 정부와 항공사·물류기업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개항 13년만에 화물운송량 3천만 t을 달성할 수 있었다”면서 “2020년까지 국제선 항공화물 1위 공항을 목표로 신규 시장 개척과 신성장 항공화물 품목 개발, 주변국 중소형 공항을 연계한 환적화물 증대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인천공항은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2014 국제항공화물협회(TIACA) 항공화물 포럼 및 전시회’를 동북아 물류 허브공항으로서 위상을 굳히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차홍빈기자 sky@kyeongin.com



天地風水地理研究院
동북번호: 111-50-64162

전국 표지관리공사

화장, 사초(복원), 이장, 자연장, 화장, 수목장, 조경, 석물, 가묘, 묘지안정, 수목

풍수적 풍수자리 봐 드림니다

주책지, 발장, 펜션, 가든, 모텔, 콘도, 사옥, 병원, 요양원, 학원, 학교, 사찰, 뒷자리, 축사장 등

문의: 011-757-7890 02-778-0707

Skilltreejob 48시간내에 게임 개발하라!

‘스킬트리랩 부트캠프’
판교서 27일부터 3일간

대한민국 최고의 ‘게임시터’로 주목받고 있는 성남 판교에서 3일간 ‘게임 개발 캠프’가 열린다.

경기콘텐츠진흥원(원장·최동욱)은 오는 27일부터 29일 2박3일간 성남시 판교 공공지원센터내 경기문화창조허브에서 ‘스킬트리랩 부트캠프 in 판교’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스킬트리랩(원장·김일홍), 유니티테크놀로지스코리아대표·양우형) 등이 공동 주최하게 되는 이번

행사는 한정된 장소에서 3일안에 주어진 주제에 맞도록 게임 혹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할 수 있는 시험판 형태로 만들어 내 승자를 가리는 게임으로 참가자들이 팀을 꾸리고, 2박3일(48시간) 동안 논스톱으로 숙식을 해결하며 개발에 몰두하는 일종의 ‘앱 개발 캠프’이다.

참가 신청은 26일 오후 2시까지 온오프믹스 홈페이지(onoffmix.com/event/28908)에서 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1만원이다.

입상자들은 경기도 콘텐츠 창업보육시설인 ‘경기문화창조허브’ 입주 심사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부천/형) 등이 공동 주최하게 되는 이번

퇴직공무원, 사기업 취업제한 강화

3천960 → 1만3천466곳 확대

퇴직 공무원이 임의로 취업할 수 없는 민간업체가 현재 3천960곳에서 1만3천466곳으로 늘어난다.

안행장은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의 규모 기준을 낮추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을 25일 공포한다고 24일 밝혔다.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 규모 기준은 현재의 ‘자본금 5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50억원 이상’에서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또 취업제한 범주법인과 회계법인의 기준은 ‘외형 거래액 150억원 이

상’에서 ‘외형 거래액 100억원 이상’으로 확대됐다. 세무법인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형 거래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취업이 제한된다.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체 명단은 25일 오전 9시부터 대한민국전자관보(gwanbo.korea.go.kr)·안행부(www.mospa.go.kr)·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www.gpec.go.kr)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 대상 영리사기업에 취업하려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거쳐 취업하려는 기업과 퇴직 전 업무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받아야 한다.

/정희경기자 jei@kyeongin.com

“못잊어 신동진 쌀”은
전량 농가와 계약재배 및 냉각 사일로에 보관하고 도정하여米粒이 연중 균일하게 생산하여 맛있는 쌀을 공급합니다.
국립 호남작물시험장에서 고품질 쌀로 개발된 품종으로 일반 품종에 비해 쌀알이 굵어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하므로 소비자가 믿고 선택 할 수 있고 철저한 품질관리를 통하여 품질관리기준에 합격된 제품만 출하하는 믿을 수 있는 고품격 쌀입니다.

세계로 수출하는 믿을 수 있는 고품질 브랜드 쌀

“못잊어 신동진” 쌀

화학약품과 비료를 쓰지 않는 건강한 땅
농약없는 우렁이농법으로 탄생한 유기농 쌀
고객님의 건강한 식탁을
“못잊어 신동진” 쌀이 책임집니다!

무료주문전화
080-471-4471

농민과 도시의 상생정신을 지키는
옥구농업협동조합 전북 군산시 옥구를 어은리 1290번지 www.okku.co.kr

낮은 공사비=중국 자재 최저 입찰제 도입 ‘화근’



‘총체적 위기’ 인천 아시안게임

▶3< 아깁짓 쓸낀 구별못하는 행정

5개 경기장 대부분 적용...市 “1천억 절감” 자화자찬
육상경기 트랙·물시트 등 중요시설까지 중국산 선택
무리한 준공 맞추기·시-조직위간 불협화음도 문제

경기장 곳곳에서 나타나는 부실시공 문제는 ‘돈 쓸 곳’과 ‘아깁짓’을 구별할 줄 모르는 행정이 원인이라는 지적이다. 대상을 가리지 않는 최저가 입찰 방식이 화를 불렀다는 것이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 건설을 맡은 현대건설은 최저가 입찰을 통해 공사를 수주했다. 인천시는 2011년 아시안게임 예산 절감을 내세우며 5개 경기장 조성공사에 대부분 최저입찰제를 도입했다. 인천시는 이때 최저가 입찰 등을 통해 1천억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게 됐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낮은 공사비에 맞춰 공사를 하다 보니 값싼 자재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아시안게임 기간 중 가장 많은 경기가 치러지는 육상 경기 트랙마저도 중국산 자재가 쓰이게

된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아시안게임 주경기장과 보조경기장 2만㎡에 물시트를 까는 데 사용된 비용은 9억여원. 이곳 물시트는 중국의 한 회사에서 수입해 국내 업체가 시공했다.

이 같은 비용은 2011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당시 대구시에서 물시트를 까는 데 쓴 돈 18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대구 육상대회 경기장에는 이탈리아의 몬도사에서 제조한 ‘몬도트랙’이 시공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몬도트랙이 다른 트랙에 비해 탄성이나 재질이 좋다. 때문에 해당 물시트를 선택했다. 육상트랙은 선수들이 매일 같이 달려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곳인데 중국산을 쓴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렵

다”며 “인천에 물시트를 납품한 업체 이름은 처음 들어봤다”고 말했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걸린 ‘세리머니’에 따른 무리한 준공 맞추기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의 경우 준공식을 가진 뒤 다시 재시공을 하고 있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공식을 가졌고, 결국 재시공이란 결과가 나오게 됐다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육상트랙의 얼룩은 준공식 이후 잔디를 옮기는 과정에서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물시트를 까는 작업은 손상을 막기 위해 가장 마지막에 이뤄진다”면서도 “준공시기는 당초 정해진 기간에 따라 한 것이다. 무리하게 빨리 준공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조직위와 인천시 사이의 불협화음도 곳곳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육상트랙을 재시공하게 된 표면적 원인은 두 기관 사이의 소통 부족이다. 조직위가 준공식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나서야 이곳 트랙을 재시공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점이 두 기관 사이 협의가 부족한 점을 그대로 보여준다.

성화대도 두 기관 사이 소통 부족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가 성화대 기단을 설치한 뒤에야 조직위가 해당 기단의 위치나 규모 등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 때문에 수천만원의 들어 기단을 지은 인천시는 또다시 1억5천여만원을 주고 ‘추가’ 기단을 만들어야 한다. 두 기관 사이의 불협화음으로 성화대는 대회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설계 중이다. 조직위는 성화에 들어갈 예산이 얼마인지도 산정하지 않고 있다. 성화대는 인천시가 기단을, 조직위가 점화 부분을 각각 따로 설계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에서는 점화 부분 높이가 높을 것으로 보고 기단을 낮게 했다. 그런데 조직위에서는 운동장에서 보이게 하기 위해 기단을 높여 달라고 해 다시 짓게 됐다”며 “사전에 협의는 했는데 성화개념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홍천기자 hkh@kyeongin.com



24일 오전 인천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인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제6회 지방선거 당선 축하 인사회’에서 당선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박우섭 남구청장, 김홍섭 중구청장, 이흥수 동구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 이재호 연수구청장, 홍미영 부평구청장, 조윤길 옹진군수 당선자.

/임순석기자 sseek@kyeongin.com

與·野·이념 넘어 인천발전 힘쓰겠다

지방선거 당선자 축하인사회서 ‘한목소리’

6·4 지방선거 당선자들이 여·야, 진보와 보수에 얽매이지 않고 오로지 인천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인천상공회의소가 24일 라마다송도호텔에서 연 ‘제6회 지방선거 당선 축하 인사회’에서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오늘 이 자리의 진짜 의미는 당선 축하보다 앞으로 시장을 잘 이끌어 나가라는 시민들의 기대와 바람에 있다는 것을 안다”며 “선거 과정에서 여·야, 내편과 내편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두 하나다. 섬겨야 할 시민들만 있을 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사심 없이 인천 발전만을 위해 노력하겠다. 작은 것에 연연하지 않

고, 관행에 휘말리지 않고 바른 정치로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당선자도 “오래 전부터 교육에는 여·야, 진보와 보수가 나뉘어 있지 않다고 강조해 왔다”며 “그동안 인천의 교육은 아이들을 힘들게 하고,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주지 못했다. 이제는 오로지 아이들만을 생각하는 교육, 위대한 인천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또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만들겠다. 소통과 포용의 리더십, 지혜를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홍섭 중구청장 당선자는 “인천은

그동안 화합하지 못해 겪은 어려움이 많았다. 함께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 중구와 같은 원도심이 살아나야 인천이 살 수 있다. 살고 싶은 환경을 만들고, 공장과 향만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흥수 동구청장 당선자 역시 “인천 구도심의 상징인 동구가 발전해야 인천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 동구의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홍미영 부평구청장 당선자는 “인천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체를 일구 국가 발전에 밑바탕이 됐으면 한다. 인천시, 의회, 상공인, 구민, 공직자 등 모두와 힘을 모아 지역 발전을 이루겠다”고 했고, 박우섭 남구청장 당선자

는 “구민, 상공인들과 호흡하며 겸손하게 구정을 이끌어 가겠다. 주안산단 구조고도화 사업과 문화산업진흥지구 의 꾸준한 발전으로 일자리 많은 남구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또 이재호 연수구청장 당선자는 “달리진 연구, 멋진 연구구를 경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고, 조윤길 옹진군수 당선자는 “천안함 사건, 연평도 사건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구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겠다”고 했다.

김광식 인천상의 회장은 “당선자들이 인천 발전과 변화를 이끌어 주시길 바란다. 경쟁, 갈등을 털어내고 지역 경제 살리기에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석진기자 psi06@kyeongin.com

| 알림 |

허화평 이사장 초청 강연회

‘경제민주화 비판...’ 주제로 내일 라마다송도호텔



경인일보사와 인천경영포럼(회장·안승묵)이 공동 개최하는 제303회 초청강연회가 26일 오전 7시30분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노와르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강연회에서 허화평 미래한국재단 이사장이 강사로 나와 ‘경제민주화를 비판하다’란 주제로 강연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일시: 6월26일(목) 오전 7시30분
- 장소: 라마다송도호텔 2층 르노와르홀
- 참가 문의: 인천경영포럼 사무국 (032)818-6675

스마트 경인

7대 인천시의원 당선자 35명 ‘첫 대면’

교례회·세미나서 포부 밝혀

원구성 위한 여야협의 마무리

내달 임시회 시작 본격 활동

7대 인천시의회를 이끌어 갈 35명의 시의원 당선자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의회는 24일 송도컨벤시아에서 ‘시의원 당선자 교례회 및 세미나’를 가졌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날 자리에서 자신을 소개하고, 앞으로의 의정 활동에 대한 포부와 의지를 밝혔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소통으로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 ‘민심을 섬기는 겸손한 의정활동을 펴겠다’, ‘여야가 함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겠다’ 등의 의지를 나타내며 인천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강부일 인천시의정회 고문은 축하사에서 “시의원은 시민을 대표하고, 인천 발전을 위해 판단하는 막중한 책임이 있는 자리”라며 “지역구에 매몰되지 말고 인천이라는 큰 틀에서 인천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시의원 당선자들은 이어 ‘지방의정의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한 박봉국 현대지방의정연구원장의 강의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시의원 당선자들은 내달 1일부터 진행되는 216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의정단 구성 등 원구성을 위한 여야 협의도 마무리됐다. 새 의장 후보로 결정된 새누리당 노경수 당선자는 “시의회 활동이 전대 시의회에 비해 훨씬 좋아졌다는 평가를 4년 뒤 시민으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 경인일보 창간69주년을 축하합니다 *



“또 하나의 自然”

안성마춤 브랜드는 자연에서 태어나
자연에서 자란 또 하나의 자연입니다





천혜일미 - 안성마춤 쌀



자연을 담은원우 - 안성마춤 한우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 안성마춤 배



백년의 정성으로 갈라낸 결실 - 안성마춤 포도



동양의 자연선비 - 안성마춤 인삼

안성마춤 브랜드는 안성인의 금지이며 자랑입니다.

안성마춤 역사와 전통 유기를 만들던 장인정신 함축
마패 청령현과 믿음의 상징-동정을 지키겠다는 약속
5대농산물 함유 쌀, 배, 포도, 인삼



국방위원회, 총기난사 피해자 묵념

황진하 국방위원장 등 국방위원들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에서 총기 난사사건 피해자를 위한 묵념을 하고 있다.

/황진

‘국정 공백 장기화’朴대통령 타격

문창국 총리 후보 결국 사퇴

결국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사퇴했다. ‘친일 사관 논란’ 때문에 인사청문회도 치러보지 못하고 24일 결국 낙마한 것이다. 이로써 집권 2년차의 중반을 향해가는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심대한 타격을 입게 됐다.

지명 뒤 15일째 문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지난해 2월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지명한 김용준 총리 후보자와 지난달 안대희 총리 후보자에 이어 1년 4개월만에 세 번째다.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지난달 28일 인사청문회 전에 스스로 물러난 데 이어 후임 총리로 발탁한 문 후보자까지 잇따라 중도 낙마하면서 2개월에 가까운 ‘총리 부재’ 사태가 이어진 터여서 국정공백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1년4개월만에 세번째 낙마사태

국민 신뢰 떨어 뜨리는 ‘악재로’

김기춘비서실장 거취 야권 압박

차기 총리 지명 놓고 부담 커져

정철원 총리가 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난 4월27일 사의를 표명한 뒤 이날로 59일째 사실상 공석 상태다.

이같은 총리 후보 낙마는 국정 최고책임자인 박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악재로 작용하고, 향후 총리 인선 등 국정운영도 상당 부분 야당의 눈치를 봐야 하는 형국이다.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

동대표가 차기 총리를 지명할때 야당과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같은 현상은 곧바로 국정운영 동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박 대통령이 내세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나 판피야 적폐 해소도 당분간 제 길을 찾지 못할 수도 있다.

그나마 문 후보자가 이날 자진사퇴하면서 일단 큰불은 꺼진 형국이다.

남은 가장 큰 불씨는 바로 김기춘 비서실장의 거취다. 안대희 후보자 낙마 때까지는 김 실장이 버텼지만, 문 후보자 낙마 사태까지 발생한 만큼 야권을 중심으로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국민 눈높이와 괴리됐다는 평가를 받는 청와대 인사검증팀이 이번에도 검증 작업을 주도한다면 ‘제2의 김용준·안대희·문창국’이 생길지 말란 법이 없는 만큼, 대부분 검

찰 출신으로 구성된 민정재인과 함께 청와대 인사들만 이뤄진 인사위원회 구성에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와대는 다음 총리 지명에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됐다.

누가 낙점될 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문 총리 후보자의 낙마로 여의도에서 새롭게 거론되는 인물들 중에는 김문수 경기지사의 이름이 꾸준히 오르내리고 있다. 새누리당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이 그를 총리로 추천했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내 일부 인사들도 이에 동조하는 기류가 있어 ‘김문수 카드’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아울러 범동교동계 출신인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 ‘경제민주화 아이콘’으로 불리는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 등이 다시 거명되고 있다.

/정의종기자 je@kyeongin.com

새누리 당권주자 “靑 인사검증 시스템의 오류”

새누리당 당권주자들이 24일 문창국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에 대해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의 오류라고 지적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유력 당권주자인 김무성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문 후보자의 사퇴는)안타까운 일”이라며 “총리가 낙마한 데 대해 그(인사검증)을 담당한 분은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특정인을 거명하지 않았지만,

청와대 인사위원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김 의원은 또 “문 후보자의 주장은 거의 다 일리있는 주장”이라며 “그러나 불만이 있다. 후보자가 친일 반민족주의자로 낙인찍혔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일방적인 회견에서의 주장으로 끝낼 게 아니라 질의·응답을 통해 확실히 해명해야 했다”고 질었다.

청년 비례대표인 김성민 의원도 기자회견

을 통해 “문 후보자도 박근혜 정부 인사시스템의 피해자”라며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김 실장의 책임론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사실 그동안 국회 인준이 필요없는 인사의 경우 청문회나 언론 검증 과정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인사도 그대로 임명된 경우가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인사시스템은 총체적으로 고장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력 당권주자 중 문 후보자

의 자진사퇴를 촉구해 온 서청원 의원은 문 후보자의 낙마 사태의 책임을 청와대로 돌리는 것에 대해 “비서실장이 검증하는 분은 아니다”라며 “후보 검증은 국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는데, 탈세 범죄 등은 밝혀지지만 교수 논문까지 검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강조하는 등 청와대 감싸기에 나섰다. 그러면서 “이런 인사 문제로 국정이 표류하고 국가가 난맥상으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하고자 외국의 예까지 연구해서 격려탄을 비서실장이 맞고, 그것이 대통령에게까지 가는 것은 바뀌어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했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

‘IT 코리아’ 재도약·공정한 방송 만들것



국회 상임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새누리당·의정부)는 여당의 친박(친박근혜) 핵심 실세로 통한다. 직전 당 사무총장을 사퇴하고 미방위 위원장에 도전할 정도로 방송·통신·IT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의 탄생에 일조한 그로서는 현 정부에서 탄생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롤 모델적인 ‘창조경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미방위가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로 전락한 현실을 눈 뜨고 볼 수만 없었다는 게 그의 일성이다. 상반기 최고 인기 상임위원 국토교통위원회를 떠나, 자진해서 미방위로 옮겨 온 그는 미래의 먹거리인 방송·통신관련 입법에 주력하면서,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여야 소통에 주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새누리당 지도부 경선에도 출마해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를 24일 국회에서 만났다. 다음은 그와의 일문일답.

여야 소통 불량상임위 오명 불식 | 경기도 미래산업 육성 앞장

—미방위위원장에 도전한 배경과 선출 소감은.

“박근혜정부의 국정철학인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졌고, 국회 상임위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라는 새로운 상임위가 탄생하게 됐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지난 1년간 여야 대립으로 ‘불량상임위’, ‘식물상임위’로 전락하면서, 박근혜정부 탄생에 일조한 제가 위원을 맡아 좀 더 교육적이고, 소통하는 상

임위를 만들고 싶어 위원장에 도전하게 됐다. 더 막중한 사명감을 가지고, 미래한국 먹거리 창출하고, IT코리아의 제도약과 안전한 원자력, 공정한 방송을 만들어 나갈 생각이다.”

—“불량상임위”라는 오명을 불식할 방안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 여야가 대립할 경우 위원장이 직접 중재안을 내고,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로 하는 법안이나 예산안이라면 여야를 초월해 설득하겠다.”

—주요 쟁점은.

“현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KBS 수신료 인상, 접시 없는 위성(DCS) 등 유료방송 점유율 규제(합산규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방송국이 청와대만 쳐다보는 것도 문제지만, 특정이념의 노조 소유물이 돼서도 안된다. 세월호 사태

때도 부정확한 방송이 국민들의 불안을 얼마나 키웠는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이 박 대통령의 공약이니 만큼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내도록 하겠다. 특히 방송기술과 환경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관련 법안은 제 자리에 그대로 있다. 시대 흐름에 맞도록 법안을 개선해 방송 발전을 견인하겠다.”

—미방위위원으로서 경기도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경기도는 지리적으로 IT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끌어내 경기도에 위치한 많은 기업이 성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볼 생각이다. 대학에서 종사한 사람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많은 생각을 해왔는데, 방송기술발전, 빅데이터, 3D프린팅 등 미래지향적인 산업을 경기도에서부터 육성하도록 하겠다.”

—당 대표 경선에도 출마했는데.

“한마디로 나라 잘 되게 하려고 출마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노력해야 국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제대로 된 당정관계를 통해 올바른 조력자가 될 생각이다. 열심히 하고 있고, 경기도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다.”

/정의종기자 je@kyeongin.com

경인의원 상임위원장 2명·간사 6명

새정치, 하반기 국회 상임위 배정 확정 ‘활약 기대’

새정치민주연합이 24일 19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을 위한 상임위별 배정을 완료했다. 경기지역 의원들은 상반기와 동일한 2명이 상임위원장을 차지했고, 간사는 상반기 3명보다 배가 많은 6명이 배치돼 폭넓은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국토교통위·산업통상자원위 등 인기 상임위 쏠림 현상이 두드러져 우려를 낳고 있다.

교문위의 경우 위원장 설훈(부천원미)·간사 김태년(성남수정) 의원을 필두로 조정식(시흥)·안민석(오산)·유은혜(고양일산동)·윤관석(인천남동) 의원 등 6명이 배치돼 상반기보다 1명이 늘었다. 국토위 역시 위원장 박기춘(남양주)·간사 정성호(양주동두천) 의원을 중심으로 김상희(부천소사)·이찬열(수원갑)·김경협(부천원미)·이언주(광명) 의원 등 6명으로 상반기보다 1명이 늘었다. 산자위는 백재현(광명갑) 간사 외에 홍영표(인천부평)·부좌현(안산단원)·이원욱(화성) 의원 등 4명으로 상반기보다 2명이 늘었다.

반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원자가 1명도 없었고, 보건복지위는 상반기 2명에서 0명으로 줄었다. 법제사법위는 상반기 2명에서 간사를 맡은 전해철(안산상록갑) 의원 1명만 남았고, 환경노동위도 2명에서 이석현(안양동안갑) 의원 1명으로 줄었다.

안전행정부도 5명에서 김민기(용인)·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만이 자리를 지켰고, 7명이었던 기획재정부도 간사를 맡은 윤호중(구리) 의원과 최재성(남양주갑)·김현미(고양일산서) 의원 등으로 축소됐다.

이밖에 정무위는 김영환(안산상록을)·신학용(인천계양갑)·이종걸(안양만안)·이학영(군포) 의원,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는 문병호(인천부평갑)·송호창(의왕과천)·최원식(인천계양을) 의원, 외교통일위는 문희상(의정부갑)·원혜영(부천오정) 의원, 국방위는 간사를 맡은 유후덕(파주갑) 의원이 각각 자리를 잡았다.

/김순기기자 islandkim@kyeongin.com

경기·인천 출신 여야 국회의원 하반기 상임위 배치

상임위원(특별위 포함)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기타
운영위	전하진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법제사법위	홍일표(간사), 노철래	전해철(간사)	
정무위	없음	김영환, 이종걸, 신학용, 이학영	
기획재정부	심재철	최재성, 김현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홍문종(위원장)	문병호, 송호창	
교육문화관광체육위	한선교, 김학용, 이종훈	설훈(위원장), 김태년(간사), 안민석, 조정식, 유은혜, 윤관석	
외교통일위	김영우(간사), 정병국, 원유철, 윤상현, 박상은	문희상, 원혜영	
국방위	황진하(위원장), 황우여	없음	유승우(무)
안전행정부	서청원	김민기, 박남춘	
농림수산식품해양수산위	안덕수	없음	심상정(정의)
산업통상자원위	이현재, 전하진	백재현(간사), 홍영표, 부좌현, 이원욱	
보건복지위	김명연	없음	김미희(진)
환경노동위	없음	이석현	
국토교통위	김태원, 이학재, 이우현, 함진규	김상희, 이찬열, 김경협, 이언주	
정보위	없음	문희상, 문병호	
여성가족위	김명연	김영	
예산결산특별위	김태원, 노철래, 안덕수, 이현재	김현미, 송호창, 윤후덕	심상정, 김미희
윤리특별위	없음	조정식, 김상희, 정성호, 유은혜, 윤관석	

새누리 이현재-새정치 박기춘·박남춘

법률소비자연맹 19대 의정활동 ‘톱 10’

새누리당 이현재(하남),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남양주)·박남춘(인천남동갑) 의원이 제19대 국회 2차연도 의정활동 종합평가에서 상위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이현재

박기춘

박남춘

법률소비자연맹은 24일 제19대 국회 2차연도(2013.6.1~2014.5.31)의 국회의원 의정활동을 13개 항목에 걸쳐 정밀평가해 모두 75명의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중 이현재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13개, 처리된 법안 중 공동발의 76개, 본회의 재석 79.7%, 상임위 출석 93.3%, 법안표결참여 97.3%를 기록, 상위 4위에 올랐다.

이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최우선의 의정 목표로 삼고, 하남과 경기도의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온 점을 인정받은 것 같다”며 “앞으로도 하남 시민과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박기춘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16개, 처리된 법안 중 공동발의 75개, 본회의 재석 78.0%, 상임위 출석 100%, 법안표결참여 84.0%로 종합 6위라는 성적을 냈다. 박 의원은 “늘 과분한 성원과 격려로 큰 힘이 되어주시는 남양주시민 여러분께 수상의 영광을 돌린다”며 “앞으로도 열정과 진정성이 겸비된 의정활동을 통해 대한민국 국회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하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목 더욱 헌신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박남춘 의원은 국감출석 100%, 처리된 법안 중 대표발의 7개, 처리된 법안 중 공동발의 106개, 본회의 재석 82.4%, 상임위 출석 100%, 법안표결참여 91.7%로 10위를 꿰찼다. 박 의원은 “입법부로서 기본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한 것에 대해 많은 분들이 좋게 평가해주신 것 같다”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저의 의정활동을 돌아보고 국민과 인천시민들에게 힘이 되고 신뢰를 주는 정치를 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경기지역 의원들은 새누리당의 경우 김학용(안성)·유승우(이천)·이종훈(성남분당갑)·전하진(성남분당을)·함진규(시흥갑) 의원 등이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김상희(부천소사)·설훈(부천원미)·정성호(양주동두천)·이찬열(수원갑)·홍영표(인천부평)·백재현(광명갑)·전해철(안산상록갑)·김민기(용인)·윤후덕(파주)·이언주(광명)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순기·송수은기자 islandkim@kyeongin.com

김현태 약사회 부회장, 수원병 보궐선거 출사표

김현태 (사)대한약사회 부회장이 7·30 수원병(팔달)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졌다. 김 부회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 도지사를 배출한 팔달구는 더 안전한 건강하게 발전해야 한다. 팔달구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병은 남정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보궐선거

대상지로 확정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 부회장은 안심도시 건설, 관광중심도시 조성, 구도심 재생발전, 지역연계 의무환당제 등의 공약을 내걸었다. 지난 20일 그가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하며 수원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새누리당 임호영, 새정치민주연합은 남정필 경기도지사 당선자가 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며 보궐선거

/강기경기자 kanggi@kyeongin.com

최재성 의원, 특별교부금 12억원 확보

남양주 천마산공원 도로 재정비 3개동 족구장에 인조잔디 조성

남양주시 금곡·평내·호평동 일대 족구장이 인조잔디구장으로 개선되고, 천마산 군립공원내 진입로와 보행로 등도 재정비된다.

최재성 국회의원이 지난 23일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금곡·평내·호평동 족구장의 인조잔디 조성엔 필요한 예산 3억6천만원을 비롯, 천마산 군립공원 진입로와 보행로 확장공사비 8억4천만원 등 모두 12억원의 안전행정부 특별교부금 예산을 확보했다.

3개 잔디축구장이 조성되면 기존 화도·와부 지역을 포함해 지역내 잔디축구장은 모두 5개로 늘어나게 된다.

인조잔디 조성과 함께 배수로 시설도 정비된다. 또 천마산 군립공원 주차장 진입도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늘리고 보행로를 조성해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등산객들의 방문을 적극

유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번 안행부 특별교부금 확보 과정에서 함께 노력해 준 신민철 시의원과 남양주시 관련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생활체육 인프라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확보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이종우·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온실가스 감축지원공모

시흥시 사업자자체 선정

시흥시가 에너지관리공단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한 ‘2014년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 대상 지자체로 선정됐다.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사업’은 지역 산업단지의 특성에 적합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파급 효과가 큰 아이템을 발굴·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지난 4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공모한 사업이다.

시는 한국기후변화대응전략연구소·(주)기성이앤씨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변동식 TVR(열적 재압축기)시스템을 이용한 스팀에너지 절감사업’을 공모해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 지원 지자체로 선정됐다.

시는 시흥스마트허브내 중소기업 1개 업체를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시스템을 도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 산업계 지원 사업에 선정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 모니터링을 실시해 사업 성과가 입증되면 2015년부터 시흥스마트허브 중소기업체에 확산 보급해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경인일보 구독신청
031-231-5503



인천시 중구청을 방문한 일본 요코하마시 시의원 일행이 중구청사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 중구청, 日요코하마 시의원 일행 방문

일본 요코하마시 시의원 일행이 24일 인천 중구청을 방문해 김홍섭 중구청장을 비롯한 간부와 중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간담회를 가졌다.

하나우에 기요시(花上 喜代志) 요코하마시 시의원 일행은 간담회를 마친 후 아트플랫폼, 짜장면박물관, 송월동 동화마을 등을 포함한 중구의 주요 관광지를 시찰하며 상호 도시발전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가나가와현 동부에 위치한 요코하마시는 인천시의 파트너 도시로 일본에서 유일하게 3개 분야 지정도시(환경미래도시·국가전략종합특구·특정도시재생 긴급정비지역)로 알려져 있다. 인천시 중구는 요코하마시 중구와 1998년 우호교류 협정을 체결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펼쳐 오고 있다.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연수구 민원담당공무원교육

인천시 연수구는 23~24일 이틀간 구청 대회의실에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유기한·죽결민원 업무 처리 및 각 동 주민센터 주민등록·사회복지담당 등 민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민원인을 응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으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의 전문 CS강사를 초청해 고객응대 기법 및 CS교육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됐다.

/홍현기자 hhh@kyeongin.com



“평택, 동북아국제통상 중심센터로”

임태희 새누리당 평택을 예비후보 비전 발표

임태희 새누리당 평택을 국회의원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에 대한 소회와 평택 발전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임 예비후보는 “평택 발전에 대한 민국의 백년대계다”며 “평택은 현재 서해안 중심도시로서의 도약과 경제

의 역사적 갈림길에 서 있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어 “평택항이 국가항만공사로 승격되면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와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생산성 향상 및 공격적 마케팅, 정책 결정의 민주화 등 많은 이점을 갖게 된다”며 “이를 통해 평택을 한·중·일 경제공동체를 지탱하는 동북아 국제통상 중

심센터로 발전시키겠다”고 비전을 제시했다.

그는 또 “특별자치시 추진을 통해 미군과의 선진국형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면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으로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 ‘전자·통신, 산·학·관 협력도시 구축’ ‘국제비즈니스·교육특구 조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평택/김종호·민웅기자 muk@kyeongin.com

“김포 현안해결 민·관·정 연례회의”

홍철호 새누리 당협위원장, 한강신도시연합 간담회

인천지하철 김포시 연장 등 생활정치 10개부문 공약

새누리당 김포 홍철호 위원장이 민원 및 현안사항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한강신도시연합회(회장·이병성)는 최근 홍철호 새누리당 당협위원장(국회의원 예비후보)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병성 한강신도시 연합회장은 인천 서구쪽에서 넘어오는 대기오염 문제와 한강신도시 기반공사 지연 문제 등 김포시장의 역량으로 풀지 못하는 사안에 대한 대안을 요구했다.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새누리당

김포시장 당협협의회에 대의협력 위원회를 결성해 민원 및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초석을 다지겠다”며 “대의 협력 위원회 인원 구성은 시민들과 전문가로 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유정복 인천시장과 김포시 현안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민관정 연례회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겠다. 정부 각 부처, 공기업, 경기도 등을 설득해 김포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홍철호 당협위원장은 예비후보에서 인천지하철 1호선 김포시 연장과 김포시 해강안 도로 개설, 고



홍철호 당협위원장

촌 씨네폴리스를 경기도 사업으로 변경해 실행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등 생활

정치 10개 부문을 선정해 공약했다. 한편 김포한강신도시연합회는 2008년 결성된 이후 김포한강신도시내 교통 대책 문제, 도서관 문제, 라베니체 수로 공사 문제, LH 김포시사의 기반시설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한 노력과 주변 대곡동 주물공장 환경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환경위원회를 결성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김포/김현기자 khk@kyeongin.com

하남시 취약계층 아동 지원

‘디딤씨앗통장’ 후원자 모집

하남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을 위해 ‘디딤씨앗통장 사업’ 후원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디딤씨앗 통장’은 정부가 18세 미만 아동시설, 가정위탁아동, 공동생활가정, 소년소녀가장, 기초생활수급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저축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자립금을 마련해 주는 사업이다.

아동은 18세가 되면 해당 통장에 적립된 금액으로 학자금, 기술자격 및 취업훈련비용, 주거마련금, 의료비 및 창업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후원자에게는 연말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시사회복지과(031-790-5597) 하남/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화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계경기’ 공모 당선작 투시도.

화천복합체육센터 설계 공모

양주시 ‘Active Zenga’ 선정

양주시가 ‘화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계경기’를 공모한 결과 (주)관건축사무소와 (주)케이제니지아리얼종합건축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화천복합체육센터 건축설계경기’ 공모에는 13개 설계사무소가 참여했으며, 그중 4개사에서 작품을 제출해 당선작·우수작·가작을 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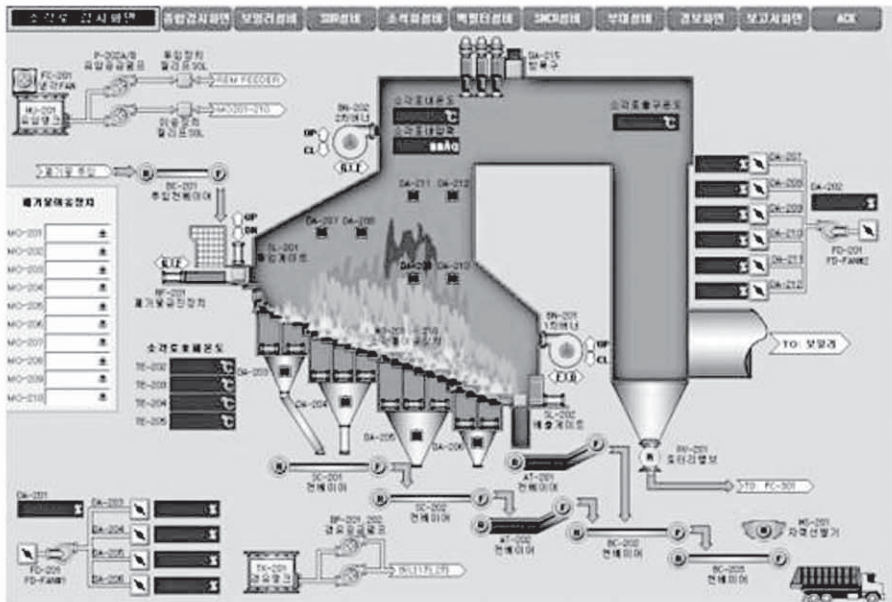
(주)관건축사무소와 (주)케이제니지아리얼종합건축사무소가 공동 응모한 ‘Active Zenga’는 운동·복지 등의 복합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평면·동선계획과 공공성 및 예술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빗물의 재활용, 태양광 설치 등 에너지 절감형 친환경 건축물로 꾸민 것도 높이 평가됐다. 화천복합체육센터는 덕정동 206에 지하 2층 지상 6층 1만1천342㎡ 규모로 건립되며, 시는 총사업비 295억원을 투입해 올 하반기 착공, 2016년 완공 예정으로 있다.

입선작은 오는 30일까지 양주시청 1층 로비에서 전시된다.

양주/이상현기자 lsh@kyeongin.com

Homepage : www.cint.co.kr

중앙아이엔티(주)는 당신의 미래에 함께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동제어부문 사업분야

- 상하수도시설물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터널관제시스템
- 소각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 빌딩관제시스템
- 수방시설 감시제어시스템
- 자동화 공정관리시스템

중앙아이엔티(주)
Central Information & Technology co.,LTD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799 안양메가밸리 418호
TEL. 031-381-6200 FAX. 031-420-4429

아파트 수요자 선호 신축 이거나 중소형

10년 초과-5년 미만 주택
3.3㎡당 가격차 300만원이상
면적 작아도 내부구조 다양
대형건설 브랜드 주요기준



최근 주택시장에서 신규 아파트 및 중소형 면적 선호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소비자들의 주거선택에 다양한 변화가 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토대로 국내 대표적 주거유형인 아파트와 관련해 나타나고 있는 트렌드를 분석해 발표했다. 우선 신규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다. 과거 10년 초과주택과 5년 미만 주택의 전국 평균 아파트 매매 가격은 거의 비슷했지만 지난해 3.3

㎡당 가격차가 300만원 이상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06년부터 발코니 확장이 가능해지면서 아파트 내부구조가 크게 바뀌었고 지하 주차장, 자동제어시스템, 커뮤니티 센터 등 차별화된 시설과 주거문화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또 아파트의 면적 및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다. 지난 1996년 86%였던 전국의 주택보급률이 2010년 111.1%로 늘어나면서 공급자 위주의 획일적 인 형태의 면적과 구조가 수요자들의

요구에 따라 바뀌고 있다. 기존 59㎡, 84㎡, 114㎡ 중심의 평형은 74㎡, 87㎡, 108㎡ 등으로 다양화됐다. 상대적으로 작은 평형이라도 확장을 통해 상위 평형과 유사한 구조를 적용시킬 수 있어 체감 분양가를 낮추는 효과 때문이다. 이밖에도 아파트 선택시 중요한 기준으로 대형건설사들이 지은 이른바 브랜드 아파트를 꼽고 있다. 수도권 내 브랜드 아파트와 일반 아파트의 평균 가격 차이는 올해 초 3.3㎡당 100만~2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으로 확대됐다. 경영연구소는 “소비자들이 가격 위주로 아파트를 선택하던 것에서 벗어나 주택 품질과 주거환경 등을 고려하고 있어 앞으로 건설사들도 소비자들의 욕구를 제대로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빛으로 채우는 공간 'LED 엑스포', 2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제 발광다이오드(LED) &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엑스포 2014에서 바이어가 LED 전등 앞에서 상담하고 있다. /황보나

‘분양률 94%’ 동탄산단 1단계 완성

1단계 구역 179㎡ 준공 업체 124곳 입주 마쳐
8천명 일자리창출 기대... 2단계 연말 마무리

동탄일반산업단지의 90%를 차지하는 1단계 구역이 준공됐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동탄사업 본부는 동탄면 일원 197만㎡에 조성 중인 동탄일반산업단지(이하 동탄산단)중 1단계(179만㎡)가 24일 경기도로부터 준공인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동탄일반산업단지는 동탄2택지개발사업 지구내 625개 기업 이전 대책의 일환으로 2009년 사업승인을 받아 이듬해 착공했다. 동탄산단은 산업시설용지 42%, 물류유통시설용지 6%, 그 외 지원시

설 용지, 공원 녹지 등으로 구성되며 지식기반서비스·인쇄·의료·전자부품·전기장비·자동차·금속·기타 기계장비 제조업 등 8개 업종의 입주가 가능하다. 현재 220개 업체가 분양계약을 마쳐 이 중 124곳은 이미 입주를 마쳤고 96개 업체는 공장건축 공사를 하고 있다. 특히 동탄2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에서 이주를 희망했던 107개 기업 중 77개가 이주를 완료했다. 동탄산단은 인근에 대기업과 다른 산업단지가 있어 협업효과가 뛰어나

며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해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용인~서울고속도로가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 조성원가도 3.3㎡당 271만원선으로 저렴한 산업단지내 공동어린이집이 오는 10월 준공하는 등 근무여건이 좋아 현재 94%의 분양률을 보이고 있다. 황종철 LH 동탄사업본부장은 “동탄일반산업단지 준공으로 8천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근 산단과 연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준공인가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산업활동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나머지 2단계(18만㎡)는 오는 12월 준공 예정이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공급가액 3억 사업자 확대

다음달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35만명 늘어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기준 금액이 대폭 확대된다. 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대상자가 종전 법인 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가액 3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된다. 개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면 연간 100만원 한도 내에서 발급 건당 200원을 부가가치세 납부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세금계산서 보관 의무 및 부가세 신고시 첨부 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반면,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업종임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와함께 변호사, 공인회계사, 병원, 유흥주점, 학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의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종전 30만원 이상에서 다음달부터는 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특히 이들 사업자는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의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발급 금액의 50%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신고 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1천세대 이상 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 층간소음등 54개항 등급표시 의무화

앞으로 1천세대가 넘는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주택 성능 정보를 공개한다. 국토교통부는 1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가 공동주택 성능등급을 입주자 모집 공고(분양) 때 의무적으로 밝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분양 때 표시해야 하는 공동주택 성능등급은 모두 54개 항목으로 경량

충격음, 중량 충격음, 화장실 소음 등 소음 분야, 리모델링에 대비한 가변성 및 수리의 용이성 등 구조 분야, 조경·일조 확보율, 실내 공기질 등 환경 분야, 방범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커뮤니티시설 등 생활환경 분야, 화재 감지·경보설비 등 화재·소방 분야 등이 해당된다. 공동주택은 착공 전 설계도를 바탕으로 이런 내용을 평가해 1~4등급 중 하나의 등급이 매겨지는데 이를 공개토록 한 것이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공동주택 성능등급 표시 제도는 2006년부터 운영되다가 지난해 ‘녹색건축 인증제도’에 통합되면서 사라졌지만 이번에 다시 부활하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녹색건축 인증제도에서는 착공 전 예비인증과 준공 후 본인증 등 두 차례 인증 절차를 거치지만 이를 공개해야 할 의무는 없었다”며 “소비자들이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건보주택만 보고 결정해야 하는 만큼 다양한 주택 정보를 알 수 있도록 공개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달 말쯤 공포·시행될 예정으로 이번 조치는 시행일 이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1천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된다. /이성철기자 lee@kyeongin.com

5년 주기 금리조정 적격대출 주택금융공, 오늘부터 출시

주택금융공사(HF)는 5년 주기로 금리가 변동되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을 25일부터 선보인다. 우리은행과 SC은행에서 만나볼 수 있는 금리조정형 적격대출은 최초 5

년간은 현행 적격대출 기본형보다 금리가 0.5%p 낮으며, 이후 5년마다 0.1%p 낮게 적용된다. 또 6억원 이하의 주택에 한해 최대 4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공사와 은행이 동시에 수수료를 낮춰 금리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고객들은

3% 중후반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하고 싶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때문에 망설이고 있는 수요자에게 상품 선택 기회를 넓혀주고, 금융기관의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비중을 확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광주 분양가 1천만원대 부활?

역세권 개발 시장 기지개
“복선전철 개발 분당권역”
“600만~700만원대도 허다”
“3.3㎡당 1천만원대나 그 미만이나.”
광주 역세권 개발과 맞물려 광주 지역 분양시장이 기지개를 켜고 있

는 가운데 분양가 책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년간 이렇다할 대단위 분양이 없었던 광주에서 다음달 대림산업을 시작으로 내년까지 4~5곳의 아파트가 분양 준비에 나서자 분양 가격대가 어떻게 형성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 2008년 탄벌동에 소재한 경남아너스빌이 3.3㎡당 1천100만원대로 사실상 정점을 찍은

후, 6년여만에 인근에서 대단지가 들어섬에따라 해당 건설사의 분양가 책정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건설경기가 좋지 않고, 부동산침체기인 상황에서 대림산업이 분양하는 2천100여세대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 분양가는 향후 분양시장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분양 업계에서는 3.3㎡당 1천만원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공인중개사 김모씨는 “중소건설사의 경우 600만~700만원대도 허다

한데 다소 높은 것 아니냐”고 주장했으며, 다른 관계자는 “광주에 복선전철이 들어서면 판교나 분당권역과 별차이가 나지 않는 만큼 1천만원대도 무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광주시 관계자는 “분양가는 임의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통해 업체가 제시한 가격대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며 “접수는 됐지만 아직 결정난 것은 없고 향후 분양시장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광주/이윤희기자 flyhigh@kyeongin.com

Auckland Edinburgh College

신앙 안에서 최상의 영어교육을 통해 세계인으로 성장하는

CBS 뉴질랜드 영어연수

일반영어·아이엘츠·테솔과정

▶일반영어
수준별 전문 10단계
▶아이엘츠
대학 진학 및 영주권 준비 과정
▶테솔(영어교사 자격증 5주 과정)

중고생 집중 영어연수

▶현지 중고등학교 입학
준비반
▶대학 파운데이션 입학 준비
▶수준별 영어 집중 영어
연수반

여름 방학 단기 영어연수

▶대상
초, 중, 고, 대학생 및 성인
▶일정
4주, 6주 (2014년 7월 21일 출국)
“집중영어연수 + 오uckland 주요 명소 관광”

선교장학생 모집

▶대상
대학 재학생 이상 (졸업생 해당)
-목회자 자녀 및 세례교인 이상
-선교에 소명을 품은 자
▶연수과정
영어연수+선교사역
▶장학유형
6개월 학비 전액 / 반액 장학 과정
▶모집인원
00명 선발
▶특전
장학관제공 *거주비 및 항공료 본인 부담

CBS 교육문화센터 뉴질랜드 영어연수팀

02-2650-7537, 02-2642-1110

www.nzdec.com

부두에 발목인 ‘인천항 중장기 발전전략’

해수부 ‘부산항·광양항 특화’ 연구용역 발주

향후 기본항만계획 반영... 인천 악영향 우려

정부가 국내 주요 항만에 대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인천항은 도외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항의 경우,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의 개장을 앞두고 있는데다 최근 인천신항 증심까지 확정된 터라 그 어느 때보다도 중장기발전계획이 필요한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부산항과 광양항에 대해서만 관련 용역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최근 ‘광양항 특화 발전전략 수립’을 제목으로 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해수부는 “광양항을 동북아 물류 중심 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해 선제적인 항만시설 확충 등 다각적인 활성화 정책을 시행했으나, 배후 산업기반과 연관산업이 취약하고, 정기항로 부족 등의 이유로 시설대비 물동량이 적은 실정이다”며 “광양항의 경쟁력과 가능성을 바탕으로 국제 경쟁

력을 갖춘 복합물류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미래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연구용역 목적을 설명했다.

해수부는 앞서 지난해부터 ‘부산항 종합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중이다. 부산항에 대해서는 “북극항로 개설 가능성, 동북아 컨테이너 허브항만으로서의 비중 감소 등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부산항의 지속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해 종합계획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연구용역 모두 각 항만의 2030년까지의 발전전략을 담을 예정이다. 이러한 종합발전계획에 대한 연구용역은 전국항만기본계획 등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두 용역의 결과가 인천항에도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고 인천항만업계는 설명했다.

인천항에 대해서는 지난 2006년 ‘인천신항 실시설계용역’의 일부로 인천항 종합발전계획이 마련됐으나, 인천항에 대한 전반적인 향후 계획을 담았을 뿐 구체적인 물동량 창출 방안 등에 대해서는 부족했다는 평가다.

인천항만업계 관계자는 “지금 인천항은 인천신항과 국제여객터미널

이 개장을 앞두고 있고, 이후 배후부지도 개발할 예정이다”며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 차원에서 중장기적인 물동량 창출 등 발전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인천항 발전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특히 광양항의 경우, 개발 당시의 예상과 달리 물동량 실적이 저조해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라며 “인천의 경우, 최근 인천신항 증심이 확정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계기가 있다면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을 시행할 순 있지만,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중견·중소기업 불합리 규제 개혁”

인천중기청 ‘...개선위’ 개최

인천중소기업청이 중견·중소기업을 위한 규제·어려움 발굴, 개선을 위해 25일 ‘제3회 인천지역 규제개선위원회’를 연다.

인천중기청은 산업 현장 곳곳에 적용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규제개선위원회를 구성해 두달에 한번씩 회의를 열고 있다.

3회 규제개선위원회에서는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 사업 성공 제품 가격 보호 ▲수위탁거래 납품 대금 지연 이자율의 합리적 조정 ▲의약품도매업의 참고 면적 완화와 관리약사 의무 고용 폐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 한도 확대 ▲외국인 근로자

의 임의 사업자 변경 제한 ▲외국인 근로자의 재입국 취업 제한의 특례조항 완화 등 총 6개 과제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규제개선위원회는 과제를 살펴 자체 해결 가능한 것은 하루빨리 개선에 나서고,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청 읍부즈멘지원을 통해 개선을 건의한다.

최광문 인천중기청 청장은 “규제개혁없는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는 아닐 수 없다. 기업에 부담이 되는 규제는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고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규제개선위원회에는 지역기업체 대표와 전문가, 중소기업지원 유관기관장 등 23명이 속해 있다.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광복행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오른쪽)가 24일 경기도 성남 한국도로공사 본사를 방문, 김학송 공사 사장을 만나 인천 현안사업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인천 희망인천준비단 제공

유 당선자, LH·도공 찾아 협조 요청

루원시티·고속도로지하화

현안사업 조속 해결 주문

긍정적인 답변 이끌어내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가 루원시티 개발사업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등 인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유정복 당선자는 24일 이재영 LH 사장을 만나 루원시티 개발사업 등 현재 인천에서 추진되는 LH 사업의 조속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당선자는 “부동산경기 침체, LH의 부채문제, 사업비 증가 등의 이유로 LH가 인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이 때

문에 인천 전체의 도시개발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영 사장)이 직접 이들 현안에 큰 관심과 의지를 갖고 조속히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LH는 현재 인천에서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을 비롯, 각종 주거환경 개선사업, 제3연륙교 건설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재영 LH 사장은 이에 대해 문제 의식을 갖고 적극적인 해법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유 당선자는 이에 앞서 김학송 한국도로공사 사장과도 만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뿐만 아니라 인천의 도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이

라고 강조했다.

유 당선자는 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공항고속도로 노조이동기점 구조 개량 ▲영동고속도로 서창~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정수 고속도로 신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장수~계양 구간 하루 연결도로 개설 등 사업에 대한 한국도로공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청했다.

김학송 도로공사 사장은 이에 대해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인천시민의 열망이 담긴 사업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유 당선자는 “앞으로가 더욱 중요하다”며 “현안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AG 무대로 ‘어린이로봇캠프’

인천정보산업진흥원이 오는 30일까지 ‘2014년 글로벌 로봇 캠프’ 참가신청을 받는다.

이번 로봇캠프는 산업통상자원부, 인천시의 지원을 받아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와 연계해 열리는 것으로, 국내 초등학생뿐 아니라 전세계 10여개국 300여명의 어린이가 참여한다.

로봇캠프기간은 8월4~8일 4박5일간이며 송도국제도시내 글로벌대학 캠퍼스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전국 초등학생 4~6학

년이며 총 100명을 선발한다. 참가비는 전액 무료다.

로봇캠프에 참가하면, 다양한 로봇교육과 글로벌 문화 교류를 통해 창의력, 논리력, 협동심 등을 키울 수 있다. 또 로봇 축구, 로봇 달리기, 로봇 격투 등 로봇과 스포츠가 접목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인천정보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inis.or.kr) 또는 글로벌 로봇 캠프 홈페이지(www.grc.or.kr)를 참조하면 된다. 문의: (032)250-2062

/박석진기자 psj06@kyeongin.com

중소 FTA 활용·경쟁력 강화

인천세관 원산지 검증 설명회

인천본부세관은 25일부터 매일 인천과 경기지역 수출입 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FTA원산지 검증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표 참조

설명회는 중소기업 등이 FTA가 협정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등 FTA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FTA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원산지 검증원칙, 검증절차, 관련법규, 협정별 보관자료, 원산지 검증사

FTA원산지 검증 설명회 일정

날짜	장소
6월 25일	수원세관
7월 23일	김포상공회의소
9월 24일	인천세관
10월 29일	인천상공회의소
11월 26일	시흥상공회의소
12월 24일	부천상공회의소

레 등에 설명과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설명회를 통해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FTA를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 대한 부담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가장 특별한 분들이 찾는 곳

밸류호텔 하이엔드 연회



회갑연·고희연·산수연·돌잔치



특전

- ★ 50명 이상 연회 예약시 사은품 제공
- ★ 10명 이상 예약시 단독 룸 제공
- ★ 돌잔치 예약 시 백일상 무료제공
- ★ 생신 조화 상차림 무료제공
- ★ 조화 테이블 장식 무료제공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99 (주)경인일보 신사옥 6층

문의 031-230-6000

‘유 당선자 친형 기업’ 대양건설, 부천 이전

34년 지역활동 연매출 821억

“불필요 오해 불씨 원천봉쇄

인천시 발주 관급공사 불참”

인천에서 30여년간 활동하던 ‘대양 종합건설’이 7월 중 본사를 경기도 부천으로 옮긴다. 이 회사는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의 친형인 유수복씨가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유수복 대표이사는 24일 “곧 인천 시장에 취임하는 동생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본사 이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 대표이사는 “지방선거 다음 날부터 경기도 지역에 사무실을 알아보기 시작했고, 최근 부천에 있는 새 사무실의 잔금을 모두 치렀다”며 “평생

그렇게(동생에게 부담되지 않기 위해) 살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인 논쟁을 없애기 위해 인천에서 발주되는 관급공사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는 (동생)이 군수, 구청장을 맡게 됐을 때나 김포지역 국회의원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했다.

대양종합건설은 34년 된 인천지역 토종기업으로 지역 건설업체 토건시행능력 평가에서 5위이고, 연간 매출액은 821억원 규모다.

유 대표이사는 지난해 3월부터 맡던 인천시체육회 이사직을 최근 사임했다.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홍보위원장직도 사퇴 의사를 전달했다.

유 대표이사는 “굶주린 배를 움켜쥐었던 저를 이만큼 성장하게 해준

인천을 떠난다는 게 못내 아쉽다”면서도 “불필요한 오해와 소모적 논쟁의 불씨를 없애기 위한 부득이한 결단을 이해해 달라”고 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광고심의필 : 1039-0100

240 정

효과 빠른 위장약

신 일 겔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

효과 빠른 위장약! 신일겔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자극적 음식 섭취로 하루도 편안함 없이 있는 당신의 위장!!



www.sinilpharm.com Tel 02,221,6700

기름에 익히면 흡수 잘 돼 ‘항암효과 배가’

제철 먹거리 이용한 건강밥상
▷<비타민 보고 ‘토마토’>



토마토김치

세살 버터 여든 가듯, 토마토를 먹는 습관을 들이면 아이의 평생 건강을 지키는 것이나 다름없다.

토마토는 항암 효과로 유명하며, 이는 붉은 색을 내는 라이코펜 때문으로 베타카로틴보다 2배나 항암 효과가 높다. 게다가 노화방지, 심혈관계 질환 예방, 항산화효과 등이 알려져 있다.

또 항암 효과가 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 몸속에서 비타민A로 전환돼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의 잦은 사용으로 지친 아이들 눈 건강에 좋다.

토마토의 비타민C도 여름 더위로 인한 아이들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킨다. 토마토에 풍부한 포도당·과당·시트르산·사과산 등이 신진대사를 활발히 해 피로 회복에도 좋다.

토마토는 성인에게 더욱 좋아 라이코펜은 중년 남성들의 전립선암 예방 효과가 우수하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가 있다면 매일 아침 공복에 토마토를 한두 개씩 먹으면 좋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을 가장 잘 흡수하는 방법은 기름과 함께 열에 조리하는 것이다.

라이코펜이 지용성 색소이기 때문에 고기나 생선 등 기름기가 있는 음식을 할 때 토마토를 곁들여 먹으면 좋다.

게다가 토마토는 알칼리성이라 산성식품인 육류를 중화해 소화에도 도움이 된다. 또 육류의 비린내를 없애는 작용도 한다. 유지방이 든 우유, 불포화지방산이 풍부한 아보카도와 함께

붉은색 내는 라이코펜 함유
심혈관계 질환 예방 효과
스트레스·피로에도 좋아



토마토닭고기카레



토마토두부김치전

토마토를 먹으면 역시 건강상 이점을 얻을 수 있다. 또 토마토는 칼륨 함량이 높아 설당보다는 소금을 곁들여 먹으면 토마토의 단맛이 살아나고 칼륨이 나트륨 성분 흡수를 억제해 영양 흡수를 돕는다. 따라서 짠 맛이 강한 한국식 식사 전에 토마토 주스를 먹어 과다한 염분 섭취를 억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좋은 토마토는 익으면 꼭지부분에 노란색으로 별모양이 생기고, 이 별모

양이 방사형으로 뚜렷하고 클수록 당도가 높다. 또 일반토마토보다는 방울 토마토가 철분·칼슘·아연·식이섬유·비타민A의 함량이 높아 요리를 제외하고는 방울토마토를 먹는 것이 낫다.

토마토를 이용해 요리를 한다면 토마토닭고기카레를 권한다. 토마토의 새콤달콤한 맛이 카레와 잘 어울리고 라이코펜 흡수를 최적화하며, 닭고기의 산성을 중화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이다. 토마토는 끓는 물에 살짝 데쳐 껍질을 벗기고 6등분 한 다음 씨를 제거해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닭고기는 한입 크기로 썰어 소금과 후춧가루로 밑간해 놓는다. 물에 카레가루를 되작하게 풀어놓아 준비한다.

냄비에 올리브유를 두르고 마늘과 양파(사방 3cm크기)를 볶아 향을 낸 다음 닭고기를 넣고 센불에서 재빨리 볶다가 익으면 물과 월계수잎을 넣고 끓인다. 국물이 한소끔 끓으면 풀어놓은 카레를 넣고 끓인 뒤 재료가 거의 익었을 때 토마토와 우유를 넣고 2~3분 정도만 더 끓여내면 된다.

또 끓게 다진 토마토와 김치를 올리브유에 볶아 부친 김치와 먹는 토마토 두부김치전도 맛과 영양을 모두 잡는 요리법이다.

글/심기현교수 (숙명여대 전통문화 예술대학원) 사진/농협 시사당 농사랑운동추진위원회 제공

수박·참외, 신장질환자에 毒

식약처 “고칼륨 혈증 유발”… 통조림과일 섭취 조건

여름철 대표 과일인 수박과 참외가 신장질환자에게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신장질환자는 신장의 칼륨 배설 능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수박과 참외 등 칼륨이 많이 든 과일이나 과일주스를 주의해야 한다.

정상인은 칼륨을 과잉 섭취하더라도 신장을 통해 효과적으로 배설되기 때문에 혈중 칼륨 농도가 짙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신장질환자는 이미 일반인보다 수분과 전해질(칼륨, 나트륨 등)을 배출하는 능력이 떨어져 있어, 이런 상황에서 칼륨을 다량 함유한 계절 과일을 섭취하면 혈장 속의 칼륨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는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다.

칼륨을 배설하지 못해 고칼륨 혈증에 걸리면 근육의 힘이 약해져 손발이 저리고 다리가 무거워질 뿐 아니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할 수도 있다.

특히 만성신장질환으로 혈액 투석을 받는 경우 칼륨이 많이 포함된

과일만 섭취해도 심장장애뿐만 아니라 감각이상, 반사저하, 호흡부전 증세를 호소할 수 있다.

식약처는 만성신장질환자가 칼륨 섭취를 줄이려면 생과일보다는 통조림 과일을 먹는 것이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칼륨이 든 과일을 통조림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물에 담가 농으면 칼륨이 물로 빠져나가면서 칼륨 함량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식약처는 또 고혈압치료제와 항우울제, 알레르기 약은 자몽 주스와 함께 먹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몽 주스가 이들 약물의 흡수율과 약의 혈중 농도가 갑자기 증가하거나 약물 간 대사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일반적으로 알루미늄은 몸속으로 흡수되지 않지만, 알루미늄이 든 제산제와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으면 알루미늄 성분이 몸속으로 흡수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산제를 복용할 때는 오렌지 주스를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고 식약처는 권고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백화점·대형마트 ‘선식·생식’ 세균오염

3개중 1개 대장균·식중독균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생식·선식 3개 중 1개는 위생 상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명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선식 8개 제품 중 4개가 식중독균 또는 대장균에 오염된 것으로 조사돼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한국소비자원은 “대형마트·백화점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생식 15개, 선식 15개 제품을 대상으로 미생물 시험을 한 결과, 9개 제품에서 기준치의 1.2~20배를 초과하는 식중독균이, 3개

제품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며 “선식의 경우 90~100℃ 고온 건조 과정을 거쳐 생산되기에 위생적으로 안전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오염 정도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고 덧붙였다.

생식류 제품별로는 마임 ‘자연생식’, 서원조합 ‘내몸에 좋은 발아 생식’, 오형생식 ‘맛있는 자연곡물 생식’, 찬솔 ‘아침을 여는 편해식생식’에서 기준치 이상의 식중독균이 검출됐고, 심포네이저 ‘스프라우트 생식’에서는 대장균이 나왔다. 선식류는 롯데마트 수지점,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등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제품과 일주 ‘블랙생선식’, 청오 ‘유기농 선식 든든

한 아침만찬’ 등에서 식중독균이 발견됐고, AK백화점 분당점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선식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다. 특히, 롯데백화점 분당점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선식은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모두 발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백화점과 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제품의 ‘표시제도 강화’ 조치를 요청했다. 현재 백화점·대형마트에서 즉석 제조 판매하는 선식 등은 개별 제품의 원재료 성분, 유통기한과 같은 필수 표시사항 표기를 생략할 수 있다.

/박성진기자 psi06@kyeongin.com

락앤락, 반영구 제습제 ‘습기락’ 출시

락앤락은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반복 사용이 가능한 제습제 ‘습기락’을 출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습기락은 반영구적인 특성을 가진 실리카겔 소재를 사용해 햇빛이나 전자기파, 드라이기로 말려서 재사용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폐기할 경우 환경 오염 걱정도 없으며, 체내 흡수가 되더라도 4~8시간후 배출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다.

‘옷걸이용’과 ‘다목적용’으로 구성된 습기락은 친환경 플라스틱 폴리프로필렌(PP) 소재의 케이스에 실리카겔 제습제를 넣어서 사용하면 된다.

습기를 머금으면 제습제가 파란색에서 핑크색으로 변하는데, 케이스 내부에 제습제 상태를 볼 수 있는 인디케



이터가 있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변색된 제습제는 햇빛이나 드라이기로 말려서 사용하면 되고, 전자기파에 케이스를 통째로 넣어 3분동안 가열해도 바로 재사용할 수 있다. 락앤락 관계자는 “암모니아나 포름알데히드 등 유해 성분 흡착력도 뛰어난 새집 증후군 억제에도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밥 중심 식문화’ 중요성 알린다

농정원, 25~27일 코엑스 우수급식산업대전 참가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하 농정원)이 25일부터 3일동안 서울 코엑스C홀에서 열리는 ‘우수급식산업대전’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수급식산업대전은 국내 영양사와 급식 관계자를 대상으로 단체 급식에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쌀 요리를 선보이고 밥 중심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대한급식신문사와 메세이앤드에서 주최하고 있다.

행사 마지막날에는 ‘평범한 쌀, 인기 많은 급식 메뉴로 변신’이라는 주제로 쌀 요리 전문가가 영양사들을 위해 다양한 이색 쌀 요리를 선보인다.

농정원도 별도 부스를 만들어 청소년들의 입맛에 맞춘 퓨전 쌀 요리인 밥버거를 나눠주고 쌀 소비 촉진 공모전을 연다.

다음달 30일까지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아이디어 ▲밥 중심 소

비식생활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슬로건과 UCC부문 ▲밥 중심 식생활을 위한 우수 교육 사례 등 4개 분야에서 응모가 가능하다. 선발된 우수 홍보 아이디어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 공공광고 및 포스터 제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예정이다.

농정원 관계자는 “육류 위주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비만과 영양 불균형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한끼 식사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매일 먹는 급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쌀 중심의 식생활의 중요성을 깨우치고, 학생들의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순정기자 sj@kyeongin.com

경인일보 구독신청
031-2315-503

알레르기 비염 & 축농증

심의를뢰번호 :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205-증-4670호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수술 없이 다스린다”

은근히 무서운 고질병 -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

계절이 바뀌면 콧물이 줄줄 흐르고 거기에 코 막힘 증세까지 보인다. 처음에는 감기로 짐작되는 증상들... 그러나 그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 가운데 상당수는 알레르기 비염을 앓고 있다. 처음에는 감기인지 알레르기 비염인지 구분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어영부영하다 보면 어느새 고질병으로 자리잡게 된다. 그래서 감기가 나았는 데도 재채기, 콧물, 코 막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알레르기 비염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축농증의 진행도 한 눈에 드러나지는 않는다. 역시 감기가 나았는 데도 콧물, 코 막힘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축농증의 가능성을 의심해봐야 한다. 어른도 자기가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을 앓고 있는지 알기 어렵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더욱 그렇다. 이런 부분들은 어머니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보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면 서둘러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이 심해지면 두통, 집중력, 기억력 저하가 뒤따른다. 축농증은 책상 앞에서 고개를 숙일 때 거북함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책상 앞에 앉는 것을 힘들어 하게 된다.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 병을 키우다가 나중에 문제

보는 것이 좋다.

알레르기성 비염에 효험이 있는 한방치료 한약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의 문제를 치료할 때 환자들은 흔히 증상에만 치중

계절이 바뀌면 발생하는 코막힘, 맑은 콧물, 발작적인 재채기로 사람을 힘들게 하는 알레르기 비염, 부비동에 염증이 생겨 눈이 쌓이는 축농증. 치명적인 질환은 아니지만 은근히 사람을 힘들게 한다. 특히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이런 증상이 있으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어 학습에도 지장이 많다. 수술하지 않고 알레르기 비염, 축농증을 치료할 수 있다는 한방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자.

평강한의원(서초동) 02-566-1656 / www.dr-lee.co.kr
이현웅 원장(한의학 박사,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외래교수)

가 커져서 병원에 갔다가 수술하라는 말을 듣게 되면 가슴부터 찡찡한다. 따라서 평소에도 가족의 건강을 잘 관리해야 한다. 먼저 실내 공기를 깨끗하게 하고 감기가 잘 걸리거나 잘 낫지 않거나 나았는 데도 감기 증상이 계속된다 싶으면 알레르기 비염이나 축농증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아

다. 한방에서는 오장 육부가 서로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코의 병이 생겼더라도 이것이 폐나 심장에 있으면 이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근본 치료라 본다. 따라서 콧병 치료의 처음은 몸을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체질을 개선시켜 막힌 기운을 풀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알레르기 비염이 일어나는 환경적 요

인은 먼저 현대인의 생활에서 찾을 수 있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길어지므로 실내 환경이 매우 중요한데 환기에 신경을 써 주지 않으면 집먼지나 진드기, 바퀴벌레 등으로 실내 공기가 오염되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식생활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달걀, 생선, 콩, 굴, 토마토, 딸기, 아몬드 등도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

한방 치료에서 주로 쓰이는 약재는 유근피, 코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낫는다 하여 예로부터 민간에서 코나무로 불리던 약재이다. 이것을 물에 담그면 마치 콧물처럼 끈적끈적한 진이 흘러나온다. 이것이 고질적인 축농증을 낫게 하는 주 성분이다. 느릅나무의 줄기 껍질보다는 뿌리 껍질에 약효가 많고 두꺼운 것일수록 효능이 크다. 유근피는 콧병 뿐 아니라 기침을 멈추게 하고 호흡기를 깨끗하게 해주며 위장병에도 효과가 있고 그 외에 여러 염증에도 효과가 있다. 유근피는 우리 몸에서 병든 부분을 없애주고

새롭게 회복하게 하는 좋은 약재이다.

동의보감에도 콧병에 대한 처방이 나와 있다. 코나무 껍질에 특정 약재를 더하면 콧병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유근피는 코 질환에 효과적이지만 이 한 가지 약재만으로는 여러 가지 코 질환을 단기간에 완치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기에 살구씨, 복련꽃봉오리, 수세미 등을 더해서 만든 평강한의원의 한약을 활용할 경우 코나무 한 가지만으로 치료할 때보다 효력이 높아난다.

코질환 방지하지 말고 꼭 한의사와 상담한 다음에 치료할 것

코에 이상을 느낄 때면 수시로 대추혈을 자극해 주는 것이 좋다. 심할 때에는 지압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헤어 드라이기를 이용해서 대추혈을 따뜻하게 하는 것



도 좋은 방법이다. 또한 1분 가량 따뜻한 바람을 쏘이고 2~3분 동안 쉬는 것을 4~5회 반복하면 된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코 질환을 그냥 방치하거나 환자 스스로 진단, 처방하여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시작은 불편한 정도이지만 증상이 심해지면 집중력이나 기억력이 떨어지고 신경질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다. 특히 어린이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학습에 지장이 있음은 물론 성격 형성에도 문제가 있으니 꼭 한의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평강한의원(서초동)
02-566-1656
www.dr-lee.co.kr

왕실 사찰의 영광이며, 결코 잠들지 말라



회암사지와 부도탑.

양주 회암사지

글=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 사진=조형기 프리랜서

양주 회암사지(楊州 檜巖寺址·사적 제128호)는 양주시 회암동 천보산 산자락에 위치한 절터다. 현재는 절터의 흔적만 남아 있지만 그동안 발굴조사를 통해 복원된 절터 규모와 이 곳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을 살펴보면 당시 회암사의 위상을 알 수 있다.

1964년 사적으로 지정된 양주 회암사지는 1997년 시굴조사를 시작으로 그동안 10차례 넘게 발굴조사와 복원공사가 진행됐으며 현재도 복원공사가 한창이다.

발굴조사 결과, 옛 회암사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궁궐과 유사한 건축 양식을 갖추고 있었음이 확인됐다. 가람(伽藍)의 배치가 평지가 아닌 산간에 위치하면서도 8단의 단축을 이루면서 남쪽에 회랑(回廊)을 두고 있는 점에서 고려시대의 궁궐이나 사찰 배치 형식을 보이고 있는 것이 주목받고 있다. 회랑은 종교 건축이나 궁전 건축 따위에서 건물의 중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 달린 복도다.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

회암사, 12세기경 궁궐과 유사한 양식으로 창건 추정

폐사후 절터만 남아 1997년부터 유물 발굴·복원 공사

화랑·장식기와 위용 가늠 부도탑 조각 석조미술 걸작

유교와 갈등으로 퇴색된 수선도량 부흥 꿈꿔



그리고 절터에서는 지붕 처마나 추녀마루에 올라가는 토수(吐首), 용두(龍頭), 잡상(雜象)과 같은 장식기와들이 다량으로 출토됐다. 이들은 방화(放火), 호법(護法) 등의 의미로 궁궐의 중심 건물에만 올려졌던 조형물이다. 또한 사천왕상을 장식했던 소조장식편과 보살상을 장식하기 위해 별도로 제작된 영락장식 등은 어느 사찰에서도 출토되지 않았던 유물들이다.

여기에 고려시대의 청자와 조선시대 청자와 백자, 분청사기를 비롯한 다양한 종류의 도자기가 출토됐다. 출토된 도자기 중에는 당시 궁궐이나 왕실과 밀접하게 연관된 왕실사찰 등에서만 사용되던 왕실용 명문백자를 비롯해 사찰에서 기거하던 승려나 불교도들이 사용하던 조질백자까지 여러 종류의 도자가 망라돼 있다.

지난 2012년 발행된 ‘회암사지박물관 개관도록’에 따르면 회암사가 언제 창건됐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다만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 권2에 고려 명종 4년(1174)에 금나라의 사신이 이곳을 다녀갔다는 기록이 있으며 고려 충선왕 5년(1313)에 태고 보우(太古 普雨·1301~1382)선사가 이곳에서 광지(廣智)선사에게 출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기록을 볼때 회암사는 늦어도 12세기 무렵에 창건됐으며 사신이 다녀갈 정도로 상당한 규모를 갖추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회암사가 현재의 절터처럼 거대한 규모로 중창될 수 있었던 이유는 고려말, 조선초 왕실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많은 불사(佛事)가 이뤄졌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던 고승들이 머물던 최고의 사찰이었기 때문이다. 고려말인 공민왕 21년(1372)에는 나옹(懶翁·1320~1376)선사가 공민왕의 명으로 이 절에 와서 원나라를 통해 들어 온 승려 지공(指空·1300~1361) 선사의 사리탑을 건립했고 1374년부터 2년동안 266칸의 대규모 불사를 벌였다. 이후 우왕 2년(1376) 나옹선사의 제자인 각전에 의해 지금과 같은 규모의 대찰로 완공됐다.



용두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신들의 거센 반발속에서도 회암사는 왕실의 원찰로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다. 태조 이성계는 1393년 무학(無學·1327~1405)대사를 회암사에 머물게 하고 불사와 법회에 참석하기 위해 7번이나 이 곳을 다녀갔다. 태조는 또 왕위에서 물러나서도 태종 2년(1402) 무학대사에게 계를 받고 회암사에서 수도생활을 했을뿐만 아니라 태종 5년에 무학대사가 입적하자 그의 탑비를 세우기도 했다.

그리고 회암사는 효령대군, 정희왕후, 문정왕후를 비롯한 많은 왕실들이 불사를 후원했다. 조선 초기의 문신·학자인 김수온(1409~1481)이 쓴 ‘회암사증창기’에 따르면 성종 3년(1472)에 세조의 비인 정희왕후가 회암사를 대대적으로 중건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또

명종때 수렴정경을 했던 문정왕후(1501~1565)는 승려 보우(普雨)를 통해 불교중흥 정책을 펼치면서 회암사를 전국 제일의 수선도량으로 크게 일으켰다.

하지만 국가적 차원의 비호와 후원을 받던 최대 사찰 회암사는 문정왕후 사후 사세가 급격하게 기울어진다. ‘명종실록’에 “유생들이 회암사를 불태우려 한다(명종 21년)”란 기록이나 ‘선조실록’에 “회암사 옛터에 불탄 종이 있다(선조 28년)”란 기록을 볼때 1566~1595년 무렵 유생들의 방화로 소실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비록 옛 회암사는 폐사돼 현재 그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지만 양주 회암사지에는 중요 문화재들이 그대로 남아 옛 회암사의 부흥을 말해주고 있다.

양주 회암사지 가장 안쪽 깊숙한 곳에 세워져 있는 약 6m 높이의 회암사지부도탑(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2호)은 회암사의 옛 모습을 그려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다. 웅대한 크기와 부도탑 각 면에 새겨진 뛰어난 조각은 조선전기 석조미술을 대표하는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양주 회암사지 경

내에는 이 부도탑 이외에 별도의 불탑이 없어 이것이 승려의 부도인지, 아니면 불탑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예배대상물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양주 회암사지 경내에는 회암사지 당간지주(향토유적 제13호), 맏돌(경기도민속자료 제1호), 석조, 집수정 등의 건물 흔적들이 남아있다.

그리고 절터에서 500여m 올라가면 현재의 회암사가 자리잡고 있다. 19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알려진 현 회암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인 봉선사의 말사다. 이곳에는 조선시대에 세워진 지공선사 부도 및 석등(경기도유형문화재 제49호), 지공선사 부도비(경기도 문화재자료 제135호), 나옹선사부도 및 석등(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0호), 무학대사 홍융탑(보물 제388호), 무학대사비(경기도 유형문화재 제51호), 무학대사 홍융 앞 쌍사자석등(보물 제389호) 등이 위치해 있다.

특히 회암사 삼삼각 옆쪽으로 난 돌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회암사지전각왕사비(보물 제387호)가 우뚝 서 있다. 고려말 승려인 나옹을 추모하기 위해 고려 우왕 3년(1377)에 건립했으나 997년 성묘객의 부주의로 인한 화재로 파손됐다. 비는 지난 2001년부터 경기도 박물관에 위탁·보관돼 있고 현재의 자리에는 받침돌이 그대로 남아 있다. 그 앞쪽에 1999년 원형모습 그대로의 모조비가 세워져 있다.

양주 회암사지 앞쪽에는 지난 2012년 양주시가 개관한 ‘회암사지박물관’이 자리잡고 있다. 이 곳에는 양주 회암사지에서 출토된 각종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양주 회암사지에 올라가기 전 박물관에 들러 공부를 하면 회암사를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박물관은 이 곳에서 출토된 기와들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출토된 각종 기와들을 전시하는 ‘마루장식기와—건물의 위용과 품격을 담다’란 전시를 24일부터 10월 12일까지 연다.



토수

지원



경기문화재단 Gyeonggi Cultural Foundation

지역난방공, 방만경영 개선 ‘공기업 1군 최초’ 과제완료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김성화·사진)는 공기업 1군 최초로 정부가 추진하는 방만경영 개선과제 20개를 모두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난방공사는 지난 23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경영성과급 평균임금 제외 과제를 포함한 20개 과제를 일괄 개선하기로 했다. 이같은 성과는 노사합동TF 구성과 경영진 워크숍, 전 지사 순회 설명회 등을 통해 사장과 경영진이 직원들과 소통하면서 방만경영으로 지목된 과제를 개선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한 것에 따른 것이다.

김 사장은 “정부의 공기업 정상화 대책에 따른 구체적 실천 방안 마련과 노사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게 됐다”며 “초일류 친환경 에너지 공기업이라는 중장기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학업·건강·육아 ‘맞춤근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총출동

경기남부 채용박람회 내일 아주대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지청장·김영수)은 경기남부권 4개 지청(성남·안양·안산·평택)과 공동으로 26일 오후 1시 30분 아주대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남부권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를 개최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근로자가 학업, 건강, 육아 등 여건에 맞게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시간, 업무·종료시간 등 근로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 복리후생 등에서 전일제(풀타임) 근로자와 차별이 없는 일자리다.

이번 행사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병원, 콜센터, 대형마트, 강소기업(제조업체) 등 70개 기업이 참여, 5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이 중 50개 기업은 1대1 현장면접을 실시하고, 20개 기업은 채용대행관을 통해 이력서 접수 등 간접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 지청장은 “이번 박람회에서는 다양한 직종의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남부권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박람회 홈페이지(http://timework.zeniel.co.kr)’ 또는 전화(031-231-7903, 7911)로 문의하면 된다.

/윤수경기자 yoon@kyeongin.com



수원지법 안양지원·화성 상동1리 결연

수원지법 안양지원(지원장·박승화)은 최근 화성시 향남읍 상동1리와 상호 교류 촉진·협력을 위한 ‘1사1촌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안양지원 임직원들을 비롯해 상동1리 마을 주민, 정용배 화성시 부시장, 이흥근 의원, 농협 관계자 등 80여명이 참석했다.

협약에 따라 안양지원은 마을의 각종 행사나 재난 발생시 협력하고 농·특산물 구매, 농촌일손돕기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박 지원장은 “앞으로 상동1리 마을을 자주 찾아 농번기 일손돕기를 비롯해 지역 농산물 판로를 넓히는 일에 앞장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이석철·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자리 옮겼습니다

경향신문 <보직변경> ◇편집국 △여론독자부 차장 정유미 △경제부 차장 김희연 △사회부 차장 김종숙 △교열부 차장 김윤숙

삼가 명복을 빕니다

▲황충철(한국토지주택공사 동반사업본부장)씨 장인상, 임양순(수원시청)씨 부친상=23일 오후 9시 30분. 빈소: 수원 연화장. 발인: 26일 오전 8시 30분. (031)379-6801

▲소연수(인천도시공사 문화사업팀)씨 장인상=23일 오후 11시.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26일 오전 7시. (02)3410-3151

▲김열수(경기도문화의전당 국악전통사업팀)씨 배우자상=24일 오후. 빈소: 분당 제생병원 장례식장 특1호. 발인: 26일 오전 7시. (031)708-4444

‘해외대학 교류’ 글로벌 감각 키운다



가천대학교는 해외교류대학에 파견할 어학연수단 2~4학년 재학생 800여명을 선발했다.

가천대학교(총장·이길여)는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해 학생 800명으로 어학연수단을 꾸려 해외교류대학에 파견한다고 24일 밝혔다.

어학연수단은 2~4학년 재학생으로 구성돼 미국과 캐나다, 몰타, 중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6개국 9개 대학에 파견되며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현지에서 어학 연수와 문화체험을 하게 된다.

교육프로그램 비용은 대학에서 장학금으로 지원되며 프로그램에 따라 학생들은 항공료와 보험료 등을 부담

가천대, 美·中 등 6개국 9개대 800명

어학연수·문화체험비용 장학금 지원

하면 된다. 가천대는 어학연수단을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선발했다. 파견대학은 미국 Northwest University와 University of central Oklahoma(323명), 캐나다 Thompson Rivers University와 Vancouver

island University(155명), 몰타 Malta University(20명), 말레이시아 Asia Pacific University(59명), 필리핀 University of The Philippines(93명), 중국 수도사범대학, 곡부사범대학(60명) 등이다.

이 총장은 “이번 해외어학연수가 글로벌 감각을 향상시키고 자신감을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 큰 결실을 맺는 가천인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법원·언론 상호 이해의 장

법원행정처, 공보관·기자 심포지엄

법원행정처(처장·박병대)는 최근 강원도 원주 한솔오크밸리에서 법원행정처, 각급 법원공보관과 법조출입기자 등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틀간 ‘2014 언론과 사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의 유재민 판사는 ‘언론 소송의 전통적 특징과 최근 언론소송의 쟁점’을 주제로, 중앙일보 박민재 기자는 ‘언론과 사법의 관계 향상에 대한 단상’에 대해 각각 발표하고 토론했다.

법원행정처 권순일 차장은 “심포지엄을 통해 법원과 언론이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됐다”며 “국민과 소통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기 위해 법조인 모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수원보호지청, 유공자 안전점검·지원

수원보호지청(지청장·이재익)은 24일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가족들에게 안전점검이 서비스를 실시했다.

안전점검이 서비스는 고령의 저소득 국가유공자를 위해 수원소방서, 삼천리가스 등이 화재 안전설비와 노후 가스설비를 교체했으며 수원자원봉사단체는 싱크대 교체 등을 진행했다.

수원소방서는 2013년 9월 30일 수원보호지청과 고령국가유공자에 대한 복지지원과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매월 화재취약지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에게 화재안전시설을 점검해 주고 있으며, 삼천리가스도 이번 행사를 계기로 지속적인 가스 안전점검과 설비 지원 등을 약속했다.

/김대현기자 kimdh@kyeongin.com

학생·주민 함께... ‘명물 벽화’ 그려요

시흥 대야초·대야동 주민위 100명 참여

“우리 학교 우리가 꾸며요.”

시흥 대야초등학교(교장·김정호)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최근 학교 담장에 손수 담벼락 벽화를 그려 넣었다.

이날 벽화 조성은 대야동주민자치위원회의 후원을 통해 대야초 학생들과 어머니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김 교장은 “맛있하던 담벼락이 아이들의 꿈과 같이 충전연색으로 가득 찼다. 학생들이 절로 학교에 나오고 싶어지는 명물 벽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야동 주민자치위원회 황문성 위원장은 “이 벽화가 아이들의 일상에 작은 웃음이라도 더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시흥/김영래기자 yrk@kyeongin.com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

인구보건복지협 도지회, 부부애클래스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도지회(회장·송광석)는 최근 밸류하이엔드호텔(수원시 인계동 소재) 6층 연회장에서 17쌍의 부부와 함께 ‘부부의 대화법’이란 주제로 부부애클래스 강의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인구협회에서 진행하는 맘맘 문화 강좌는 부부 애클래스·부모코칭클래스·임산부클래스·행복플랜

클래스를 대상으로 생애 주기별 상황에 맞는 주제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부부애클래스는 결혼 10년 이내 부부가 대상이고 지난 4월 26일 경기도지회에서 개최한 이후 화성동탄도서관·밸류하이엔드호텔 등 부부애클래스 교육을 원하는 곳이면 어디든 찾아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박종용 경기도지회 본부장은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며 부부가 바로 서야 가정이 바로 선다는 생각에 부



부애클래스를 통해 많은 부부가 바른 대화법과 성의식에 대한 교육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원광대 산본병원·농어촌공, 양평서 의료봉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병원장·손일홍)은 최근 양평군 강성면에 소재한 세월초등학교에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민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원광대 산본병원 교직원으로 구성된 반딧불이 봉사단 20여명과 농어촌공사 직원 50여명이 참여한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주민들의 혈압, 혈당, 골다공증, 심전도, X-ray 촬영을 비롯한 기초검사와 신경과 손일홍 원장, 마취통증의학과 정재윤 교수, 한방 침구과 이성용 교수의 진료로 주민 120여명의 무료진료가 이뤄졌다.

군포/윤덕용기자 ydhr@kyeongin.com



김포1동 통장단·직원, 무의도서 야외반상회

김포시 김포1동(동장·이강근)은 최근 통장단 및 직원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 무의도에서 야외반상회를 개최했다.

이날 반상회에서 기초연금제도, 7·30 국회의원 보궐선거, 대형 폐가 전 무상방문수거사업 등 시(청)정 업무 홍보와 마을의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무의도와 실미도를 트레킹하며 통장단과 직원들의 화합과 단결을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 동장은 “앞으로도 꾸준히 동과 유기적인 업무 협조를 발전하는 김포1동을 만들기 위해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포/김한기기자 khk@kyeongin.com



조평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 사랑의 감자 수확

오산시 조평동 새마을남·여지도자협의회(회지도자 회장·지은섭, 부녀회 회장·홍정희)는 24일 회원 3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벌음동 소재 감자밭에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한 사랑의 감자 수확 행사를 가졌다.

지난 3월 파종해 이날 수확한 감자는 판매 수익금 전액을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 전달과 연말 불우이웃 감장 담가주기 행사에 사용할 계획이다. 최문식 조평동장은 “바쁜 영농철에도 불구하고 작업에 동참해 준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하고 행복한 조평동을 만들어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조영성기자 donald@kyeongin.com



화성 여성새일센터-폴리텍대 MOU

화성시문화재단 화성여성새로일하기센터(여성새일센터)는 23일 오후 한국폴리텍대학 화성캠퍼스(학장·조한유)에서 교육 복지 및 취업지원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여성새일센터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센터와 대학의 교육 및 취·창업 지원에 관한 업무를 적극 협조하고, 상호 기관의 유익한 발전을 위해 업무협약을 한다고 밝혔다. 재단 여성청소년수련관 김행님 관장은 “경력 단절 여성의 교육 과정 운영과 교육생들의 구인 알선 등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식기자 marskim@kyeongin.com



농협, 안성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

농협안성시지부(지부장·이병택)와 안성농협(조합장·한승수)은 지난 23일 안성농협강당에서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지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지원금은 우리농업지킴이운동본부가 선정한 원온정(베트남), 어용통갈락(몽골)씨 등 두 가정에 대해 NH농협카드사와(제)농협재단이 항공권과 체제비를 제공했다. 한 조합장은 “농촌지역 결혼여성이민자에게 모국방문 기회를 제공해 한국생활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하고 우리 농업·농촌의 소중함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성/이명종기자 lmj@kyeongin.com



파주소방서, 전 대원 전술훈련 평가

파주소방서(서장·김조일)는 24일 대강당에서 전체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공기호흡기 장착, 로프 매듭법, 가구 뭉기 등으로 소방대원이 재난 현장활동에서 필요한 항목으로 구성됐다. 김 서장은 “전술훈련 평가를 통해 대원들의 현장 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대원 자신의 안전은 물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파주/이종태기자 dolsaem@kyeongin.com



동두천우체국 봉사단, 집수리 온정

동두천우체국 집배365봉사단(단장·조광남)은 24일 안홍동 독거노인 이모(76세) 씨 가구를 방문, 사랑의 집수리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집배원들이 자율적립한 기금을 활용해 어려운 이웃에게 도배, 지붕수리 등 온정을 베풀었다.

송호철 우체국장은 “집배원들이 봉사활동이 있는 날이면 휴일에도 힘든 기색을 나타내지 않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봉사했다”며 직원들을 격려했다.

동두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장애인 스포츠 飛上 응원합니다”

공항공사, AG 경기유구 지원성금 전달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항공사)는 24일 2014 인천 장애인아시아인게임 경기유구 지원 성금 5천만원을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전달했다.

공항공사는 관심과 후원이 부족한 장애인아시아인게임의 성공 개최와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성금을 인천모금회에 기탁했다.

성금 전달식에서 최홍열 공항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세계인이 지켜보고 함께 할 장애인아시아인게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우리 공사가 기여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다.

조건호 인천모금회장은 “공항공사 임직원들의 따

뜻한 마음을 모아 장애인아시아인게임이 끝난 후에도 장애인들이 이 경기유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장애인 스포츠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모금회는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인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해 대회 경기유구 지원을 위한 특별모금을 다음달까지 진행중이다. 인천모금회와 장애인체육회는 협약을 맺고 장애인아시아인게임 종료 후 지역 장애인체육인들이 지원된 경기유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부참여 계좌는 농협 1173-01-004061, 신한은행 100-023-230734(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천지회)이다. 문의:(032)456-3333

/김영준기자 kyj@kyeongin.com



해양환경공단, 유관기관과 방제훈련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KOEM, 이사장·허기남)는 24일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관계자 7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 해상방제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훈련은 인천항 GS칼텍스 해상출하부두 앞 해상에서 약 500ℓ의 기름이 유출된 사고를 가정해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인천해경, SK인천석유화학, GS칼텍스 등 4개 기관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훈련은 해당 정유사에서 실제 오염사고 발생 시 요구되는 방제조치 관련사항을 사전 협의하고 훈련에 반영시킴으로써, 해당 정유사에서 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초동조치가 가능토록 했다.

해양환경관리공단 인천지사 관계자는 “관할 해역에서의 대규모 기름 유출사고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관련 업·단체와 상호 유기적인 공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방제대응 전문 기관으로서 더욱 앞장서기 위해 체계적인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

동구 금창동, 어르신들 삼계탕 대접

인천시 동구 금창동(동장·박정남)은 24일 동 주민센터 앞에서 어르신 500여명을 모시고 삼계탕 나눔 경로잔치를 진행했다.

이날 행사는 금창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이공희)와 새마을부녀회(회장·원용분)가 공동주관했다. 원용분 금창동 새마을부녀회장은 “어르신들은 날씨 더울 때일수록 이열치열의 따뜻한 기운으로 몸을 보호해야 한다”며 “부모님께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앞으로도 자주 경로잔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정남 금창동장은 “오늘 후원과 자원봉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마을 곳곳에 삼계탕의 건강한 기운과 이웃사랑의 마음이 전해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김도현기자 kdh69@kyeongin.com

광고문의 인천 032) 861-3204 수원 031) 231-5271

친환경 농법 심수년 ‘맛·영양 결실’



(사진 앞줄부터)꽃다래농장을 함께 운영하고 있는 김정성, 김명숙, 이월숙씨.

농기센터 최고 품질 토마토 선발대회 1등 ‘꽃다래농장’

“친환경 토마토는 맛도 좋지만 건강에도 만점입니다.” 인천 남동구에 있는 ‘꽃다래농장’이 최근 인천 최고 품질 토마토 생산 농가로 선정됐다.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연 최고 품질 토마토 선발대회에서 1등을 차지한 것이다. 꽃다래농장 토마토는 당도, 산도, 무게, 착색도, 균일도, 맛(식미 평가) 등의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자체개발 효소 사용… 별이 직접 수경

빨갭게 익은 완숙상태 판매 ‘맛 차별’

시행착오끝에 주스 개발 공장도 세워

꽃다래농장은 남동구 수산동에 있다. 김정성(57)·김명숙(54) 부부, 김정성씨의 외가 쪽 동생 이월숙(53)씨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친환경 토마토 생산 농장이다.

김씨 부부는 10여년 전부터 이곳에서 친환경 토마토를 생산했다. 5월 초부터 9월 말까지 토마토를 수확하는데, 연 매출이 1억원을 넘는다. 장사가 잘되는 편이라고 한다.

맛의 비결은 무엇일까. 김정성씨는 “우리 농장은 나무에서 빨갭게 익은 완숙토마토를 판매한다”며 “(완숙토마토는) 파란 토마토를 나무에서 따 익힌 후숙토마토보다 맛이 좋다”고 했다. 아내 김명숙씨는 “화학비료와 농약을 쓰지 않는 것이 맛의 비결”

이라며 “독자적으로 개발한 효소와 아카시아 액비(물거름) 등으로 토마토를 생산하고 있다”고 했다. 인공수정이 아닌 별이 직접 수경해 토마토를 생산하는 방식도 맛이 좋은 이유 중 하나다.

농장 운영에 어려움 정도 있다고 한다. 김명숙씨는 “소비가 워낙되니까 힘들다. 올해처럼 힘들 때가 없었던 것 같다”며 “4kg을 계절에 따라 1만5천~2만원 정도에 판매하는 데, ‘만원여치만 달라’는 분들이 적지 않다”고 했다. 직원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

꽃다래농장은 지난해 10월 남동구 남촌동에 토마토 주스 가공 공장을 세웠다. 공장 이름은 ‘해가농’(www.haeganong.com)이다. 햇살이 가득한 농장이라는 뜻이다. 김명숙씨는 “판매 시기를 놓친 토마토를 즙으로 만들어 간간이 팔다 공장까지 갖추게 됐다”며 “공장을 설립하는 데 인천시 농업기술센터가 큰 도움을 줬다”고 했다.

토마토 주스 상품명은 ‘별과 토마토의 사랑 이야기’다. 별 수경 완숙토마토를 열로 가공한 뒤 올리브유 등을 첨가한 건강 음료다.

김명숙씨는 “처음에는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다. 오랜 노력 끝에 몸에도 좋고 맛도 좋은 토마토 주스를 개발했다”며 “토마토는 그냥 먹는 것보다 익혀 먹는 것이 건강에 더 좋다”고 했다.

김정성씨는 “우리 가족이 먹는 음식을 만든다는 생각으로 일하고 있다”며 “인천 최고 품질의 토마토를 계속 생산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영흥화력, 중소기업 구매 상담회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본부장·손광식)는 24일 중소기업에 초청해 우수제품 구매 상담회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상담회에선 총 25개 중소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부스에서 우수제품에 대한 홍보와 구매상담이 이뤄졌다.

손광식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우수한 제품을 개발하고도 판로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우수한 제품 개발에 매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승재기자 isj@kyeongin.com



보호관찰소 청소년 ‘스포츠 힐링’

인천보호관찰소(소장·이우권)는 24일 인천 송도 LNG 스포츠타운 축구장에서 ‘보호관찰 청소년 스포츠 힐링 멘토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프로그램엔 김시덕 인천대 축구부 감독 등 전직 축구 국가대표 출신 강사가 멘토로 참여해 보호관찰 청소년에게 꿈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축구를 가르쳤다. 프로그램은 연말까지 진행된다.

이우권 소장은 “앞으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을 방지하고, 이들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양성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삼성電 경인지사, 강화읍 선풍기 기탁

삼성전자 한국총괄 경인지사(지사장·한기호)는 강화읍사무소를 방문, 독거 노인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50대를 기탁했다고 24일 밝혔다.

강화를 월곡리와 1사1촌 결연을 맺은 삼성전자 한국총괄 경인지사는 그동안 월곡리 노인초청 문화공연 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선풍기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 전달이다.

한기호 지사장은 “이 선풍기가 올 여름 폭염에 취약한 독거노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호기자 kjh@kyeongin.com

지붕명가
제일 지붕 공사

NAVER 검색창에 지붕명가 를 쳐보세요!

비, 새는 지붕
개량전문

신축지붕
공사전문

지붕명가는 포스코 칼라강판 100% 슬라브공사 전문 기업
25년 현장 시공 노하우를 가진 업계최고의 리모델링 전문회사입니다.

기존 슬라브집
지붕을 개량하면

겨울은 따뜻! 여름은 시원!
평생 방수·누수 완전해결됨!

☒ 빌딩/아파트/빌라데스리/주택 및 슬라브집/학교/공장/관공서/상가/창고/돈축사 외
☒ 공장 직영으로 시공하여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초저가 비용으로 시공 가능)

전화주시면 내, 집처럼 공사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080-457-8282

지붕개량 ★특허★ 출원 ※공사금액 전액 장기분할가능


CHEVROLET
Your Every Success
쉐보레 대리점 모집공고

한국지엠 공식딜러 ㈜SS Auto는 쉐보레 판매대리점 사업을
열정적으로 추진 할 관심있고 역량있는
사업주님을 아래와 같이 모시고자 합니다.



구 분	내 용
모 집 기 한	2014. 6. 20 ~ 2014. 6. 30(11일간)
모 집 지 역	부천시 오정구(現 쉐보레 동부천 대리점)
자 격 요 건	-조직관리 유경험자로 개인사업자 운영가능자 -영업력이 탁월한 사업자로 자동차 판매사업 유경험자 -담보제공 가능자(거래담보 1억원 / 인보증 5천만원) -전시장 직접임차가 가능한자(임차보증금 1억원)
전 형 절 차	1차(서류전형) 2차(면접전형) : 각 전형별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제 출 서 류	대리점신청서(신청 문의시 첨부서류 이메일 송부), -신분증사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신청서 접수	이메일(hjlee@ss-auto.co.kr)로만 접수 받습니다.
상 담 문 의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75-1 새서울빌딩3층(㈜SS Auto 네트워크기획팀 02-513-0022)

 CHEVROLET | **SS Auto**

| 참성단 |

썩지 않는 역사의 진실

오랜 세월에도 역사의 진실은 결코 썩지 않는다. 미국 사법 당국은 지난 20일 2차대전 중 나치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 경비를 섰던 89세 노인을 구속했다. 독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았고 오는 8월 심리(審理)를 시작한다는 것이다. 요한 브라이어 노인, 그가 나치 친위대(SS)인 해골부대 일원으로 아우슈비츠 비르케나우 수용소 경비를 섰던 건 70년 전인 1944년 5~10월로 불과 몇 달이었고 19살 소년이었다. 그러나 준엄한 70년 역사의 진실은 단지 경비만을 섰다는 소년, 이제 죽음이 눈앞인 89세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터키 수도 앙카라 법원은 또 96세 상노인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1980년 군 참모총장으로 쿠데타를 주도, 군부정권 대통령을 지냈고 그 2년 후엔 방한하기도 했던 케난 에브렌(Evren)에게 국가질서 교란 죄를 34년 만에 적용한 것이다.

더욱 놀랄 일은 더 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자가 2012년 발표한 예수의 처에 관해 기록한 파피루스 조각은 근대에 날조된 게 아님이 밝혀졌다고 그 대학 신학지(神學誌)인 Harvard Theological Review가 전했다'는 게 지난 4월 11일 CNN 뉴스였다. 역사의 진실은 소름끼치도록 무섭다는 걸 아베(安倍) 일본 정권은 왜, 무엇 때문에 모르고 있는지 아니면 모르는 체 하는 건지 쥐어박고 싶도록 밉다. '고노(河野洋平)의 담화'는 'Kono Apology'로 서양에 알려졌고 이미 20여 년 전 역사가 인준한 사실이다. 맨 담화(말씀)가 아니라 '사죄의 말씀'이었다. 그걸 검증하겠다는 건 역사 치매증일 뿐이고 중국에선 그런 역사 기억 불능을 가리켜 '착위(錯位:추어웨이)'라고 한다. 정신착란의 '착란'이라는 거다.

오랜 역사의 진실도 언제든 밝혀지게 돼 있고 잘못은 사죄, 보상하는 게 당연지사다. 독일은 물론 영국만 해도 1963년 영국 식민지로부터 독립한 케냐의 5천200여 피해자에게 1천990만 파운드(약 300억원)를 배상하기로 했다고 작년 6월 6일 헤이그 외무장관이 발표했다. 아베가 그런 걸 알고 있고 23일 우리 외교부로 불려가 '고노 담화'를 더럽히지 말라'는 꾸중을 들은 벳쇼(別所浩典) 주한 일본대사도 들어본 적 있을까?

오동환 객원은설위원



송진구
인천재능대 교수

나로부터 시작된

작은 습관이 결국 인생전체를

장악하고 결정해 버린다

성공하고 싶거나

원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행동방식을 당장 바꾸자



| 오늘의 창 |

출발선에서 끝을 바라보다



이윤희
지역사회부(광주) 차장

“이젠 당선의 기쁨은 있고, 4년후 내려질 시민의 평가를 생각하며 긴장감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으면 합니다.”

얼마전 만난 한 공직자가 불쑥 꺼낸 말이다. 뭔가 빼 있는 말인 것 같아 이런 말을 꺼낸 이유를 물었더니 한 번 맞혀보라는 듯 웃어넘긴다.

오는 7월1일이면, 각 자치단체는 물론 각 기초·광역 의회가 일제히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사회분위기 등을 감안해 대부분 별도의 행사없이 조용하게 업무에 들어가는 분위기다.

하지만 행사만 단출할 뿐이지 내부조직은 일사불란하게 돌아간다. 신입 단체장이 들어선 곳은 업무인수직업을 마무리하느라 바쁘고, 재신임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조직을 재정비하고 새롭게 구성된 의회와 손발을 맞추느라 분주하다. 특히 광주의 경우, 광주 역사상 최초로 3선 자치단체장이 탄생해 기대감이 그 어느때보다 높을 뿐 아니라 시의회는 상당수가 초선의 새인물로 구성돼 집행부와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광주시민들은 7대 시의회가 집행부와 조화를 이뤄 이번 민선6기에서는 그동안 흐지부지했던 지역발전

‘습관’

강의가 직업인 저는 늘 고민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듣는 청중들은 대부분 저 보다 훨씬 탁월한 지식과 경륜을 갖고 계신 분들인데, 그 분들을 논리로 이해시키고, 진정성으로 감동시키며, 사례로 영감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해답을 대부분 책에서 찾습니다.

그런데 책을 읽는다는 것이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가장 부족한 것이 책을 읽을 시간이지요. 그래서 10여년 전부터 일부러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책을 읽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바로 ‘열탕 독서법’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하루에 두 번의 반신욕 또는 사우나를 합니다. 새벽에 책과 볼펜을 들고 약 43도의 열탕으로 들어갑니다. 300쪽짜리 책은 반으로 접어서 열탕에 앉아서 20분 동안 75쪽을 읽고 냉탕에서 몸을 식히고 다시 열탕에서 20분 동안 나머지 75쪽을 읽습니다. 40분만에 책의 절반을 읽는 셈이지요. 물론 정독할 수 없습니다. 속독하면서 중요하게 느끼는 부분은 볼펜으로 즉각 굵고 읽어갑니다. 나머지 75쪽은 밤에 읽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는 150쪽을 40분만에 읽게 되고, 세 번째 읽을 때는 20분 정도면 됩니다. 밑줄 친 부분만 읽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략 첫 번 읽으면 핵심 내용이 머리 속에 들어오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거나 영감을 얻은 부분을 정리하는데, 그 분량이 대부분 3쪽을 넘지 않습니다. 그 3쪽

을 강약에 활용하려고 한 권의 책을 읽는 셈이지요. 저는 ‘열탕 독서법’이라는 ‘습관’ 때문에 별도로 시간을 내지 않아도 많은 양의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습관’이 생각이나 느낌 그리고 행동의 95%를 결정한다는데 대부분 동의합니다. 즉 성공과 실패의 95%를 결정하는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약속에 늦는 사람은 매번 약속장소에 늦게 나타나고,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은 늦는 경우가 없습니다. 포기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조그만 좌절에도 포기하고 맙니다. 그러나 도전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은 거절이나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습관이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습관은 후천적인 것입니다. 살면서 학습하고 체화되죠. 즉 성공과 실패의 95%를 결정하는 습관은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공을 원한다면 그 성공모형을 벤치마킹해서 습관으로 만들면 성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습관을 만드는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결심: 자신이 벤치마킹하고 싶은 롤 모델이나 갖고 싶은 습관이 있다면 그것을 습관화시키기 위해 항상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결심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2. 공자: 특정한 것을 습관으로 만드는 중이라고 주변에 알리는 것입니다. 금언자나, 다이어트중인

사람은 그 사실을 알리고 자신이 언제까지 금연하고, 몸무게를 얼마나 감량할지 알리는 것입니다.

3. 상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습관으로 가져서 그로 인해 변해있을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깨끗한 금언자의 모습이나 다이어트로 다듬어진 날렵한 몸매를 그리면서 상상하는 것입니다.

4. 보상: 일정한 목표에 도달하면 자신에게 멋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5. 불굴: 습관을 바꾸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몸은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습관이 바뀌는 것에 무의식적으로 거부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충도에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습관이 되면 오히려 결심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데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죽은 쇠에서 생긴 것인데, 결국 그 녹이 점점 쇠를 갉아 먹는다’. 법구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의 95%는 습관인데, 내가 만든 작은 습관이 결국 내 인생 전체를 장악하고 결정해 버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지금부터 그 습관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나로부터 시작된 그 작은 습관이 나를 성공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성공하고 싶거든, 원하는 삶을 살고 싶거든 습관을 바꾸세요. 지금 당장.

| 고전으로 읽는 고사성어 |

微	顯	闡	幽
작을 미	나타날 현	밝을 천	그을할 유

미현천유: 은미한 것을 나타내고 그을한 것을 밝힌다



<출전: 주역>

천자문에 우주는 넓고 거칠다는 뜻의 우주홍황(宇宙洪荒)이란 글이 있다. 우주는 ‘집 우(宇)’와 ‘집 주(宙)’로 두 개의 집이다. ‘우(宇)’는 상하와 사방이라는 공간의 집이고 ‘주(宙)’는 고금과 왕래라는 시간의 집이다. 조물주가 두 집을 짓고 살림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인간은 그 두 집에서 살고 있으며 그 두 집은 서로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았다.

공간을 살펴보면 밝은 공간도 있지만 어두운 공간도 있다. 공간에는 똑똑히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존재들로 가득하지만 너무 작아서 귀에도 들리지 않고 눈에도 보이지 않는 존재도 있다. 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은미한 존재들은 분명히 활동하며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것을 잘 보기 위해 현미경(顯微鏡)같은 기계를 만들어놓고 들여다본다. 캄캄한 밤이나 미생물은 분명히 존재하거나 활동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둡거나 미미해서 인식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두운 곳은 환하게 밝힌다(顯幽)는 말은 이해하기 쉽다. 그런데 미현(微顯)은 의미가 상통하지만 어법상으로 보면 현미경의 현미(顯微)와는 다른 표현이다. 작은 것을 크게 확대하는 것이 현미라면 멸절하게 잘 보이는 것인데 그것의 작은 부분까지 보는 것이 바로 미현이다. 밤을 낮처럼 밝혀놓고 살고 작은 미생물도 공통처럼 확대해서 보는 시대가 바로 현대의 문명화 사회이다. 그래서 관심은 자꾸만 밝은 낮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두움을 탐구하며 잘 보이는 것은 소홀히 하고 잘 보이지 않는 것에 끌린다. 어두운 부분을 밝혀야 하는 것은(顯幽) 맞다. 그렇지만 그 어두움은 아직 나타내지 않은 작은 것에 있지 않고 눈앞에 크게 드러나 있는 것에서 찾아야 한다(微顯)는 뜻이다. 정말 미미한 조짐은 눈앞에 펼쳐져 있어서 사람들이 그것이 조짐인 줄을 모른다는 뜻이다. 해가 중천에 떠있는 밝은 대낮에 밤에나 볼 수 있는 북두성을 보라는 주역의 말처럼 미미한 조짐은 눈앞에 환히 나타난 것에서 찾아야 한다는 뜻이다. 철산(截山) 최정준 (동문서숙 대표)

경인일보

경인일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회장 이길여 발행·편집·인쇄인 송광석 편집국장 박현수	
본사	수원시 팔달구 호원로 299 ☎442-702 전화 0312315-114 팩스 232-1231, 223-2662 편집부 2315-339 정치부 2315-350 경제부 2315-351 사회부 2315-360 지역사회부 2315-370 사인부 2315-316 문화체육부 2315-380 교양부 2315-340 디지털뉴스부 2315-375
인천 본사	인천시 남구 학익동 684-1 ☎402-041 전화 032861-3200 팩스 861-3206, 3209 정치부 861-3200 경제부 861-3201 사회체육부 861-3202 사인부 861-3203 인문교양부 752-0007 법률사회 문화 751-7077
서울 본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24 삼보호텔빌딩 801호 ☎150-608 전화 02780-0456 팩스 780-0356 취재부 780-0458 광고부 780-0457
광고문의 수권 0312315-252~9 인선 032861-3204 서울 02780-0456 구독료 월 10,000원 / 1부 500원 구독신청 0312315-503	

고인에게는 최고의 예우를 · 유족에게는 최저의 부담을

새천년 장례식장

중형버스 대형버스 캐딜락

임종에서 장지까지 해결해드립니다

- 임종에서 장지까지 모든 업무편의 제공
- 차량 향시 대기
- 최신장례시설 완비
- 무료주차장 완비(약 300대)

새천년 장례식장은 이렇습니다

- 엄숙하고 세련된 분향실
- 넓고 장중한 예식장
- 장례용품 전시장
- 휴게실 / 편의점 / 화원 등 최신 시설 완비

24시간 상담 ☎ 032) 552-3100, 552-3311 차량 향시 대기

인천 서운동 현대자동차 운전학원 옆 / 계양종합 사회복지관 옆

의료광고심의필 제·중-18995



수술없는 목·허리 디스크치료

중화한의원이 있습니다.

수술만 한다고 치료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외에 근육과 염증 신경과 혈관 척추의 배열상태 힘의 재건 모든 것이 완벽해져야 합니다. 저희 중화 한의원에서는 완벽한 치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료문의

032-435-1599
032-441-8883

인천 석바위 부녀복지회관(원)

인천 소형공장 매매 임차

- 소재지 : 가좌I.C 주변
- 인천지하철 2호선 역세권(개통예정)

● 면적

1층 264㎡(80평)	1층 331㎡(100평)
2층 264㎡(80평)	2층 331㎡(100평)
계 528㎡(160평)	계 661㎡(200평)

현금8,000만원으로 내 공장 마련 임차도 가능함

● 기반시설, 혜택

- ◎ 등·취득세 50% 감면
- ◎ 재산세, 종합토지세 5년간 37.5% 감면
- ◎ 화물엘레베이터(2t) : 설치됐음
- ◎ 주차장 : 216대 주차시설 완비
- ◎ 즉시 입주, 동력 :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음

분양문의

032)772-1680
032)861-2900

| 경인칼럼 |



손 동 원
객원논설위원·인하대 교수

승리하는 조직의 비결,

상하동육

(上下同欲)

인천시 정권이 바뀌면서 인사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는 한 편으로 새 시장에게 공정한 인사를 바라는 희망 메시지가지만, 본질적으로는 새 권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권력은 마치 약자지킬만한 시장(市場)과 같다. 권력자 주변은 시장 바둑처럼 항상 사람들로 들끓게 되며, 사람 장막에 갇힌 권력자는 환상에 도취된다. 또 권력이 사라지는 날 시장 사람들은 새 권력에 불어 버린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반복됐던 권력자 주변의 모습이었다. 모든 조직원은 권력에 따라 움직이는데, 공무원 조직은 특히 그렇다. 그들은 권력의 도움으로 조직 위계질서 사다리의 상단부로 올라가고 싶어 한다. 그것이 공무원의 본능이다. 오죽하면 공무원에게 왜 사냐고 물으면 승진하기 위해 산다고 답한다고 한다.

이런 공무원 조직을 이끌고 성공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손자병법은 그 최고의 비책으로 ‘상하동육(上下同欲)’을 말한다. 즉, 최고 장수에서부터 말단 병사까지 모두가 같은 꿈을 꾸는 군대가 승리한다는 것이다. 최고위층부터 말단 조직원까지 같은 꿈을 꾸

최고위층부터 말단까지 같은 꿈 꾀야 ‘성공’

는 조직은 인화(人和)와 소통으로 이루어진다. 천시(天時)와 지리(地利)가 좋아도 인화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다. 인천시 조직에서 ‘상하동육’이란 유정복 당선자의 비전이 전 조직원에게 공감되는 상태를 말한다. 모든 공무원들이 시장(市長)과 같은 마음으로 신나게 움직여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 유능한 지휘관이 병사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려면 자신부터 진정한 헌신을 보여주어야 한다. 즉, 진정성이 없는 소통은 공감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오랫동안 ‘의리’를 외쳐온 연예인 김보성이 최근 진정성의 화신(化身)으로 등극한 사례도 그것을 말해주는 교훈이다. 새 권력이 들어서면 조직은 표면적으로 응집력이 높아진다. 그러나 소명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응집력은 의미가 없다. ‘이 사회에 무엇을 공헌할 것인가’라는 소명의식이 없다면 응집력이 높아질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조폭 조직을 응집력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해다. 응집력은 ‘같이 뭉쳐 있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진정한 응집력은 소명의식에 대한 공감에서 나온다. 조폭 집단은 이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에 응집력이 높지 않고, 표

면적으로 의리와 복종 등과 같은 허상만 있을 뿐이다. 많은 조폭 영화에서 드러나듯, 보스의 뒤에서 칼을 쏘는 하극상이 빈번하고 자리다툼이 치열한 이유는 바로 소명의식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조폭 두목은 조직원들에게 끊임없이 수익을 만들어 주어 야 생존할 수 있다. 이것은 공감하는 소명의식이 없는 조직을 이끄는 것이 얼마나 고난한 일인가를 잘 보여준다.

유당선자, 진정성 갖고 헌신하면 응집력 커져

유당선자가 설정하는 소명의식이 확정된다면, 그 다음 과제는 그것을 조직원들이 공감하게 하는 작업이다. 이는 유당선자의 진정한 헌신에도 달려있지만, 조직내 신뢰와 믿음을 높이는 시스템 구축에도 영향을 받는다. 공무원 조직을 움직이게 하는 방법으로 소위 ‘당근’과 ‘채찍’을 생각해볼 수 있다. 그들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완결 조건은 아니다. 우선 조직원들을 격려하는 ‘당근’을 생각해보자. 당근이라는 보상만으로 조직원들을 움직이려는 건 부족한 생각이다. 제정 러시아 시절 한 군대에서 벼룩을 잡아오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설계했었다. 벼룩을 없애고자 했던 보상책이지만, 놀랍게도 러시아 병사들은 보상을 늘리기 위해 오히려 벼룩을 키웠다. 즉, 벼룩을 없애기는커녕 벼룩이 더욱 늘어나는 것이다. 보상책으로만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은 이런 모순을 낳는다. 사람은 자신이 자신을 통제한다는 생각이 들어야 가장 편안하고 행복하다. 또한 ‘채찍’이라는 처벌만으로도 조직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 미국의 어린이 집은 작장 맘에게 픽업 마감시간을 주고, 그 마감시간을 넘기면 벌금을 부과했다. 이 벌금(채

조직원, 스스로 움직이게 당근과 채찍 필요

찍)으로 지각이 줄어들 것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지각 횟수가 두 배로 늘어났다. 지각한 대가로 벌금만 내면 늦게 가도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됐던 것이다. 역시 스스로 움직이는 동력을 주지 않는 한 발칙으로도 조직원들을 움직일 수 없다. 민선 6기 인천을 이끌 유정복 당선자가 ‘상하동육’ 조직을 만들어 공무원들의 신바람 속에서 인천시의 도약을 이뤄내길 진심으로 바란다.

[사설]

희망인천준비단, 힘 셀 때 신중하라

민선 6기 인천시를 이끌 유정복 당선자의 인수 위원회에 해당하는 ‘희망인천준비단’의 노선이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며칠 전, 인천관광공사 부활, MICE산업 적극 유치, 학력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 등의 키워드들을 내놓은 바 있다. 이 키워드들로 볼 때 앞으로 관광 및 컨벤션 산업의 육성을 통해 인천의 산업구조 전환을 추진하며, 교육의 질적 향상을 통해 삶의 질 및 행복지수를 높이려는 노력이 진행될 것임을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준비단이 내놓는 정책 용어들은 인천 시민들이 ‘유정복호’의 진로를 조심스럽게 예감하는 실마리로 활용될 것이다. 시민들은 시장권이 바뀌었으니 어느 정도 새로운 정책을 기대할 것이다. 물론 시민들의 입장에서 마음에 드는 정책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정책도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준비단에 당장 비판이 없다고 해서 시민들이 모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지금 권력이 가장 높은 때라서 시민들이 조심히 대응할 뿐이다.

역대 대통령들은 집권시절을 회고할 때, 인수위 시절이 가장 행복했다고 술회한다. 권력을 잡았다고 확정된 순간, 또 막상 책임을 떠맡지도 않는 순간인 인수위 시절이 권력의 절정기

였다든 것이다. 막상 임기가 시작되면 책임도 많고 고민스러운 쟁점들 속에서 뒹굴면서 권력을 즐길 여유조차 없다는 것이다. 준비단은 현재 권력의 최고점이란 것을 인식하고 가장 신중하게 모든 사안을 바라보길 바란다. 권력이란 현재의 절정기를 넘어서면 서서히 하락곡선에 들어선다. 지금 신중해야 하는 이유는 시민들이 준비단을 통해 ‘유정복 호’의 방향을 가늠하기 때문이다.

물론 준비단이 내놓은 방향설정이 유정복 시장의 모든 면을 말하는 건 아닐 것이다. 방향설정만 하고 기존 정책 중 도저히 지속하기 어려운 것들을 걸러내는 작업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또 실제 시정을 펼쳐다 보면 준비단의 제안을 수정할 가능성도 많다. 그러나 시민들은 일엽지추(一葉知秋), 즉 낙엽 하나로도 가을을 알아채는 심정으로 다가선다. 그래서 준비단은 단어 하나에도 신중해야 한다. 새 시장의 취임전부터 시민들과의 공감대는 생각하지 않고 자만심을 보여선 안된다. 추진단이 어떤 이미지를 시민들에게 보여주는가에 따라 향후 공감대의 수준이 달라질 것이다. 실패하는 정권은 초기 인수위 시절에서부터 신중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교훈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

문 총리 지명자 자진사퇴가 남긴 것

문장국 총리 지명자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게 박근혜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하고 자진사퇴했다. 이로써 박근혜정부는 출범이후 3명의 총리 지명자가 청문회장 문턱을 넘기도 전에 낙마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특히 문 지명자의 사퇴는 안대희 전 지명자에 이은 ‘연쇄 낙마’라는 점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기록되게 됐다.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것은 지난 4월27일이었다. 그리고 무려 60일 가까이 ‘총리 부재’가 이어지고 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문 지명자 사퇴로 국정 공백 장기화가 또 불가피해졌다. 이뿐만이. 청와대의 연이은 인사검증 실패에 따른 책임 논란으로 정국은 혼란에 빠지게 됐다. 이번 문 지명자 낙마 책임과 장기국 국정공백의 1차적인 책임은 누가 뭐래도 청와대에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책임론이 대두되는 이유다. 물론 여야 정치권도 이번 문 지명자 사퇴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된 것이다. 지명자가 청문회에 가기도 전에 여론몰이로 한 인격체를

무참히 짓밟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인지 반성해야 한다. 민주주의 절차가 제대로 지켜질 때 그 사회가 성숙된 민주주의로 가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권은 스스로 이를 부정했다. 국회의원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포기하면서 도대체 누구를 탓하고 누구를 비난한다는 것인가.

문 지명자 낙마를 계기로 앞으로 일반인이 총리를 맡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개인적으로 눈곱만치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제는 지명자의 ‘이념’이 하나 더 추가됐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과연 이를 충족할 사람이 있을지 의문이다. 문 지명자의 청문회 출석을 두고 국민의 의견이 크게 갈린 것도 걱정이다. 진영논리가 다시 고개를 든 것이다. 특히 이념 문제가 총리의 잣대로 부각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이념으로 인한 좌우대립이 더욱 극심해질까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유능한 인재를 찾아 삼고초려해 지명할들 청문회에 앉히기는 불가능하다. 총리 지명자에 정치인들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는 것도 그런 이유일 것이다. 청와대는 인사시스템을 정비하고, 박 대통령은 부디 초심으로 돌아가 그때 그 심정으로 국정 수습에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

| 기고 |



이 상 문
인천시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

45억 아시아인의 축제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7일간 인천광역시에서 42개국 6천여명이 23개 종목에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된다. 이를 위해 인천아시아대주경기장을 비롯해 16개의 신설 경기장이 준공되며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다. 이번 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등과 화합을 위한 스포츠 제전으로 인천과 인천장애인체육의 위상을 드높일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인천장애인체육회는 2007년 4월 창립되어 2013년 기준 32개 종목 838명의 선수가 활동하고 있다. 시·도 장애인체육회 소속으로는 처음으로 2010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역도·배드민턴)를 운영하며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합 3위, 제9회·제10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종합 2위, 제5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종합 2위 등 괄목할 만한 성적을 거두며 장애인체육 강세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어우러지다

시로서 위상을 높이고 있다.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 출전하는 지역 선수로는 2004 아테네장애인올림픽 은메달과 2008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동메달을 획득한 인천장애인사격의 대들보인 심재용 선수를 비롯해 2012년 휠체어러كب선수에서 양궁선수로 전향해 첫 출전한 제32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사상 첫 6관왕을 달성한 양궁의 구동섭 선수와 분회 직장운동경기부 소속으로 2010 광주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은메달을 획득한 배드민턴 최정만 선수 등 15개 종목에서 30여명이 국가대표로 활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정의 물결, 이제 시작이다’라는 슬로건 아래 개최되는 인천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스포츠를 통한 화합과 어울림의 향연으로 인천을 수놓게 된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역주하는 텀프사이클의 패달링, 댄스스포츠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파트너의 우아한 몸짓, 비장애인 선수가 소리로 코치하는 시각축구, 시각장애인수와 함께 달리는 육상의 가이더러너 등이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장애인체육은 골볼, 보치아, 론볼처럼 특정 장애유형을 위한 종목도 있지만 비장애인체육의 경기규정을 일부 변경해 운영하는 종목이 대다수라 비장애인이 쉽게

게 어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며, 실제로 휠체어농구와 휠체어탁구 종목에서 비장애인클럽팀이 활동하며 장애인체육을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있다. 이에 비장애인과의 함께 하는 장애인체육을 널리 알릴 장애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비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의 기회로 삼아야 하며, 장애인만의 체육이 아닌 스포츠 자체로 즐길 수 있는 콘텐츠로 재구성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와 2014 인천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 그리고 2016년 완공예정인 인천장애인전용체육관의 건립은 인천장애인체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다가오는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에서 대한민국 국가대표뿐만 아니라 각국의 선수단에 인천시민의 열정과 환영이 가득 찬 경기장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란다. 이어서 개최되는 2014 전국장애인체육대회로 열기가 전달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를 통해 장애인스포츠의 열정의 물결이 전국으로 넘실거리기를 기대한다. 그 순간 인천시민 모두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의 보람과 함께 장애인올림픽의 최우수선수에게 주어지는 황연대 성취상을 공동수상하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인천N방송 www.incheonNtv.com

시민이 만들어가는 방송 인천N방송에서 기자단을 모집합니다

꿈과 열정으로
인천의 소식을 취재할
학생 및 일반기자단에
신청, 도전하세요!

모집기간 : 2014년 6월 16일 ~ 6월 30일(15일간)

모집인원 : 총 100명(학생 기자단 : 80명, 일반 기자단 : 20명)

활동내용 :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소식과 생활에서 느낄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취재

| 지원자격 |

학생기자단	현재 초·중·고·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2·4년제 대학 및 휴학생 포함)	■ 인천지역 취재가 가능하고 월 최소 2건 이상 영상 제작이 가능한 자
일반기자단	현재 만 20세 이상인 자 (만 20세 이상이면서 학생인지는 일반/학생 중 택일 지원)	■ 동영상 촬영과 편집 및 블로그, SNS 운영 관심이 있는 자

| 지원서류 및 방법 |

필수	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지원 방법 : 인천N방송,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시·군·구 홈페이지 공고 → 양식 다운로드 후, 담당자 메일(ntv@inis.or.kr)로 제출 ※ 파일명 : 기자단 지원(이름)
선택	영상 콘텐츠	영상 주제 : “인천N방송을 소개합니다.” 자유롭게 N방송을 홍보할 수 있는 영상 제작 지원 방법 : N방송 – 골목소식 – “인천N방송을 소개합니다.” 게시판 업로드 ※ 영상 콘텐츠 제출 시 가산점 부여

| 기자단 혜택 |

학생기자단	■ 기자단 명예기자증 및 명함, 실습교육 이수 시 수료증 제공 ■ 영상 기획, 제작 등 무료 교육 실시 ■ 인천아시아경기대회 홍보전담 기자단 기회 부여
일반기자단	■ 문화 공연 및 행사 등 다양한 취재 활동 지원 ■ 주요 행사 취재 시 활동비 지급

» 문의 ntv@inis.or.kr/032-250-2147



마지막은 벨기에

알제리에 일격을 당한 한국 축구대표팀이 24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이구아수 플라멩구 스타디움에서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
브라질 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16강 믿어볼까



김종화 특파원의
브라질 생생리포트

홍명보 한국 축구대표팀 감독이 알제리전 대패로 인해 침체된 선수단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분주하다.

홍 감독은 24일 오전 4시(한국시간) 베이스캠프로 이동하고 있는 브라질 이구아수 플라멩구 스타디움에서 진행한 회복 훈련에 직접 참여

알제리전 진 대표팀, 분위기 전환
홍감독, 패스게임 참여 훈련 독려
상호간 자유로운 대화 휴식 유도

해 선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소화했다. 홍 감독은 전날 열린 알제리와의 경기에 선발로 출전한 선수를 A팀으로 묶고 그 외 선수를 B팀으로 구분했다. A팀에게는 전날 경기에 대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라닝과 스트레칭을 1시간 가량 소

화하도록 했다. B팀에게도 가벼운 패스게임, 순발력과 슈팅 등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홍 감독은 선수단 분위기를 고려해 A팀은 이케다 코치와 함께 자율적으로 훈련을 하도록 해 선수들 스스로가 전날 경기로 인해 침체된 분위기를 소통을 통해 풀어나갈 수 있도록 유도했다. 특히 홍 감독은 훈련 시간이 2시간으로 예정돼 있었지만, A팀의 경우에는 1시간 가량 프로그램을 소화한 뒤 선수들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며 경기장에서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반면 B팀은 홍 감독과 코칭스태프가 함께

훈련했다. 홍 감독은 B팀을 2개조로 나눠 진행된 패스 게임에 직접 참여해 선수들과 함께 합성을 지르며 훈련에 동참했다. 또 순발력과 슈팅 훈련시에는 옆에서 지켜보면서 선수 개개인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대표팀 관계자는 “선수들 스스로 알제리와의 경기가 뭐가 문제인지 잘 알고 있기에 별도로 미팅을 해서 다독이거나 하지 않았다. 대신 선수들끼리 소통을 통해 마음을 고쳐잡을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브라질 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믿어주세요”

태극전사, 도전은 계속된다

“벨기에 경기 중요성 선수들 잘알아”

이청용 “체력부족 문제 없어” 해명

“16강 진출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믿어주세요.”

태극전사들이 2014 브라질 월드컵에서 16강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주장 구자철(마인츠)은 24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스캠프가 위치한 브라질 이구아수 플라멩구 스타디움에서 회복 훈련을 마치고 미스트존(공동취재구역)에서 “아직 16강 진출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고 대표팀의 도전도 끝나지 않았다”며 조별리그 3차전 벨기에와의 경기에 대한 필승 의지를 드러냈다.

구자철은 “알제리전 후반에 보여준 모습

과 같이 벨기에전을 치른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선수들 스스로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고 있다. 벨기에전에 대한 중요성을 선수들도 알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팀내 최고참 광태위(알힐랄)를 비롯해 이청용(불턴), 김신욱(울산 현대) 등 주축 선수들도 선전을 다짐했다. 광태위는 “회복훈련을 마치고 후배들에게 ‘남은 경기가 있고 팬들을 위해 좋은 결과를 보여주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청용은 “시즌으로 인한 체력 부족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불거졌던 무릎 부상 논란을 해명했다. 이어 그는 “월드컵이라는 무대가 자신이 갖고 있는 기량을 100% 다 보여주는 힘들다. 하지만 벨기에전에서 모든 것을 쏟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브라질 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 인터뷰 | 공격수 손흥민

패배있고 다음경기 준비에 집중
마지막까지 포기않고 도전할것

“16강 진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

2014 브라질 월드컵 조별리그를 통해 존재감을 세계 축구팬들에게 알린 한국 축구대표팀 측면 공격수 손흥민(레버쿠젠)이 16강 진출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손흥민은 24일 오전(한국시간) 베이스캠프가 차려진 브라질 이구아수 플라멩구 스타디움에 위치한 코리아 하우스에서 가진 공식 인터뷰에서 “벨기에전은 어디까지나 이기는 게 목표다. 마지막 남은 16강 진출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이제 따로 설명이 필요없다. 선수들

스스로 어떻게 경기에 임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다”며 선수단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손흥민은 “(알제리 전을 마치고) 팀 전체가 상당히 예민해졌다. 정신 무장을 잘해야 한다. 알제리전처럼 초반에 집중력이 흐트러져 대량 실점을 하는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알제리전의 가장 큰 문제로 정신력을 꼽았다. 손흥민은 “전반에만 3골을 실점한 건 집중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선수단 모두 그런 경기를 한 것에 아쉬움을 갖고 있다. 하지 말아야 할 실수를 많이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아직 16강 싹새가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빨리 잊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국내 팬들이 격정하고 있지만 1·2차전과 같이 응원해 주신다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겠다”고 말했다.

브라질 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믿음의 ‘손’

붉은 악마 원조는 벨기에

1906년부터 호창... 한국 1983년 외신서 표현

‘붉은 악마의 원조’는 어느 팀일까.

축구팬들이라면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 대회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맞붙는 한국과 벨기에 축구 대표팀의 별칭이 모두 붉은 악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둘다 붉은

유니폼이 대표팀을 상징한다는 의미에서 나온 별명이다. 그렇다면 팬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원조’는 어느 쪽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벨기에다. 벨기에에는 1906년 처음으로 붉은 악마로 불렸다. 1904년 5월 첫 공식 경

기를 치른 벨기에에는 대표팀 출범 2년 만에 연이은 승리로 자국 축구팬들을 흥분시켰다. 당시 파에르 월키어스라는 기사는 자국 대표팀의 3연승에 고무돼 대표팀을 ‘붉은 악마’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처음으로 붉은 악마로 불린 때가 약 30년 전이다. 1983년 멕시코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한국이 4강에 오르는 기적을 일으키자, 해외 언론들은 붉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들을 붉은 악마로 표현했다. [신정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한국교민 최다거주 상파울루

벨기에전 응원에 2만명 참가

“벨기에전에는 교민들도 함께 한다”.

오는 27일 오전(한국시간) 한국과 벨기에 축구 대표팀의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본선 H조 3차전이 열리는 상파울루는 한국 동포가 많은 도시로 알려져 있다. 주브라질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브라질 동포의 98%에 달

하는 5만여명이 상파울루에서 주로 의료업을 하며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1차전이 열린 쿠이아바, 알제리와의 2차전이 치러진 포르투알레그리에서 응원 덕을 크게 보지 못했다. 상파울루와 거리가 멀어 교민 응원단의 규모가 작은데다 한국에서 건너온 여행객도 적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상파울루는 사정이 다르다. 대한축구협회는 상파울루에서 열리는 벨기에전

에 교민 2만여명이 응원전에 가세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벨기에전이 열리는 본선의 공식 경기장은 브라질 프로축구 코린치앙스의 홈인 아레나 데 상파울루다.

상파울루의 기온은 태극전사들이 뛰는데 불편을 겪을 정도는 아닐 것으로 관측된다. 이 지역은 6월 평균 기온은 최고 24도, 최저 10.5도 정도라서 한국의 초가를 날케 정도로 볼 수 있다.

브라질 이구아수/김종화기자 jhkim@kyeongin.com

16강 경우의수 난전

아르헨·프랑스 여유

흥미진진 빅매치

26일(한국시간)은 2014 브라질 월드컵 E-F조의 16강 진출팀이 가려진다. 아직 한 국가도 16강행을 확정하지 못한 E조에선 1-2차전에서 연승을 달린 프랑스가 16강에 오를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한 자리는 에콰도르와 스위스가 경합을 벌인다. F조에선 아르헨티나가 16강행을 결정한 가운데 나이지리아와 이란이 16강 티켓을 노린다.

#나이지리아-아르헨티나오전 1시·베이라하우 주경기장

나이지리아는 비기기만 해도 16강에 오를 수 있다. 나이지리아는 승점 4를 기록, 16강 진출을 일찌감치 확정한 아르헨티나(승점 6)에 이어 2위를 달리고 있다. 승점 1만 더해도 3위인 이란(승점 1)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나 상황은 순탄하지만은 않다. 상대는 F조 최강 아르헨티나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이란(오전 1시·폰치 노바 경기장)

이란은 일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잡아야 16강을 바라볼 수 있다. 자력은 어렵고, 아르헨티나가 나이지리아를 꺾는 도움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란이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를 1-0으로 꺾고 나이지리아가 아르헨티나에 0-1로 진다면 16강 진출을 따져볼 수 있다. 이럴 경우 이란과 나이지리아는 승점·골득실·다득점에서 모두 같아지며, 국제축구연맹(FIFA)은 추첨을 통해 16강 진출국을 결정한다.

#온두라스-스위스(오전 5시·아마조니아 경기장)

승점 3(골득실 -2)을 기록중인 스위스는 프랑스(승점 6·골득실 +6), 에콰도르(승점 3·골득실 0)에 이어 E조 3위를 마크중이다. 스위스는 온두라스(승점 0·골득실 -4)를 꺾고 프랑스가 에콰도르를 물리쳐야 16강이 가능하다.

반면 온두라스가 16강에 오르려면 기적이 필요하다. 스위스를 큰 점수 차로 물리치고 에콰도르가 프랑스에 지면 16강에 갈 수도 있다.

#에콰도르-프랑스(오전 5시·마라카낭 주경기장)

프랑스가 3전 전승을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프랑스는 앞선 2경기에서 8골을 올려 매서운 화력을 과시했다. 1위로 조별리그를 마치면 16강에서 까다로운 상대인 아르헨티나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

에콰도르가 16강에 오르려면 승리 밖에 없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24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한사 국립 주경기장에서 열린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브라질의 네이마르가 카메룬을 상대로 선제골을 터트린 뒤 환호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브라질 네이마르 2골 맹활약

카메룬에 승… 칠레와 16강전

월드컵 경기결과 (한국시간 기준)

24일 화요일			
네덜란드 3승(9점)	2 : 0 B조	칠레 2승1패(6점)	
호주 3패(0점)	0 : 3 B조	스페인 1승2패(3점)	
카메룬 3패(0점)	1 : 4 A조	브라질 2승1무(7점)	
크로아티아 1승2패(3점)	1 : 3 A조	멕시코 2승1무(7점)	

브라질-칠레, 멕시코-네덜란드가 2014 브라질 월드컵 축구대회에서 나란히 8강 진출을 놓고 싸우게 됐다.

개최국 브라질은 24일 오전(한국시간) 브라질 브라질리아의 마네 가한사 국립 주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3차전에서 카메룬을 4-1로 꺾고 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다. 브라질은 멕시코와 똑같이 2승1무로 승점 7점을 기록했지만, 골득실(브라질 +5, 멕시코 +3)에서 앞서 조 1위를 확보했다.

이날 경기에선 네이마르(FC바르셀로나)가 전반 17분 선제골을 넣고, 1-1로 쫓기던 전반 35분 결승골을 넣어 브라질의 완승을 이끌었다. 네이마르는 이번 대회 총 4골로 득점 1위에 올랐다. 카메룬도 전반 26분 조엘 마티프(샬케)의 오른발 슛으로 추격



골넣었는데 슬프네 스페인의 다비드 비아가 23일(현지시간) 브라질 쿠리치바의 바이사다 경기장에서 열린 월드컵 조별리그 B조 3차전 호주와의 경기에서 첫 골을 만들어 낸 뒤 동료들로부터 축하를 받고 있다.

/EPA=연합뉴스

했으나, 브라질이 후반 4분 프레드(플루미넨세), 후반 39분 페르난지뉴(맨체스터시티)의 추가골로 달아나며 승리에 췌기를 박았다.

브라질의 16강 상대 칠레는 같은 날 상파울루 코린치앙스 경기장에서 네덜란드에 0-2로 져 B조 2위(승점 6, 2승1패)를 확정했다.

‘오렌지 군단’ 네덜란드는 조별리그 3경기를 모두 승리하며 승점 9점으로 B조 1위에 올랐다. 네덜란드의 16강 상대 멕시코는 같

은 날 헤시페의 페르남부쿠 경기장에서 열린 대회 조별리그 A조 최종 3차전에서 크로아티아를 3-1로 꺾었다.

스페인인 ‘유종의 미’를 거뒀다. 스페인은 이날 호주를 3-0으로 꺾고 마지막 자존심을 지켰다. 앞선 두 경기에서 부진했던 디에고 코스타(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골키퍼 이케르 카시야스(레알 마드리드)는 선발에서 제외됐다. 대신 이전 경기에 나오지 못했던 다비드 비아(뉴욕 시티)와 페르난도 토레스(첼시) 등이 활약했다. 비아는 전반 36분 첫 골을 넣었고, 토레스는 후반 24분 추가골을 만들었다. 후반 37분에는 후안 마타(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골망을 갈랐다.

호주는 아시아의 첫 승에 도전한 실 패한 채 3전 전패로 대회를 마감했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 스포츠 |

장애인AG 조직위원회

北선수대미 전략팀 신설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대회 개막 4개월여를 남기고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조직위는 대회가 임박한 만큼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기존 1총장 1차장 2본부 11부 3실 35팀의 직제를 유지하면서 본부간 부서 조정과 팀통합 및 신설, 일부 팀명을 변경했다고 24일 밝혔다.

눈에 띄는 부분은 북한선수 참가를 대비한 대회전략팀 신설이다. 기획총무부 산하의 대회전략팀은 북한선수 참가와 관련한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선수촌 운영 기능 보강을 위해 선수촌서비스팀을 새롭게 설치했다.

반면 업무 기능이 축소되는 총무팀과 회계팀을 통합해 총무회계팀으로, 물자팀과 유니폼팀을 합쳐 물자팀으로 조정했다.

국제적인 업무 효율을 위해 사무차장 직속 국제부를 대회지원본부로 조정했고, 대회 중 언론 보도와 취재 지원을 담당하는 언론보도팀을 언론서비스팀으로 변경했다.

/김영준기자 kyi@kyeongin.com

적수없는 유도 정보경 ‘태극마크’

KBS대회 여자부 48kg 우승

2위권과 포인트 점수차이 커

25일 국가대표 최종확정 발표

‘여자 유도 경량급 간판’ 정보경(안산시청)이 제53회 KBS전국체급별유도선수권대회 여자부 48kg급에서 1위를 차지하며 태극마크 획득을 사실상 확정했다.

정보경은 24일 경북 경산실내체육



여자 48kg급 결승에서 이세영(인천 동구청)을 상대로 빗당겨치기 한판승을 거둬 우승했다.

국내 적수가 없는 정보경은 2위권과 포인트 점수에서 크게 앞서 있어

관에서 2014 세계유도선수권대회 및 인천아시아게임 파견 국가대표 최종 평가전을 겸한 대회 첫날

국가대표에 뽑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대한유도회는 국가대표 선발 1-4차전 결과를 토대로 25일 남녀 국가대표를 최종 확정해 발표한다.

1회전에서 이해경(용인대)에 안뒤축걸기로 유효승을 따낸 정보경은 2회전에서도 이세영을 빗당겨치기로 한판을 따내 승승장구했다. 준결승에서 전민선(충북도청)을 어깨로메치기 한판으로 승리한 정보경은 패자부활전을 통해 결승에 오른 이세영을 또한번 빗당겨치기로 한판을 따내 1

위에 올랐다. 여자 57kg급에선 김잔디(양주시청)가 결승에서 권유정(한체대)을 누르고 정상에 올랐으며, 63kg급의 정다운(양주시청)도 결승에서 박지윤(용인대)을 꺾고 1위를 차지하며 국가대표 획득을 눈앞에 뒀다. 또 남자부에선 김원진(용인대)이 60kg급 결승에서 최인혁(용인대)을 물리치고 우승했으며, 안창림(용인대)도 73kg급 결승에서 이영준(코레일)을 꺾고 체급 우승자가 됐다.

/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

미혼에 줌줍 춘다면 ‘레이디즈’로



내년 1군 무대에 진출하는 프로야구 제10구단 수원 kt 위즈가 2015년에 활약할 치어리더를 인터넷 인기투표와 공개 오디션 ‘레이디즈(Ladywiz)’를

찾아라(가칭)’를 통해 선발한다고 24일 밝혔다.

10~20대 미혼 여성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관련 업계 경력자와 연고 지역인 수원시민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지원자는 구단 홈페이지(ktwiz.co.kr)에서 참가 신청서를 내

려받아 작성한 뒤 프로필 사진과 소개 영상 등을 첨부해 25일부터 7월3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kt는 1차 서류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자 20명이 선발되면 구단 홈페이지에 공개, 최종 점수에 30%를 반영할 인터넷 인기투표를 한다. 최종 심

사는 다음 달 20일 수원지역에 특설 무대를 마련해 공개 오디션으로 진행하며 오디션 점수 70%와 인터넷 인기투표 점수를 합산, 총 6명을 선발한다. 합격자는 2년간 kt구단 전속 치어리더에 공개, 최종 점수에 30%를 반영할 인터넷 인기투표를 한다. 최종 심

| 스포츠 로고아웃 |

FC안양-하이트진로 맞손

프로축구 K리그 챌린지(2부리그) FC안양이 국내 주류브랜드 (주)하이트진로와 손을 잡는다. FC안양과 (주)하이트진로는 이달부터 올 시즌 종료 시까지 관내 주요 상권을 포함한 의왕, 과천 등 총 8개 상권, 240여개 후원업소와 ‘FC안양과 함께하는 행운복권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하이트진로는 뉴 하이트(New hite) 및 드라피페니시d 1병을 판매할 때마다 100원을 FC안양 후원금으로 적립하고, 쌓이 없는 100% 당첨 행운복권을 증정한다. FC안양은 2014 홈 유니폼, 공식 사인볼, 홈경기 관람권 등을 행운복권의 경품으로 제공한다.

사이클 구분광 전국대회 금3

‘사이클 유망주’ 구분광(의정부중)이 2014 KBS 양양 전국사이클선수권대회 남중부에서 3관왕에 올랐다. 구분광은 24일 강원도 양양 벨로드롬에서 열린 대회 3일째 남중부 단체 스프린트 순위결정전에서 팀 동료 주민을, 이성우와 호흡을 이루며 1분09초951을 기록, 송파중(1분10초900)을 꺾고 팀 우승을 견인했다. 이로써 구분광

은 500m 독주경기, 200m 기록경기 우승에 이어 3번째 금메달을 획득했다.

수영 정재윤 인천선발 2관왕

‘인천 수영의 기대주’ 정재윤, 고미소(이상 인천체고), 박진영(안남고) 등이 전국체전 인천대표 선발전을 겸한 2014 인천광역시연맹회장배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다. 정재윤은 24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서 열린 대회 남고부 점영 200m 결승에서 2분2초69로 같은 학교의 박권우(2분5초45)를 꺾고 우승, 점영 100m(55초47)에 이어 2개의 금메달을 따냈다.

경기생체대축전 관계자회의

제25회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이하 대축전) 관계자회의가 24일 오전 수원 시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박홍식 수원시 문화교육국장, 최봉근 수원시생활체육회장, 31개 시·군생활체육회 및 경기도중독예방연합회 사무국장 등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선 대축전 진행사항과 참가요강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대축전은 오는 10월 17~20일까지 4일간 개최되며, 개회식은 18일에 열린다.

/김영준기자 kyi@kyeongin.com



뮤지컬 프리실라 화려한 ‘9人9色’

여장남자 이야기… 초연 앞두고 캐릭터 포스터 공개

조성하·마이클 리·이지훈·조권등 변신 ‘깜빡’ 기대감

한국 초연 무대를 2주 앞둔 뮤지컬 ‘프리실라’의 캐릭터 포스터가 공개됐다.

토니상, 아카데미상, 드라마데스크상, 올리비아상 등 메이저 어워즈의 의상상을 휩쓴 화려한 의상을 입은 배우들의 모습이 공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프리실라’는 동명의 호주 영화(1994)를 원작으로, 드래그 퀸(Drag Queen·여장 남자) 세 사람이 버스를 타고 사막 횡단 여행을 하는 과정을 그린다. 마돈나, 신디 로퍼, 티나 터너, 도나 썸머 등 전 세계가 열광한 히트 팝 28곡의 넘버와 함께 500여벌의 화려한 의상으로 호주 초연에서 대히트를 기록한 작품이다.

왕년의 스타로 우아한 매력을 지닌 ‘버나넷’ 역은 배우 조성하와 고영빈, 김다현이, 아들과 만나기 위해 프리실라 팀을 꾸리는 ‘틱’ 역은 뮤지컬 스타 마이클 리, 이지훈, 이주광이 맡았다. 인기와 실력 모두 최고지만 트러블 메이커인 아담 역에는 조권과 김호영, 유승엽이 캐스팅됐다. 이들은 짙은 메이크업과 화려한 가발, 관능적인 의상으로 완벽하게 여자로 변신했다.

마이클 리는 “연습동안 5kg이나 빠질 정도로 매진 중”이라며 “뮤지컬 배우 출신인 아내의 코치로 쇼걸 연습을 하고 있다. 아들 벤지와와 쟁한 드라마를 기대해 달라”고 전했다. 조권은 “20벌 이상의 의상을 킥 체인징할 땐 힘들이 죽는 줄 알았다”면서 “하지만 신나는 작품이라 연습도 재미있다. 나의 우상 마돈나의 넘버를 무대 위에서 마음껏 펼치고 싶다”고 말했다.

뮤지컬 ‘프리실라’는 오는 7월 8일~9월 28일(프리뷰 7월 3~6일)까지 서울 LG아트센터에서 공연한다.

/민정주기자 zuk@kyeongin.com



맨위 오른쪽 사진부터 시계 반대방향으로 조성하, 유승엽, 고영빈, 이주광, 마이클 리, 김호영, 이지훈, 김다현, 조권의 뮤지컬 ‘프리실라’ 캐릭터 포스터.

서이숙·이재용·황석정 합류 ‘야경꾼 일지’ 카리스마 UP

최강 연기파 배우 ‘서이숙·이재용·황석정’이 MBC 새 월화미니시리즈 ‘야경꾼 일지(이주환 연출, 유동윤·방지영 극본, 래몽래인 제작)’에 합류,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안방극장을 휘어잡을 예정이다.

‘트라이앵글’ 후속으로 오는 7월 28일 첫 방송 예정인 ‘야경꾼 일지’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귀신을 부정하는 자와 귀신을 이용하려는 자 그리고 귀신을 물리치려는 자, 세 개의 세력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경쾌한 감각으로 그려내는 판타지 로맨스 활극이다. ‘서이숙·이재용·황석정’은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로

연기파 3인 MBC 새 월화드라마 출연

조선시대 배경 왕족·권력자·예언자역

내공 ‘탄탄’ 안방극장 휘어잡을 듯

작품마다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있는 ‘최강 연기파 배우’들이다. 이들은 ‘야경꾼 일지’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연기 내공을 아낌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드라마 ‘기황후’를 통해 개성 넘치는 말투와 표정으로 돋보이는 존재감을 발휘했던 서이숙은 이란(정일우)의 친할머니인 ‘청수대비’ 역을 맡아 냉철한 카리스마를 뽐내며 다시 한 번 사극에서 강렬함을 선사하게 된다. 서이숙이 맡은 청수대비는 정치적 수완이 뛰어난 기품있고 포스 넘치는 왕실의 큰 어른이다. 특히 적통왕자인 이린을 걸으면 엄격하게 대하지만 사실은 그에게 대한 큰 사랑을 갖고 있으며 그가 야경꾼으로 활동하게 되자 뒤에서 숨은 조력자로 야경꾼들을 은밀하게 후원하는 인물이다.

서이숙과 함께 ‘기황후’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역 연기로 눈길을 끈 이재용은 박수련(서예지)



왼쪽부터 서이숙, 이재용, 황석정
/셀 미디어·점프 엔터테인먼트 제공

번)의 아버지이자 무석(정윤호) 번)의 외삼촌인 ‘박수종’ 역을 맡아 권력욕에 휩싸인 조정의 실세로 인상 깊은 연기를 선보인다. 이재용은 선왕의 친위장수이자 병권을 장악한 실세로서 남다른 포스를 뽐내는 것은 물론, 딸 서예지를 지키기 아끼는 ‘딸 바보’로서의 상반된 모습까지 보여준다.

뿐만 아니라 드라마 ‘비밀’에서 맛깔스러운 연기력으로 미친 존재감을 드러냈던 황석정은 앞날을 보는 재주를 가진 백두산 마고족의 ‘당굴어미’ 역으로 등장한다. 황석정은 같은 마고족인 도하(고성희) 번)의 정신적 지주이자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돕는 인물이다. 지금까지와는 색다른 이미지로 안방극장을 찾아온다.

남다른 연기내공을 지닌 ‘서이숙·이재용·황석정’이 ‘야경꾼 일지’ 출연을 확정지으며 시청자들에게 극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 이들은 정일우·정윤호·고성희·서예지 등 주연 배우 4인방의 신선한 캐스팅에 무게감을 더해 주며 ‘야경꾼 일지’가 한층 풍성한 매력을 가진 드라마가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야경꾼 일지’ 제작사 래몽래인측은 “검증된 최고 연기파 배우 서이숙·이재용·황석정씨의 합류로 더욱 강렬한 인상을 주는 드라마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카리스마 넘치는 조연진과 통통 튀는 주연진의 라인업으로 무장한 ‘야경꾼 일지’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신태기자 sintae@kyeongin.com

케이윌 ‘원 파인 데이’

미니앨범 내일 발표

가수 케이윌(본명 김형수·33)이 26일 다섯 번째 미니앨범 ‘원 파인 데이’(ONE FINE DAY)를 발표한다.

24일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새 앨범에는 가수 출신 소속 프로듀서인 더네임이 작곡한 타이틀곡 ‘오늘부터 1일’을 비롯해 ‘넌 너무 예뻐’, ‘스위트 걸’, ‘화창한 날에’, ‘사귀어볼래’, ‘끝번호’ 등 6곡이 수록됐다. 이날 공개된 ‘오늘부터 1일’의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에는 SBS ‘일요일이 좋다-룸메이트’를 통해 ‘혼남’으로 떠오른 배우 박민우와 씨스타의 소유가 사랑을 시작하는 풋풋한 연인으로 등장했다. 신에 감동 베풀어 연출을 맡아 ‘보통의 사람’이라는 곡의 테마에 맞게 공감 가는 에피소드를 풀어냈다.

그간 케이윌의 뮤직비디오에는 이유(가슴이 뻐다), 여진구와 지창욱(니가 필요해), 서인국과 안재현(이러지 재빨리), 인피파도 열과 씨스타(다슬리)를 불러줬다. 엑소 찬열(손스럽게 왜 이래) 등 매번 화제의 스타가 출연했으며, 이날 선보인 뮤직비디오 티저 영상도 호응을 얻고 있다.

/황보

신강인 엔터티어로
새롭게 태어난 수림공원 웨딩홀

수림공원 웨딩홀·부페

- * 결혼식 들
- * 백일
- * 회갑
- * 각종모임

문의전화 (032)434-3000

TV 프로그램 25일(수)

경인일보를 CJ헬로TV를 통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채널안내 : CJ헬로TV 데이터방송 메인 → 게임&조이 채널 → TV신문

◆수원모뎀그린룸◆ 225-8282

	KBS 1	KBS 2	MBC	SBS	OBS	채널 A
5	5:00 KBS 뉴스 5:10 내고향 스페셜 6:00 KBS 뉴스광장 7:50 안간극장	4:30 여가는 브라질 <일본·콜롬비아> 7:00 여가는 브라질 <그리스·코트디부아르>	5:00 2014 브라질 월드컵 C조 예선 <일본·콜롬비아> 7:00 브라질월드컵북미 뉴스투데이 7:50 <쇼> 모두 다 김치	4:00 브라질 2014 C조 예선 <일본·콜롬비아> 7:00 브라질 2014 월드컵 모닝와이드	6:00 생방송 OBS 7:25 특집한 연예뉴스 (재)	5:40 TV의학캐비 (재) 5:50 그림 그사람 (재) 7:00 6·25특집다큐 기억의 땅 DMZ(재)
8	8:25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00 TV소설 순금의 땅 9:4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하이라이트	9:30 MBC 생방송 9:45 2014 브라질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1부	8:30 <쇼> 너만의 당신 9:10 브라질월드컵 하이라이트	8:15 건강요리대백과 마법의 식탁 8:45 사람, 산 9:45 OBS 뉴스 945	8:00 새시도지사에게 듣는다 8:15 굿모닝 A 9:00 신문이야기 들춰구소
10	10:00 제64주년 6·25전쟁 기념식 10:40 강연 100℃ 특선 10:55 토크 생활토크 (재) 11:00 6·25특선이코르 내 기억 속의 전쟁 잉카와 학교	11:4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아레나	10:45 7기분 좋은 날 11:55 글 글 글	10:00 나는 전설이다 2 (재) 11:00 Music & Movie 11:30 TV 주치의 (재) 11:45 OBS 뉴스 <경인투데이>	10:10 백트 10 11:20 정치이야기 是是非非	
12	12:00 KBS 뉴스 12 1:00 라브 인 아시아 (재) 1:55 바른말 고운말 (재)	12:50 수목 드라마 <골든 크로스> (재)	12:00 MBC 정오뉴스 12:20 2014 브라질 월드컵 하이라이트 올라 브라질 1:20 <쇼> 왔다 장보리 (재)	12:00 브라질 2014특집 SBS12 뉴스 12:30 브라질 2014 하이라이트	12:05 여왕자 비디오편 (재) 1:05 스토리VIEW <올나다큐>	12:20 뉴스특보 1:30 뉴스특보
2	2:00 2014 창업 프로젝트 천지창조 3:00 뉴스 토크	2:00 KBS 뉴스타임 2:10 생활의 발견(재) 3: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3:25 유로링 동물탐정 (재) 3:55 TV유치원 풍년공	2:35 리얼스토리 논 (재) 3:00 MBC 경제뉴스 3:05 몽가 쇼스타 3:35 헬로키즈 아하! 과학탐험대 2	2:00 브라질 2014특집 SBS 뉴스 2:10 도시의 법칙 (재) 3:10 SBS 이슈 인사이드	2:05 여왕자 비디오편 (재) 3:05 OBS 에니월드 3:55 자라기 TV	2:40 직언직설 3:50 정용권의 시사법
4	4:00 시사진단 4:55 토크생활토크 (재) 5:00 KBS 뉴스 5 5:20 동물의 세계 5:40 세상은 넓다	4:25 코파제전의 동화 수사대 (재) 4:55 위기탈출 넘버원 (재)	4:25 특? 특? 키즈스쿨 4:55 글 글 글 5:00 <브라질월드컵 특집> MBC 이브닝뉴스	4:00 꿈의 보석 프리즘스톤 4:30 푸르기 탐구생활 5:00 브라질 2014 특집 SBS 뉴스파라이드 5:30 날씨와 생활 5:35 내 마음의 크레피스	4:45 OBS 뉴스 & 이슈 5:45 TV 주치의	4:50 캐드나만
6	6:00 6시 내고향 6:55 시청자 클럽 우리사는 세상 7:00 KBS 뉴스 7 7:30 총인 나리 운동본부 2	6:00 KBS 글로벌 24 6:30 생생한토크 7:50 <쇼> 빠꾸기 동지	6:20 불만제로 UP 7:15 <쇼> 소원을 말해봐 7:55 브라질월드컵 특집 MBC 뉴스데스크	6:05 브라질 2014특집 생방송 투데이 7:20 <쇼> 사랑만 할래	6:00 우수이아가는 길 6:55 오락차차 7시 7:45 특집 OBS 뉴스 M	6:00 김승현의 뉴스 TOP10 7:20 뉴스 특보
8	8:25 <쇼> 고영빈이 있다 9:00 KBS 뉴스 9	8:30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월드컵 투데이 8:55 배타면	8:55 <쇼> 엄마의 정원 9:30 리얼스토리 논	8:00 브라질 2014특집 SBS 8 뉴스 8:45 브라질 2014 특집 월드컵 페스트 9:00 한밤의 TV 연예	8:30 오늘의 월드컵 뉴스 9:00 특집한 연예뉴스 9:50 리얼 대탐험	8:20 라팔카메라 24시간 9:30 특집 채널A 종합뉴스
10	10:00 6·25 특집다큐 전쟁 고아 구출작전 10: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11:30 KBS 뉴스라인	10:00 수목드라마 <조선 총집> 11:15 2014 브라질 월드컵 특집 다큐멘터리-축구기의 기원	10:00 수목미니시리즈 <개과천선> 11:15 황금아장 라디오스타	10:00 드라마 스페셜 <너희들은 포위됐다> 11:15 도시의 법칙	10:45 OBS 京仁 뉴스라인 11:05 나는 전설이다 2	10:50 채널A 스포츠 뉴스 11:00 먹방쇼 맛의 전설
12	12:30 네트워킹기획 문화산책 1:10 소중함 나눔의 이야기 (재) 2:00 수한상 상영작 (재) 3:00 KBS네트워킹 이야기77 있는 풍경 3:35 대한민국 창업 프로젝트 글로비 CEO, 창·창원 길을 걷다 (재)	12:15 여가는 브라질 <보스·아 허르체코비나·이안>	12:35 2014 브라질 월드컵 F조 예선 <나·아지리아·아르헨티나> 3:00 2014 브라질월드컵 리포트	12:35 브라질 2014 F조 최종 <나·아지리아·아르헨티나>	12:05 나는 전설이다 1:05 Music & Movie (재) 1:35 여왕자 비디오편 (재)	12:20 모쿠드라마 싸인 (재) 1:30 갈 때까지 가보자 (재) 2:40 TV 약학재민 2:50 신대동여자와 스페셜

김나인의 오늘의 운세 25일 (음 5월 28일 丁卯)

31세 먼저 먹고 먼저 마시지않는것이 뒷사람 대하는 길이고, 43세 확실한 계산이 나오면 한자게 전진하는것이 승리하는 길, 55세 수하자의 말도 필요하면 수용하는것이 자기발전에도 이롭고, 67세 재물보다 사람이 우선이니 믿고 과감하게 투자하도록,

30세 비장의 무기는 감추는것이 이로우니 비밀 잘 지키도록, 42세 자신의 장점보다 상대방의 허점을 공격하는것이 유리하고, 54세 말보다 행동이 우선이니 문서화시키는것이 중요, 66세 건강이 장액생기고 병원을찾을일 있게되니 치료 잘받도록,

29세 취업등의 일로 사람만나나 이익없으니 무리하지말기를, 41세 부부이성간 전투하나 쓸데없는 고집이 일을 망칠수도, 53세 자신의 미래는 스스로 결정짓는것이 대부분의 길이고, 65세 힘이었을때 공격하지않는것이 이로우니 자중하도록,

37세 이성문제도 고민았으나 길이 아니면 나서지말기를, 49세 환경이 불리하면 빨리 빠져나오는것이 이로우니 서두르고, 61세 기다리는일 해결되면 책임질일 생기니 한발 물러서도록, 73세 남을 속이면 일단 복잡해지니 진실한 마음갖고 출발할,

36세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것이 신변에 이로운 길, 48세 돈이 많다고 무조건 성공하는것은 아니니 무리한 투자는 자제, 60세 남의 일에 개입하면 책임질일 생기니 한발 물러서도록, 72세 마음속에 근심있다면 자존문제이니 먼저 손내밀도록,

35세 뒷사람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선입의 결과이고, 47세 뒷사람과 대립하는일 아무런 이익없으니 믿고 따르도록, 59세 정당한 길이라면 확신하고 움직이는 것이 이익행기, 71세 더 이상 투자는 위험하니 무리한 전진은 하지말기를,

28세 사람 너무 믿으면 곤란한일 생기니 돈거래 신중하, 40세 길이 아니면 나서지않는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52세 속이 들여다보이는 뻔한 거짓말은 하지않아야 이롭고, 64세 무모한 고집은 폐가방신의 지름길이니 가족뜻 따르도록,

28세 사람 너무 믿으면 곤란한일 생기니 돈거래 신중하, 40세 길이 아니면 나서지않는것이 가족을 지키는 지름길이고, 52세 속이 들여다보이는 뻔한 거짓말은 하지않아야 이롭고, 64세 무모한 고집은 폐가방신의 지름길이니 가족뜻 따르도록,

34세 이성친구 만나 데이트할일 생기니 좋은인연 잘 이어가도록, 46세 명예로운 길이 열리니 망설이지말고 따르는 것이 이익, 58세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니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70세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 무리한 짝은 자제,

34세 이성친구 만나 데이트할일 생기니 좋은인연 잘 이어가도록, 46세 명예로운 길이 열리니 망설이지말고 따르는 것이 이익, 58세 바깥일보다 집안일이 우선이니 직접 나서서 해결하도록, 70세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니 무리한 짝은 자제,

39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 확산하고 출발하면 만사형통, 51세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것이 아니니 진화타검의 전술이 필요하고, 63세 금전문제 해결되고 문서이의 많아지니 만사형통, 75세 정리할일 있다면 마무리하고 바로 해결짓는것이 이로운 길,

39세 새로운 환경이 펼쳐지니 확산하고 출발하면 만사형통, 51세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것이 아니니 진화타검의 전술이 필요하고, 63세 금전문제 해결되고 문서이의 많아지니 만사형통, 75세 정리할일 있다면 마무리하고 바로 해결짓는것이 이로운 길,

33세 믿고 의지하는 사람도 언제가는 인연의 끝은 있는 것이고, 45세 지나치게 겸손하면 남에게 기망당하게 되니 중심 바로하도록, 57세 기회는 있을때 잡는 것이 좋으니 한치도 망설이지말고, 69세 약간의 변동은 무방하나 무리한 투자는 위험하니 조심하도록,

32세 마음이 급하면 중생에서 벗어나게 되니 독선적 행동은 자제, 44세 돈문제로 지인과 다투나 자신에게도 책임이 있으니 화해의 길을, 56세 유언비어로 때로는 필요하니 허점을 공격하고, 68세 비현실적인 꿈은 빨리 정리하는것이 마음부담 줄이는 길,

한국역리연구소 (031)237-0693

클럽 돈텔마마

6월 25일 Grand Open

부킹문화의 전설 강남돈텔마마 수원 입성!!



QR코드 접속 후 '돈텔마마'

영상을 감상하세요.

◀ 돈텔마마.com

가자!

돈텔마마

American Style Cabaret & Night Club

Don't tell MaMa

ALL LIVE ENTERTAINMENT EVENTS

대표전화 031.898.9644



위치 ▶ 수원시청 맞은편

위례신도시 열공급 증설 난항 설명회로 ‘주민 공감’ 주춧돌

서울 송파구와 성남·하남시에 걸쳐 조성되는 위례신도시내 집단에너지 공급 사업자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설명회 개최로 공감대 형성에 나섰다.

위례신도시내 열공급 사업자인 (주)위례에너지서비스는 지난해 11월과 올 1월 사업절차에 필요한 환경영향평가 결과 주민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했다.

그러나 일부 입주예정자들은 ‘동의없이 용량을 증설, 주민 안전과 환경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용량 축소 등을 요구하며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하남시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해 왔다. 이에 (주)위례에너지 서비스는 3월과 5월 두 차례 주민 설명회를 추진했으나, 입주예정자들의 반발로 무산됐었다.

(주)위례에너지 서비스는 지속적인 주민 설득 과정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22일 진행된 입주예정자 설명회

일부 입주예정자 피해 우려

요금절약·환경저감 계획

감시단 발족 관리 제안도

에는 주민 100여명이 참석하는 등 주민 공감대 형성의 단초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 위례에너지 서비스측은 “지난 2008년 사업초기에 계획된 설비는 6년이 지나 현재 열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구형 모델로 국내에 도입조차 되지 않는다. 최신 고효율 설비로 변경해 주민들이 난방과 온수 사용요금을 절감할 수 있도록 했다”며 집단에너지 공급 용량 증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최신 설비는 과거 구형 설비보다 환경저감 설비가 강화돼 용량 증설에 따른 천연가스 사용량이 늘더라도 오히려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은 39% 감소하게 되며, 최신형 질

소산화물 저감 장치를 도입, 5ppm(현행 기준 20ppm)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환경피해와 관련해서는 주민감시단 발족을 통해 철저히 관리하고 해소하겠다는 입장이 밝혔다.

위례열병합발전소는 환경영향평가가 진행중이며 다음달 중순 평가를 완료해 오는 11월 착공을 거쳐 2017년 3월 준공 예정이다.

위례에너지 서비스 관계자는 “용량변경이나 부지인정 등 사업변경이 발생할 경우 최소 18개월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8년 하반기에나 준공돼 주민 입주시기에 맞춰 난방과 온수 공급을 할 수 없다”며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고 최대한 많은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앞으로 두 차례 더 추가 설명회를 가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성남 민선 6기 첫발 ‘시민권리선언’

안전·건강 등 8개 분야

내달1일 출범식서 약속

성남시는 다음달 1일 시청 광장에서 ‘시민권리선언’과 함께 민선 6기 출범을 알리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약속’을 키워드로 진행되는 이날 행사에는 시민 400여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 자리에서 안전·건강·교육·삶터·경제·문화예술·아이여르

신·일자리 등 8개 분야의 시민권리선언식을 갖는다.

선언문은 범죄와 재해로부터 안전한 권리와 경제적 이유로 건강을 위협받지 않을 권리, 부담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등을 담고 있다.

또 더 나은 삶을 보장받을 권리와 경제적 발전의 혜택을 함께 할 권리, 자유롭게 문화를 즐기고 예술에 참여할 권리, 아이들과 어른이 삶의 행복을 누릴 권리, 안정된 일자리 안정된 소득을 유지할 권리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밖에도 시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한 연령별 시민과 장애인, 다문화 가정 등 100명이 참여해 시민과의 약속을 상징하는 시민 손도장 찍기 이벤트도 갖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수정·충원 본시가지와 분당지역 전체에서 안정적인 득표를 얻어 재선에 성공한 만큼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성남’을 기치로 내걸어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통합과 협치 행정을 펴 나겠다”고 말했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햇사레 과일공동조합법인이 햇사레 복숭아 ‘설행도’ 출하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첫물 햇사레복숭아 달콤상큼

이전 햇사레복숭아가 올해 시장에 첫선을 보였다.

햇사레 과일공동조합법인은 지난 23일 이전 관내 생산농가에서 재배된 조생종 복숭아 ‘설행도’ 41개 상자를 서울 강서도매시장에 첫 출하했다.

지난해 첫 출하 시점보다 8일 앞선

이전서 조생종 41상자 출하

이상고온 전년 비 8일 앞서

것으로 이상고온에 따른 개화시기 영향때문으로 분석됐다.

출하 상품은 연초부터 극심한 날씨 변화와 이상기온 등 열악한 재배환경에도 불구하고, 당도와 색깔이 탁월해 우수한 상품성 평가를 받았다.

조합 관계자는 ““풍부한 햇살을

받고 탐스럽게 영근’이란 뜻만큼 햇사레 복숭아의 인지도는 소비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본격 출하기를 맞아 홍보를 강화하는 등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성남·화성 여름방학 학생 영어캠프

말하기·발표 체험 ‘자신감 UP’

초 1~중 2년 750명 선착순

성남시는 여름방학을 이용해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기로 하고 학생 75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어캠프는 ‘모험의 나라로’를 주제로 다음달 28일~8월15일까지 3개 차수에 걸쳐 운영된다. 참가 목적과 학년에 따라 영영캠프(초등1~3학년)와 스피킹 캠프(초등3~6학년), 방학캠프(초등3~중등2)로 나눠 차수별 250명씩 원어인 강사와 실제

영어환경에서 말하기 및 발표 위주의 체험활동을 한다.

영영캠프는 5일 과정의 통합형 수업으로 활동위주 통합교과 방식의 수업을 진행한다. 반별 10~12명씩 수준별로 나눠 3차례(7월28일~8월1일, 8월4~8일, 8월11~15일) 운영된다. 참가비는 21만원이다.

스피킹 캠프는 2주(10일) 토익형 수업으로 학생 50명이 다음달 28일~8월8일까지 영어발표연습에 집중하게 된다. 영어 연설문 논리적으로 작성하기와 원고 첨삭지도, 클립할 등, 발표회 등 프로그램에 참여해

영어 말하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른다. 참가비는 42만원이다.

방학캠프는 4박5일간 숙식형 수업으로 그룹별 12~14명씩 반을 편성해 세계 곳곳의 테마파크, 탐승기구의 원리와 안전장치, 놀이공원의 다양한 직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 패레이드를 기획, 공연한다. 7월28일~8월1일, 8월4~8일, 8월11~15일 3차례 운영되며 참가비는 21만원이다.

참가희망 학생은 원하는 캠프와 날짜를 선택, 성남영어마을 홈페이지(http://www.snet.or.kr)나 전화(031-725-5600)를 통해 신청·접수하면 된다.

성남/김규식기자 siggie@kyeongin.com

초 3~6년 합숙... 내달 8일까지 접수

화성시는 ‘화성시 E-School 영어캠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화성시 E-School 영어캠프’는 수원대학교 국제어학원에서 오는 7월28일부터 8월15일까지 3주간 운영하며, 관내 초등학교 3학년에서 6학년을 대상으로 158명(저소득층 49명 포함)을 선발한다.

영어캠프는 합숙으로 진행된다. 오전 6시 영어 구명에 맞춘 체조로

시작해 밤 10시 취침때까지 원어민 영어교수와 함께 읽기·쓰기·말하기·듣기 등 주제별 수업, 원어민극, 스포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모집기간은 오는 7월 8일까지로 화성시 영어캠프 홈페이지(http://eslcamp.suwon.ac.kr)를 통해 접수한다. 참가 대상은 7월12일 컴퓨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하며, 명단

은 화성시 영어캠프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참가자는 학생 1인당 소요비용의 30%에 해당되는 45만원만 부담하고 저소득층 자녀의 경우 참가비 전액을 시에서 지원한다.

화성시 영어캠프는 영어권 문화와 생활체험 기회를 제공해 학습 동기 유발은 물론 사고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시작했다. 지난해까지 모두 16회 진행돼 3천 300명의 학생들이 수료장을 받았다.

화성/김학식기자 marskim@kyeongin.com

하남 청소년 종합예술제 내달 19일

하남시는 다음달 19일 하남문화예술회관 이랑홀과 덕포정소년 문화의 집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개최한다.

종합예술제 우승자에게는 오는 9월1~3일까지 경기도문화의 전당과 수원 아와음악당에서 열리는 ‘제22

회 경기도청소년 종합예술제’ 하남시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참가 종목은 한국음악·대중음악·한국무용·외국무용·댄스·사물놀이·시·산문 등 4개 부문 14개 종목이다. 대회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초

등학교 3학년~고등학교 3학년)은 학교장 추천을 받아 다음달 11일까지 덕포정소년 문화의 집으로 우편 또는 대표로 출전하게 된다. 비학생의 경우 청소년 관련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문과 덕포정소년 문화의 집(031-794-7142).

하남/최규원기자 mirzstar@kyeongin.com

6.25 전쟁영웅 ‘美 해병마’ 동상 세운다

연전 네바다 전초전투서 하루 51회 왕복 탄약 운반 전공



매항리 네바다 전초전투 영웅 아침해.

6·25한국전쟁 영웅 미 해병마(馬) ‘아침해(상사)’(경인일보 2013년 5월 10일자 21면보도) 동상이 연전군 네바다 전초전투 현장에 건립된다.

지난해 7월 미국 캘리포니아 미해병대 공원에 기념관이 건립된 아침해는 정전 61년만에 고국 참전현장에서 그 위업을 드러낸다.

군이 5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내년 초께 착공하는 아침해 동상건립 부지는 매항리 네바다(베가스·레노·카슨) 전초전투 지역과 가까운 장남면 일원에 마련한다.

군은 26일 미해병의 집 협회(회장·박용주) 및 미해병1사단과 아침해 동상 건립의 세부 진행 과정에 대해 논의를 예정했다.

또한 미해병 1사단과 자매결연을

추진해 한·미우호관계를 증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아침해”는 미 해병 1사단이 1953년 3월말 5일동안 중공군과 격전을 치른 연전군 장남면 매항리 네바다 전초전투에서 단 한 번의 걸탐색 후 혼자서 하루동안 51회 고지를 왕복하며 탄약과 포탄 4t을 운반했다.

1분당 500여발의 빗발치는 포탄을 뚫고 책임을 완벽히 해낸 무모한 일원에 마련한다.

1959년 미 해병대 최초로 하사계

‘말과 예술이 만났네’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

27일부터 과천 렛츠런파크

‘제1회 코리아 승마 페스티벌’이 2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과천시 주암동 렛츠런파크 서울(옛 과천 서울경마공원)에서 열린다.

민간 주도로 승마와 예술이 만나는 첫 행사다. 사단법인 한국승마인이 주최하고 농림축산식품부·경기도·한국마사회·농협중앙회 등이 후원한다.

이번 행사에서는 말의 아름다움과 기량, 인간의 예술을 접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뮤지컬을 선보인다. 장애물·마장마술 등 승마와 성악·마임·일렉기타·드럼·무용 등이 어우러진 공연이 펼쳐진다.

또 말의 종류와 승마 종목, 승마 경기 관람 요령 등을 배우고 어린이는 승마를 체험할 수 있다. 말 산업관도 설치된다.

이밖에 석고마임·비보이·레이저쇼 등 다양한 볼거리와 부대행사가 마련되며 말 산업 관련 국제 심포지엄도 열린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thekef.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정부/윤재준기자 bioc@kyeongin.com

면역·신진대사 향상

연전 요가교실 모집

연전군보건의료원이 파워요가교실 참가자를 모집한다.

파워요가는 신체자세를 바로 잡아주고, 인체 내부의 면역성과 세포의 자생력을 높이며, 신경 호르몬과 신진대사 기능을 향상시켜 주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프로그램은 8주간 16회 진행된다.

신청은 관내 거주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오는 7월4일까지 보건의료원 운동처방실로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보건의료원 관계자는 “요가 프로그램이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준다”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연전/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광고문의 수선 031) 231-5252 인천 032) 861-3204

부동산 경.공매 투자자 클럽에 당신을 모십니다.

◆기업부동산 입지분석, 타당성 조사 ◆수익부동산 경매 알선 ◆소액투자,내집마련 상담



비상장기업 M&A

【IPO, 우회상장, 기업매도·매수, 인수합병, Funding, SPAC】

(주)콜링투

TEL. 02-597-8338, 032-868-3388 www.calling2.com

- ▶매출: 70억~1000억 비상장기업 ↔ 상장기업 간
- ▶전국 외감법인(약 2만개) 업종별 DB관리
- ▶경제학박사와 사업실무자 (코스닥, 벤처기업의 CEO 출신)가 직접 컨설팅

성은 부동산 중개(주) rkp.co.kr

032-324-8855



빠르고 안전한 콜밴

고객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정성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집엔콜

신개념 운송서비스!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시간대, 언제든지 OK!

www.jimncall.co.kr 예/약/문/의

253-6666



상속의 한정승인 공고

2014. 2. 14. 피상속인 망 박종남(410212-1*****, 최종주소 : 남양주시 진전읍 해미로3로 37, 1702동 1301호(휴먼시아)의 사망으로 상속인 박희의 1인(박은영)은 상속재산에 대해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의 한정 승인을 신청하였으며(2014나단765호) 2014. 6. 18일자 수리되었음을 공고 합니다. 피상속인 망 박종남과 채권관계에 있는 분들은 공고 의일을 기준으로 2개월 이내에 아래 연락처로 채권관계를 신고하여 주십시오. 만약 위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은 채권에 대해서는 이후 상속재산으로 변제받지 못합니다.

2014년 6월 25일

공고인 : 박혁, 박은영
주 소 : 성남시 분당구 내정로 185, 207동 1003호 (수내동, 양지마을)

학교옆 대규모 공사장... 아이들 ‘공해·위협’

구리 인창동 아파트신축 소음·비산먼지 수업 방해

대형트럭 왕래 ‘등하굣길 위험’ 학부모들 거센반발

구리의 한 초등학교 주변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비롯된 소음과 비산먼지, 등하굣길 안전문제 등으로 인해 학부모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시와 인창초교, P건설사 등에 따르면 구리시 인창동 일대서 지난해

부터 공동주택 신축 공사가 실시됐다. 학교로부터 100m도 채 되지 않은 거리에서 대규모 공사가 벌어진 탓에,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염려한 학부모들의 근심은 지난해부터 시작됐다. 특히 공사가 활발해진 올초부터 학

교 주변에 대형 공사 차량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탓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졌다. 해당 학교는 시공사측과 학부모들간 몇 차례 면담도 추진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사현장에서 날아드는 먼지는 물론, 최근 들어 소음문제까지 심각해져 학생들은 수업에도 상당부분 방해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관계자는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끄러워서 창문을 열 수가 없는 지경이다”고 토로했다.

특히 건물이 상당 부분 높이 올라간 이후 공사장 방음벽마저 무용지물이 돼 소음 피해는 더욱 커진 상황이다. 지난 23일 시의 소음 측정 결과 해당 장소의 소음은 기준치인 65dB을 넘어선 것으로 드러나, 시는 수일 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상황이 이렇자 학부모들은 시에 연일 민원을 제기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학부모 A씨는 “공사가 진행되는 부분까지는 어쩔 수 없겠지만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뭔가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니냐”며 “가장 기본적인 안전도 취약하고, 교육 환경마저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말도 안되는 경우가 어딴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차량 진출입시 각별히 주의토록 시공사측에 통보했다”며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이종우·황성규기자 homerun@kyeongin.com



구리의 한 초등학교 인접지역에서 아파트공사가 한창이다. 학생들은 여기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와 소음, 드나드는 차량으로 인해 학습권 방해와 안전사고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화성에 온 세계 거대기업들

상의, 바이어 수출상담 성료

화성상공회의소(회장·민중기)와 화성시는 24일 화성상의 4층 컨벤션홀에서 ‘2014 화성기업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를 개최했다.

수출상담회에는 미국·중국·카자흐스탄 등 6개국의 유력 바이어 50명이 참가해 화성시 소재 우수 중소기업 270개사와 수출상담을 진행했다.

특히 연간 수입액이 1천만달러가 넘는 대형 바이어 10여개사가 참가해 상담열기가 뜨거웠으며, 수출 계약 체결에도 큰 성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플라스틱 재생 전문기업인 (주)성지 문중경 대표는 “이번 수출상담회를 통해 인도 바이어와 400만달러의 계약을 체결했다”며 “동남아 재생플라스틱 시장이 크게 성장할 것으로

보여 적극적으로 시장 개척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친환경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B사는 솔잎 추출액을 이용해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건강 기능식품을 인정받아 중국바이어와 5만 달러의 계약을 체결하고 추가 미팅을 진행하기로 했다.

미국의 한 바이어는 “평소 우수한 한국기업과 교감을 가졌고 한국제품에 대한 신뢰가 크기 때문에 이번 상담회에 참가했다”며 “오늘 상담을 진행한 업체들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중기 회장은 “이번 해외바이어 초청상담회를 계기로 화성지역의 중소기업들이 전 세계 소비시장으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화성/김학석기자 marskim@kyeongin.com

의정부경전철 운행·각종정보 내달 1일부터 ‘모바일 서비스’

의정부시는 스마트 단말기 등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운행과 관련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 오는 7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한다.

경전철 모바일 웹서비스가 시행되면 경전철 이용객은 실시간 배차간격, 역주변 시설 및 연계버스 정보, 이례적 상황 발생 등에 따른 긴급 표출공지 및 안내 전화 연결, 관리자 전자메일 서비스 등 기존 홈페이지보다 신속성이 향상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경전철과 연계된 주변 트레킹 코스 등 특화정보를 접할 수 있어 고객편의 증진 및 이용활성화가 기대된다. 의정부부/윤재준기자 bloc@kyeongin.com

경인일보 구독신청
031-231-5503

“20년 휴식처 천연림 훼손 절대 안돼”

용인시 ‘패소’ 대지산 전시장

허가 방침에 인근주민 ‘반발’

용인시가 소송에서 져 수지구 죽전동 대지산 인근 아산에 전시장을 허가하려 하자 인근 아파트 입주인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수지구 죽전동 476의 1일대 1만3천481㎡에 미술품 등을 전시할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4천986㎡ 규모의 전시장 신축을 허가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1년 전시장 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낸 K사에 대해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가 피소돼 1·2심 재판에서 모두 패소하자 상고를 포기하고 허가해줄기로 했다.

재판 과정에서 시는 해당 토지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시장 용도의 개발이 가능하지만 ‘보호가치가 있는 임야고, 주민들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는 점’ 등을 불허 사유로 제시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는 다음 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안건을 올려 건축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행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지 않을 수 없다”면서 “주민들은 그동안 사유 재산처럼 이용하던 숲을 잃게 돼 반발하지만, 사유지를 개발하려는 지주의 입장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S아파트 등 인근 주민들은 그러나 지난 주 시청을 향한 방문, 20년 가까이 휴식공간으로 활용되던 아산을 개발하는 것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입주민들은 “전시장 건축 예정지는 수림이 우거진 곳으로, 산림을 훼손

손해 개발하려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입주민들은 또 “해당 지역은 지난 2000년대 초반 아파트를 지으려다 천연림이 양호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허가를 내주지 못하도록 한 곳이다”며 “시가 건축허가를 내줄 경우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K사 관계자는 “공원도 아닌 사유지를 지주가 개발하려는데 시와 인근 주민들이 무슨 근거로 막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논란이 됐던 대지산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아산이다”고 주장했다.

용인/홍정표기자 jph@kyeongin.com



“제습서 어때요”

24일 오후 수원시 팔달구 수원가족여성회관에서 열린 ‘제27회 수원 여성 기·예경진대회’에서 케이크 데코레이션 부문 참가자들이 정성스럽게 만든 케이크 작품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임영수기자 ppys@kyeongin.com

안양 만안구 중학교 편중배치 해소

박달中 설립 수년째 ‘제자리’

이전 추진 ‘안양서여중 반발’

예산확보등 난제 완공 미지수

안양시 만안구 일부 지역의 중학교 편중배치 해소를 위해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추진하고 있는 박달중학교(가칭) 설립계획(경인일보 3월 20일자 21면 보도)이 수년째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24일 지원청 등에 따르면 2011년 박달동 거주 중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키 위해 박달중학교 설립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안양서여자중 학교를 이전기로 했다.

그러나 안양서여중 인근 주민과 재학생·졸업생 등이 안양서여중 사수 대책위원회까지 꾸려 수십년의 역사를 간직한 학교를 이전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서면서 순탄할 것 같던 계획에 급제동이 걸렸다.

지원청은 이전에서 신설로 방향을 바꿔 교육부 중앙통우자 심사위원회에 관련 예산안을 올렸으나 이미지도 학생수용계획에 따른 심사대상에서 제외돼 예산 확보가 어렵게 됐다.

이에 지원청은 지난 3월 200억원이 넘는 학교 신설 비용을 조달할 수 없다고 판단, 당초 계획대로 안양9동에 위치한 안양서여중을 정보사 박달동 이전부지(1만2천380㎡)로 이전기로 계획을 선회했지만, 안양서여중 재학생 등의 반발이 여전해 강행할 경우 거센 반발에 부딪혀 성사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부지확보 계획은 시와 국방부간 협의를 거쳐 박달동 정보사 이전부지 1만2천380㎡를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협의 결과는 이달 말께 나올 예정이며, 시는 협의가 완료되면 다음달께 주민공람공고 후 8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도시계획시설 결정 고시를 할 방침이다.

지원청 관계자는 “박달중학교는 24학급(특수 1학급 별도) 규모로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2016년 3월께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박달중학교 설립과 관련한 주민반발과 예산확보 등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최종 완공 기일은 쉽사리 점칠 수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안양/이서철·김종환기자 chani@kyeongin.com

‘조직 안정·화합’ 무계

이천시, 내달 소폭 인사

이천시 5급 이상 공직자에 대한 인사가 내달초 예정된 가운데 ‘조직의 안정과 화합’에 무계가 실리고 있다.

24일 시에 따르면 논공행상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 연공 서열 중심으로 인사폭을 최소화하는 대신 정보 순환인사에 비중을 크게 두기로 했다.

시 인사 관계자는 “선거후 단행될 5급 이상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연임인 점을 감안해 화합과 조직 안정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7월말께 예상되는 6급 이하 인사와 관련해서는 3년 이상 한자리를 지켜온 직원의 능력·적성 중심의 순환보직 인사가 철저히 반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사 폭은 전직원의 10~15%(90~120명)선이 될 전망이다. 민원담당 부서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해 기피 부서의 인식을 새롭게 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심재호기자 sjh@kyeongin.com

OMEGA™
Exceeding Your Expectations at **kr.omega.com**

- ✓ 10만 여종의 제품! 100,000 Products
- ✓ 간편주문, 신속배송! Easy Ordering, Fast Delivery
- ✓ 최상의 고객 서비스! World Class Customer Service



Product Group

온도/습도 Temperature/Humidity
압력 Pressure/Strain/Force
유량 Flow/Level
데이터 수집 Data Acquisition

ONE STOP SHOP

Application

시험/측정 Test/Measurement
공정제어 Process Control
연구실 Lab Equipment
무선 Wireless

Over 50 Years of Experience
as a Global
Technology Lea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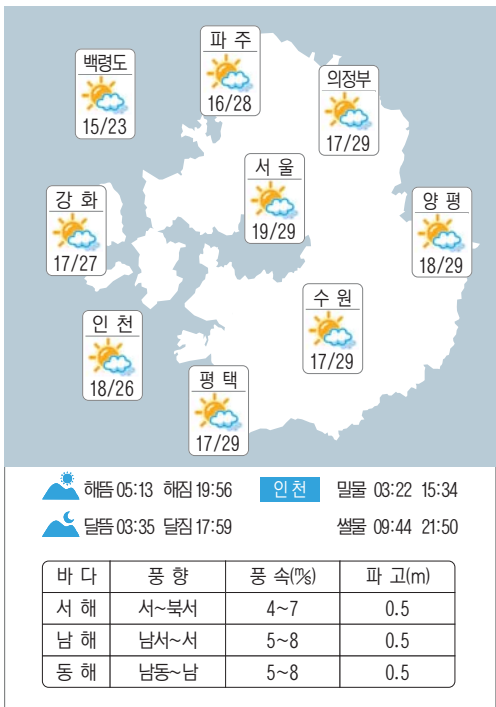
kr.omega.com | 080 7300 8830 | 1588 8983 | esales@kr.omega.com

날씨

25일 수요일 (음력 5월28일)

지옥같은 열기 뽐는 지하철

조금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5~19도, 낮 최고기온은 23~29도의 분포가 되겠다.



15년간 보험금 다툼
‘흥기 참극’으로...

15년 전 교통사고 보험금이 적다며 보험사를 찾아가 ‘돈을 내놓으라’며 흥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오후 2시에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A화재 사무실에서 보험 가입자와 이 회사 사고조사팀장 간에 실랑이가 벌어졌다.

이날 보험사를 찾은 홍모(47)씨는 사고조사팀장 박모(47)씨를 상대로 “보험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고, 박씨는 “더 이상 줄 돈이 없으니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격분한 홍씨는 집에서 가져온 흥기를 휘둘렀고, 박씨는 배를 크게 다쳤다. 놀란 회사 동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홍씨는 곧바로 붙잡혔다.

홍씨가 흥기까지 휘두르게 된 사연은 15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홍씨는 1996년 수원에서 교통사고를 당했고 3년 뒤 8천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홍씨는 사고로 노동력을 상실한 만큼 ‘보험금을 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씨의 요구는 15년째 계속됐다. 결국 A화재측은 홍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소송까지 냈고 2012년 승소한 상태다.

이날도 A화재를 찾아 보험금을 요청했던 홍씨는 결국 미리 준비한 흥기를 휘두르며 행패를 부렸다.

홍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받아야 할 보험금은 140억원”이라며 “A화재에서 보험금 수령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살인미수 혐의로 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강영훈기자 kyh@kyeongin.com

“역전의 용사들, 사회 밑바닥서 세상 떠나”

64돌 맞은 6·25 ‘지워지지 않는 상흔’

“64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전우들은 하나둘씩 세상을 떠났지만 나이진 게 없어. 그게 안타까워.”

한국전쟁 발발 64주년. 반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90만명의 참전용사는 18만여명만 남았고, 13만여명에 달하던 이산가족신청자 수는 절반으로 줄었다. 대신 형편이 어려워 아파도 치료조차 제대로 받지 못한채 세상을 떠나는 참전용사들과 부모·형제를 만나지 못하고 눈을 감는 이산가족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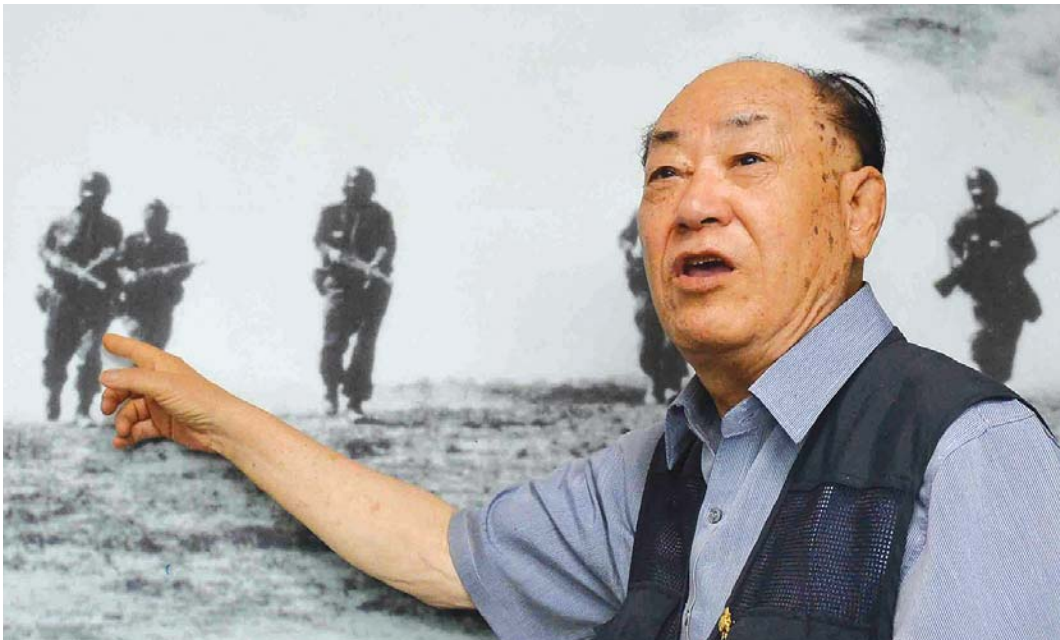
참전자 80~90% 기본교육 못받아 어려운 생활
명예수당 고작 17만원... 치료비조차 감당 안돼
절반으로 준 이산가족들 “생사라도 알았으면...”

6·25참전유공자회 최태운 안양시지회장은 “참전용사들 80~90%가 배우지 못해 평생을 어렵게 살았고 지금도 상당수가 기초수급자들로 독거노인도 많다”고 안타까워했다.

최 지회장은 “참전용사들은 시간이 흘러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여전하지만 나라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는 치료비도 안돼 치료를 포기하고 세상을 떠나는 회원들도 많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에게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은 월 17만원 남짓. 이마저도 2002년 월 5만원이 처음 지급된 이후 12년이 지난 지금까지 고작 10여만 원 올랐다.

이때문에 참전용사들은 사망자나 부상자 등 희생자에 집중돼 있는 현재의 보훈보상 체계가 변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국



24일 오후 안양시 6·25참전유공자회 사무실에서 최태운 안양시지회장이 전쟁 참전 당시 상황을 회상하고 있다.
/하태환기자 hath@kyeongin.com

군 최후의 부루인 낙동강 전선에서 목숨 바쳐 싸웠던 김형필(83) 할아버지는 화랑무공훈장을 받고도 무공명예수당으로 한 달에 23만5천원이 전부다.

김 할아버지는 “차라리 부상을 입었다면 상이군경으로 등록돼 수당이라도 더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총탄을 피해 부상자들을 업고 살아온 전우들도 많지만 국가의 예우는 미미하다.

그 사이 참전용사들은 가슴에 아픔만 품은 채 세상을 떠났다”고 섭섭해 했다.

정치 논리와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 탓에 이산가족들도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수원에 사는 신옥연(87·여)할머니의 고향은 평안북도 영변. 1·4후퇴 이후 계속되는 폭격에 아무 생각없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신 할머니는 이산가족 상봉때마다 가족들의 이름을 크게

쓴 종이를 들고 현장을 지켰다. 하지만 단 한번도 가족을 만나지 못했고 생사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신 할머니는 “이산가족상봉때마다 솔하게 신청했지만 한번도 된 적이 없다. 돈이 좀 있다는 사람들은 생사라도 알려준다는데... 이제 죽을 날만 남았는데 정말 가족들 얼굴 한번 못보고 죽을까 봐 무섭다”고 고개를 떨궜다. /공지영·강영훈기자 jyg@kyeongin.com

세월호 침몰사고 실종자
16일만에 1구 추가 수습

세월호 참사 70일째인 24일 오전 안전 단원과 여학생 시신 1구가 추가 수습됐다. 지난 8일 단원과 남학생 시신이 발견된 이후 16일 만에 추가로 시신을 수습한 것이다.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이날 오전 1시 3분께 세월호 4층 중앙통로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여성 실종자의 시신 1구를 수습했다.

구조팀이 DNA를 분석한 결과 희생자는 단원과 학생 윤모(17)양으로 확인됐다. 윤양은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다.

세월호 참사 발생 69일째인 이날 현재까지 사망자는 293명이며 남은 실종자는 11명이다.

/박종대기자 pjd@kyeongin.com

보수단체, 道교육감 당선자에 공개질의

국가관·이념등 13개 내용
“답변 거부하면 퇴진 운동”
인수위 찾아 질의서 전달

경기지역 보수단체들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자에게 공세수준의 이념·개인적 공개 질의를 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 관계자들은 기자회견 형식의 공개질의 후 교육감직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이 당선자에게 질의문을 전달했다.

경기도재향군인회,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회, 경기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회 등 12개 단체 회원 40여명은 24일 오전 11시 도교

육청 현관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초·중등교육을 담당할 수장으로서 올바른 국가관과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제목의 공개질의문을 발표했다.

질의문에는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입장, 혁신교육 정책에 대한 계획, (이 당선자의) 논문 내용중 주체사상을 언급한 부분에 대한 입장변화, 2007년 국회에서의 남북정상회담 북방한계선(NLL) 관련 중인 등 공세수준의 이념적 질문 13가지를 나열했다. 또 선거 당시 토론회 등에서 논란이 됐던 일부 개인적인 내용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이들은 오는 29일까지 공

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 당선자측이) 답변을 거부하거나, 답변 내용이 보편적이지 않을 경우 퇴진 운동 또는 출근저지 운동 등을 펼치겠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직후 이들은 수원과학고등학교내 인수위 사무실로 찾아가 이 당선자에게 직접 질의문을 전달했다.

이 당선자측은 “인수위로 사람들이 몰려와 이 당선자를 찾으니, 당선자가 반갑게 맞았고, 질문지를 줘 받은 것뿐”이라며 질의문에 대한 공식 입장에 대한 답변은 하지 않았다.

/김대현·윤수경기자 kimdh@kyeongin.com

“안타까운 죽음, 미안한 마음 뿐...”
GOP 총기난사 희생자 합동분향소 조문행렬

“예상치 못한 사고로 운명을 달리한 후배, 동료 병사에게 미안한 마음뿐입니다.”

강원도 고성군 22사단 GOP(일반전초) 총기 난사 사건으로 희생된 장병들이 안치된 국군수도병원에는 각계각층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24일 성남시 분당구 율동에 위치한 국군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같은 부대 소속 장병 80여명이 숨진 동료들을 차례로 조문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발길을 돌렸다.

또 정충원 국무총리와 김한길·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도 분향소를 찾아 헌화했으며 황기철 해군참모총장과 최자규 공군참모총장 등도 헬기를 타고 수도병원

을 찾아 부하 장병의 넋을 기렸다.

사고가 난 소대를 전역했다고 밝힌 20대 조문객은 “후임들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아무것도 해주지 못해 미안하다”며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분향소는 유족들의 요청에 따라 언론에는 제한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지만 일반인 조문은 막지 않고 있다. 조문을 받기 시작한 전날 오전부터 현재까지 수도병원 장례식장에는 장병 500여명과 유가족, 시민 등 1천100여명이 조문을 마쳤다.

한편, 수도병원에는 이번 사건으로 부상한 쌍둥이 형제 등 3명이 이송돼 현재 문도 하사 등 6명이 치료를 받고 있다. 성남/김규식·김성주기자 ksj@kyeongin.com

※ 부작용이 있을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효과빠른 위장약 ! 신일겔 정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식사, 자극적인 음식 섭취로 하루도 편안할 날이 없는 당신의 위장!!
힘들어하는 당신의 위장을 위하여, 신일겔 정을 권해 드립니다.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

효과빠른 위장약

신 일 겔 정

“간편하고 경제적인 신포장(240정)이 발매되었습니다.”

1. 빠르고 효과적인 제산 작용
4종의 제산성분이 함유되어 빠르고 효과적으로 위산을 중화시킵니다.

2. 신속한 증상개선 효과
과도한 위산 분비에 따른 소화불량 · 속쓰림 · 위통에 신속하게 작용합니다.

www.sinilpharm.com Tel 2211,6700

SINIL Pharmaceutical co.,ltd

광고심의필 : 1039-0101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출근길 숙취운전... ‘신호대기중 쿨~ 쿨~’

당신이 잠든 사이...
심정사거리 교통대란



‘위험천만한 숙취운전!’

전날 마신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길 운전을 하던 20대 남성이 사거리 신호대기중에 그만 잠이 들어 버려 경찰과 119구조대까지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인천부평경찰서에 따르면 24일 오전 7시 8분께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심정사거리에서 승용차를 몰고 회사로 출근하던 A(27)씨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드는 바람에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추는 사고가 일어났다. 이 사고로 출근길 교통량이 많은 심정사거리 일대에서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두드리며 A씨를 깨우려 했으나

20분 넘도록 A씨는 일어나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119구조대를 불러 강제로 차량문을 열고 나서야 A씨는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렸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과음을 한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다가 운전중에 깜빡 잠이 든 것으로 조사됐다”며 “숙취운전이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과음을 한 다음날에는 차를 두고 출근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유당선자, 안전보다 개발?

LH 시정 협조사안에 ‘붕괴 위기 심정2지구’ 빠져

주민들 “약속해놓고...” 반발

인천 구도심 달동네의 안전문제가 신도시 개발사업에 밀려 외면 당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자는 24일 경기도 성남 LH(한국토지주택공사) 본사를 찾아 LH와 관계된 여러 시정 현안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당초 유 당선자가 협조 사항에 포함할 예정이던 ‘구도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 촉구’는 빠져나

왔다. 희망준비단은 LH 현안사업 협의안건에서 ‘동구 대한학교뒤 구역과 부평구 심정2구역은 건물붕괴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재산피해와 안전사고 위험 증가로 조속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특히 심정2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최근 LH 조사 결과 붕괴 위험이 큰 주택이 31곳(경인일보 5월 21일자 23면 보도)인 것으로 나타나 특별 안전대책이 진행 중인 곳이다.

하지만 준비단은 협의안건에 대한 최종 검토 과정에서 이 사업을 제외했다. 제3연륙교 건설, 인천도시공사와 LH간 공동사업(검단신도시·영종하늘도시) 지분 조정, 청라국제도시

시티타워 조기착공 등 신도시 개발사업에 우선 집중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신도시 개발사업에 ‘주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린 것이다.

다가을 장마철이 걱정인 심정2지구 주민들은 심당감을 감추지 못했다. 흥영 심정2지구 주민대표위원회 감사는 “유 당선자가 후보등록을 한 날 심정2지구를 찾아 ‘최대한 빨리 해보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안전 사각에 놓인 달동네 주민들을 벌써부터 외면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평구 관계자도 “인천시가 LH에 심정2지구 등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체에 관심이 없다는 인상을 남기는 것 같아 아쉽다”며 “붕괴위험 주택 철거 등 안전대책에 대해 LH와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까 걱정이 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준비단 관계자는 “모든 사업을 한꺼번에 착수할 수 없어 대형 사업을 먼저 착수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우선 순위를 정했다”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조속한 시행은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천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경호기자 pkhh@kyeongin.com

수도권매립지 연장 갈등, 권익위 개입하나

관계기관 방문 실태조사

서울시·매립지공 “현실적인 대안 없는 상황” 찬성

인천시 “협상중 개입 불필요” 반대... 갈등증폭 우려

수도권매립지 사용 연장을 둘러싼 논란이 수년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중재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가 자치단체와 행정부가 협의해야 할 사안에 대해 직권으로 개입을 결정하면서 갈등을 증폭한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24일 인천시와 서울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에 따르면 최근 권익위가 이들 기관을 방문해 매립지 현황과 주민 민원 사안, 그리고 각 기관의 입장 등을 조사했다. 수도권매립지와 관련된 자치단체와 행정부간 분쟁에 권익위가 개입하기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2016년 매립 총료가 예정된 수도권매립지는 사용기한 연장 문제를 놓고, 인천시와 서울시 그리고 환경부가 갈등을 빚어왔다.

인천시는 2016년 사용 총료를 주장하며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대체 매립지 검토 연구 용역을 26일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반면, 서울시와 환경부는 2017년 이후에도 쓰레기 매립을 계속 하되 3매립장 예정지역의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 변경승인신청을 인천시에 제출하고, 매립장 착공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권익위가 중재에 나선 것이다. 권익위는 지난해 한국전력과 주민들 사이의 극심한 갈등을 빚어온 군산시 새만금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중재하는 등 지난해에만 43건의 집단 민원을 해결했다. 권익위의 중재안은 강제성을 갖지는 않지만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 하지만 권익위의 이 같은 개입에 대해 해당 기관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서울시와 매립지공사는 권익위의 개입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실적인 폐기물 매립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지자체 사이에 힘

겨루기만 계속 진행할 바에는 중앙정부나 적극 개입해 중재를 하는 것도 올바른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이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인천시, 경기도 등 3개 시도의 협의 과정이 교착상태에 빠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권익위가 지자체들의 의견 조율에 참여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 같다”며 “아직 권익위나 국무총리 조정실의 중재를 받을 정도로 협상이 어려움에 빠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서울시·환경부가 수도권매립지 연장을 놓고 지자체간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권익위의 개입으로 또 다른 갈등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기자 kij86@kyeongin.com



“6·25 전쟁음식 맛있어요”

6·25전쟁 64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오전 인천시 연수구 인천상륙작전기념관에 견학 온 어린이들이 쏙개떡과 보리주먹밥 등 6·25전쟁 당시 음식을 맛보고 있다.

/임순석기자 sseok@kyeongin.com

교육감 인수위 “재정상태 심각”

집행부는 “매년 그래왔다” 태평

을 부족재원도 ‘1천600억~1천억’ 의견차 커

누리과정지원비 186억원 ▲무상급식비 107억원 등 모두 1천621억원이다.

하지만 시교육청 집행부는 같은 기간 부족재원을 1천8억원으로 판단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인건비와 누리과정지원비 등 미편성분과 무상급식·교원명퇴수당 등을 포함한 재원

변동분 등이다.

집행부는 부족재원을 시에서 받지 못한 법정 전입금(772억원)과 세출 절감 등으로 1천억원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시가 법정 전입금을 올해 안에 지급하지 않으면 시교육청도 인천시에 지급해야 할 누리과정 지원금 800억

여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세웠다. 안 주고 안 받겠다는 얘기다.

인수위는 집행부의 대책을 꼬집었다. 인수위 관계자는 “재정 형편이 어려운 인천시가 800억원 가까운 돈을 교육청에 몰아준다고 장담할 수 없으며 또 어린이집을 볼모로 협상을 해선 안 된다”며 평가절하했다. 인수위는 “기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날 기자회견 내용이 인수위가 공약 이행에 부담을 느끼고 엄살을 부리는 것이라는 의견과 인천시의 미전입금을 빨리 받아내기 위한 포석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김성호기자 ksh96@kyeongin.com

미스터
달팽이 (1549)
이공명



계양구·가정2동 일부

26일 10시~22시 ‘단수’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2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계양구 전 지역과 서구 가정2동 일부 지역에 단수가 실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수는 부평정수장의 전력 설비 보수 공사에 따른 것으로 단수 대상지역 주민들은 수도물을 미리 확보해 달라고 상수도사업본부 측은 당부했다.

이와 함께 상수도사업본부는 수도물 공급 재개시 혼탁수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수도물을 충분히 흘려보낸 뒤 사용해 달라고 했다.

단수 조치와 관련해 문의 사항이나 불편 신고는 국번없이 120(마추를 콜센터)으로 하면 된다.

/김명호기자 boq79@kyeongin.com

광고문의
인천 032)861-3204
수원 031) 231-5271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 심의위원회 심의필(090729-증-14115)

오산노인전문병원

가족들의 든든한 노인전문병원이며, 환자들의 편한 휴식처가 되겠습니다

오산노인전문병원은 재활치료 전문병원입니다.

- 노인성 질환자들의 입원 편의를 위하여 24시간 구급차 대기 및 입원 상담 실시
- 간병 제도(전문 간병인, 24시간 간병인 有)
- 연중 무휴 · 입원 상담 및 입원 가능

전문진료과목 · 실

· 내과	· 신경과	· 치매 뇌졸중(중풍)
· 물리치료실	· 방사선과	· 노인성 정신 질환
· 재활의학과	· 정신과	· 노인성 만성 질환
· 임상병리실	· 사회사업실	· 노인성 신체 질환

노인성질환전문치료병원의료법인

오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오산시 궏동 543번지 ☎ 031)370-2300~5 <http://www.osansilver.com>

아주대학교병원
오산신경정신병원
협력 진료

오산노인 전문병원

오시는 길

금성초경
슈퍼
대상
보화교회
원릉초
오산성당
오산정보고등학교
오산대학
SK주유소
오산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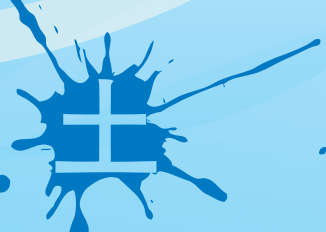
오산노인 전문병원

오산노인 전문병원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성공기원

건강도시인 인천 건강한도시 2014

2014.07.05. 
AM09:30~PM2:00
인천대공원 야외극장

주최/주관  인천광역시  경인일보  (사)바르게살기운동
후원  가천대길병원  국민건강보험  인천광역시간호사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하나은행

인천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취지와 더불어
인천시민과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인천아시아게임'의 성공 개최를 위한
시민들의 응원결집과 공감대 형성의 장!

 건강걷기마당에
참가하고 싶어요~

접수 및 문의

(사)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사무국 032)822-7445

경인일보 032)872-9000

10개 군.구 사무국 (접수처)

중 구 762-4700	동 구 765-9250
남 구 876-9737	남동구 463-1769
연수구 812-5273	부평구 822-7445
계양구 552-4173	서 구 576-4871
강화군 934-6800	옹진군 887-8751

- 현장접수 : 행사당일 현장 접수처에서 신청.

 참가자 안내사항

- 행사 참가비는 전액 무료로 운영됩니다.
- 본행사 참가자에게는 점심식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질서있게 행사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Incheon Health Festival 2014



첫째

건강걷기마당

당뇨병 및 만성질환예방을 위해 마련된 건강체험활동으로, 인천대공원 걷기코스를 따라 보행하는 걷기 운동을 통해 예방관리차원의 인천시민건강을 독려하고 건강한 시민인식을 강화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걷기대회 접수처 등록은 09:30 마감)

둘째

건강체험마당

골다공증,고혈압,당뇨검사 / 결핵예방검진 / 체성분검사 / 출산장려보건의료서비스,성폭력예방상담 / 심뇌혈관질환검진 및 상담 / 치매에 대한 인식개선유도홍보,상담 / 골밀도,체지방,금연진단 / 건강 체조시연 / 아토피천연비누만들기,골다공증 검사 / 정신건강정보제공 / 정신건강선별검사, 가상음주 체험 / 체력,건강나이측정 / 신체균형향상운동체험

셋째

당뇨예방체험마당

당뇨혈당 체크 / 당뇨예방 자기관리 전시관 / 당뇨전문의 상담관

■ 인천시민들의 당뇨에 대한 인식개선과 예방을 목적으로 가천대 길병원(인천광역시 간호사회 공동후원)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당뇨예방 체험마당에서는, 본 행사에 참가한 참가자들의 당뇨 혈당을 체크하여 드리며, 자신의 혈당수치를 기준으로 당뇨에 대한 자가관리법 등을 알려드리므로써 시민들 스스로 당뇨를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전문의 상담을 현장에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넷째

바르게나눔마당

함께 나누고 소통하는 아나바다 프리마켓.

